
2017년도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 보고서

2017. 06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ourism & Leisure Industry Skills Council

목 차

제 1 장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현황	1
1. 조사의 의의와 목적	1
2. 관광·레저산업의 범위와 분류	2
3. 전국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현황	5
4.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	7
제 2 장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실태분석	21
1.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실태분석 개요	21
2. 업종별 실태분석	25
제 3 장 관광·레저산업 인력양성 및 공급 현황	61
1. 관광·레저산업 인력정책 현황 및 동향	61
2. 관광·레저산업 인력양성기관 및 프로그램	68
3. 정규 교육기관 인력공급 현황	74
4. 관광·레저산업 자격현황	84
제 4 장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와 전망	109
1.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접근방법	109
2.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과 전망	114
3. 관광·레저 산업 업종별 실태 및 전망	130
제 5 장 관광·레저산업 주요 이슈와 ISC의 역할	137

1. 관광·레저산업 주요 이슈	137
2. 관광·레저ISC의 역할	145
3. 관광·레저ISC의 전략분야	151
참고문헌	155

표 목 차

<표 I-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레저산업 분류	3
<표 I-2> 관광사업체 수 추이	5
<표 I-3>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5
<표 I-4> 관광사업체 연간 총 매출액 추이	6
<표 I-5> 전국 시·도별 여행업 등록현황	7
<표 I-6> 여행업분야 관광사업체 수 변화 추이	8
<표 I-7> 여행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9
<표 I-8> 관광숙박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9
<표 I-9> 관광숙박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10
<표 I-10> 전국 시·도별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11
<표 I-11> 전국 시·도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현황	12
<표 I-12> 전국 시·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현황	13
<표 I-13> 관광객이용시설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13
<표 I-14> 관광객이용시설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14
<표 I-15> 전국 시·도별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14
<표 I-16> 국제회의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15
<표 I-17> 국제회의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15
<표 I-18> 전국 시·도별 카지노업체 현황	16
<표 I-19> 카지노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16
<표 I-20> 카지노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17
<표 I-21> 전국 시·도별 유원시설업체 현황	17
<표 I-22> 유원시설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18
<표 I-23> 카지노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18
<표 I-24> 전국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	19

<표 I-25> 관광편의시설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20
<표 I-26> 관광편의시설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20
<표 II-1> 목표 모집단 현황	22
<표 II-2> 관광사업체 공통항목	23
<표 II-3> 여행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25
<표 II-4> 여행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26
<표 II-5> 여행업 성별 종사자 수	26
<표 II-6> 여행업 연령별 종사자 수	27
<표 II-7> 여행업 학력별 종사자 수	27
<표 II-8> 여행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28
<표 II-9> 여행업 언어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29
<표 II-10> 여행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30
<표 II-11> 관광숙박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31
<표 II-12> 관광숙박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31
<표 II-13> 관광숙박업 성별 종사자 수	32
<표 II-14> 관광숙박업 연령별 종사자 수	32
<표 II-15> 관광숙박업 학력별 종사자 수	33
<표 II-16> 관광숙박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33
<표 II-17> 관광숙박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34
<표 II-18> 관광숙박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34
<표 II-19>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35
<표 II-20> 관광객이용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36
<표 II-21> 관광객이용시설업 성별 종사자 수	37
<표 II-22> 관광객이용시설업 연령별 종사자 수	37
<표 II-23> 관광객이용시설업 학력별 종사자 수	38

<표 II-24> 관광객이용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38
<표 II-25>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39
<표 II-26> 관광객이용시설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40
<표 II-27> 국제회의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41
<표 II-28> 국제회의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41
<표 II-29> 국제회의업 성별 종사자 수	42
<표 II-30> 국제회의업 연령별 종사자 수	42
<표 II-31> 국제회의업 학력별 종사자 수	42
<표 II-32> 국제회의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43
<표 II-33> 국제회의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43
<표 II-34> 국제회의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44
<표 II-35> 카지노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45
<표 II-36> 카지노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45
<표 II-37> 카지노업 성별 종사자수	45
<표 II-38> 카지노업 연령별 종사자수	45
<표 II-39> 카지노업 학력별 종사자수	46
<표 II-40> 카지노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수	46
<표 II-41> 카지노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46
<표 II-42> 카지노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47
<표 II-43> 유원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47
<표 II-44> 유원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48
<표 II-45> 유원시설업 성별 종사자수	48
<표 II-46> 유원시설업 연령별 종사자수	49
<표 II-47> 유원시설업 학력별 종사자 수	49
<표 II-48> 유원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50

<표 II-49> 유원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50
<표 II-50> 유원시설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51
<표 II-51>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52
<표 II-52> 관광편의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53
<표 II-53> 관광편의시설업 성별 종사자수	54
<표 II-54> 관광편의시설업 연령별 종사자수	55
<표 II-55> 관광편의시설업 학력별 종사자수	56
<표 II-56> 관광편의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57
<표 II-57>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58
<표 II-58> 관광편의시설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59
<표 III-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업무보고 주요 내용	62
<표 III-2> 관광.레저분야 해외 취업 현황	63
<표 III-3> 관광관련 학교 학과 현황(2014-2015)	64
<표 III-4> NCS 도입에 따른 관광교육 변화 사례	65
<표 III-5> 교육부 교육정책 업무보고 주요 내용	67
<표 III-6> 한국관광공사 교육 프로그램	68
<표 III-7> 한국관광공사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	69
<표 III-8>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교육 프로그램	69
<표 III-9>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 프로그램	70
<표 III-10> 한국여행업협회 교육 프로그램	70
<표 III-11>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안내	71
<표 III-12> 해양수산부 크루즈 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과정	71
<표 III-13> 기타기관 교육 프로그램	72
<표 III-14> 관광아카데미 교육과정별 현황	73
<표 III-15> 관광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기관 현황	74

<표 Ⅲ-16> 서울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75
<표 Ⅲ-17> 경기·인천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76
<표 Ⅲ-18> 대구·경북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76
<표 Ⅲ-19> 부산·경남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77
<표 Ⅲ-20> 충청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77
<표 Ⅲ-21> 조리분야 특성화고 현황	78
<표 Ⅲ-22> 항공분야 특성화고 현황	79
<표 Ⅲ-23> 컨벤션분야 특성화고 현황	79
<표 Ⅲ-24>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81
<표 Ⅲ-25> 관광·레저산업 NCS기반자격형 일학습병행제	81
<표 Ⅲ-26> 관광·레저산업 자격연계형 일학습병행제	82
<표 Ⅲ-27> 관광·레저산업 자격연계형/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제	83
<표 Ⅲ-28>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구성 체계	84
<표 Ⅲ-29> 여행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개요	85
<표 Ⅲ-30>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85
<표 Ⅲ-3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86
<표 Ⅲ-3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87
<표 Ⅲ-33> 최근 5년 간 국내여행안내사 합격률	87
<표 Ⅲ-34> 최근 5년 간 관광통역안내사 합격률	88
<표 Ⅲ-35> 호텔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개요	88
<표 Ⅲ-36> 호텔경영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89
<표 Ⅲ-37>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89
<표 Ⅲ-38>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90
<표 Ⅲ-39>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90
<표 Ⅲ-40>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91

<표 Ⅲ-41>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91
<표 Ⅲ-42> 호텔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기준 점수	92
<표 Ⅲ-43> 최근 5년 간 호텔경영사 합격률	92
<표 Ⅲ-44> 최근 5년 간 호텔관리사 합격률	92
<표 Ⅲ-45> 최근 5년 간 호텔서비스사 합격률	93
<표 Ⅲ-46>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시험 개요	93
<표 Ⅲ-47>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94
<표 Ⅲ-48>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 합격기준 점수	94
<표 Ⅲ-49> 최근 5년 간 컨벤션기획사 2급 합격률	95
<표 Ⅲ-50> 관광종사원 자격 종목별 자격 취득 현황	95
<표 Ⅲ-51> 여행업 분야 업무별 자격기준	96
<표 Ⅲ-52> 연도별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자 수	97
<표 Ⅲ-53>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수	97
<표 Ⅲ-54> 호텔업 분야 업무별 자격기준	98
<표 Ⅲ-55> 연도별 호텔업 관련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자 수	99
<표 Ⅲ-56> 국제회의업 분야 업무별 자격기준	99
<표 Ⅲ-57> 연도별 국제회의업 관련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자 수	100
<표 Ⅲ-58> 관광·레저분야 NCS 개발 현황	101
<표 Ⅲ-59> 여행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102
<표 Ⅲ-60> 숙박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103
<표 Ⅲ-61> 컨벤션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104
<표 Ⅲ-62> 관광레저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107
<표 IV-1> 관광·레저 인력수요예측기법의 유형 및 기준	109
<표 IV-2> 여행업 종사자 수	114
<표 IV-3> 여행업에 대한 예측결과	115

<표 IV-4>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	116
<표 IV-5> 관광숙박업에 대한 예측결과	117
<표 IV-6>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수	118
<표 IV-7>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예측결과	119
<표 IV-8>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	120
<표 IV-9> 국제회의업에 대한 예측결과	120
<표 IV-10> 카지노업 종사자 수	122
<표 IV-11> 카지노업에 대한 예측결과	122
<표 IV-12> 유원시설업 종사자 수	124
<표 IV-13> 유원시설업에 대한 예측결과	124
<표 IV-14>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수	126
<표 IV-15>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예측결과	127
<표 IV-16>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128
<표 IV-17> 연도별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증가분	129
<표 IV-18> 여행업 분야 인력 수요 전망	130
<표 IV-19> 여행업 이용객수 추이	131
<표 IV-20> 관광숙박업 분야 인력 수요 전망	132
<표 IV-21> 관광숙박업 이용객 수 추이	132
<표 IV-22> 국제회의 시설업 참가자 수 추이	133
<표 IV-23> 카지노업 이용객 수 추이	134
<표 IV-24>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용객 수 추이	134
<표 IV-25> 유원시설업 이용객 수 추이	135
<표 IV-26> 관광편의시설업 이용객 수 추이	135
<표 V-1> 관광진흥법 상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와 NCS 개발 현황 비교	152

그림목차

[그림 Ⅲ-1] 청년 일자리 전달체계	61
[그림 Ⅲ-2]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방안	66
[그림 Ⅲ-3] 관광종사원 자격 종목별 자격 취득 현황	96
[그림 IV-1] 각 모델에 의한 여행업의 예측결과	115
[그림 IV-2] 각 모델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예측결과	117
[그림 IV-3] 각 모델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예측결과	119
[그림 IV-4] 각 모델에 의한 국제회의업의 예측결과	121
[그림 IV-5] 각 모델에 의한 카지노업의 예측결과	123
[그림 IV-6] 각 모델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예측결과	125
[그림 IV-7] 각 모델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예측결과	128
[그림 IV-8]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 수요 전망	129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현황

1. 조사의 의의와 목적

1) 조사의 의의

- 정부는 산업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관리·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함.
- 이에 따라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관광레저산업계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해당산업의 인적자원 관련 의사결정, 현장형 인재 수요파악 등을 위한 산업인력 현황분석에 관한 조사를 시행함.
 - 조사를 통하여 관광·레저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요 이슈 분석 및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도모

2) 조사의 목적

- 관광·레저 산업분야의 인적자원 및 기술 동향, 주요 이슈분석 등의 산업계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산업 내 관련 활동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산업별 인력 수급 현황자료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수요맞춤형 인력 제공
- 현재 관광·레저 산업분야별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실태조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인력양성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도모
-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협의적 해석과 현재 관광·레저 산업(관광진흥법상) 관련 산업의 현장 의견수렴 및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분야 선정과 정책적 대안 제시

2. 관광·레저산업의 범위와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는 관광·레저산업을 분류함에 있어 경제부문의 특수 분류로 정리하고 있음
- 관광산업의 특수 분류는 핵심 관광산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 산업으로 구분됨.
 - 핵심 관광산업은 관광쇼핑업(도매업 제외),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카지노업 등 8개 업종으로 구분됨.
 - 상호의존 관광산업은 관광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 등 4개 업종으로 구분됨.
 - 부분적용 관광산업은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으로 구분됨.
 - 관광 지원 산업은 관광 연구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 서비스업, 관광단체의 4가지로 구분됨.
- 이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관광산업의 특수 분류는 관광·레저산업을 광의의 개념으로 폭넓게 분류하는 체계임.

□ 관광진흥법에 의한 분류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레저산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7가지로 분류함.
 -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숙박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호텔업과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대되는 음식·운동·

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

-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국제회의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카지노업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유원시설업은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 관광편의시설업은 상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 이처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레저산업의 분류는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관광·레저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체계임.

<표 I-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레저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자료: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3. 전국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현황¹⁾

-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수는 200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레저분야 사업체 수는 23,874개로 전년 대비 15.0%가 증가함.

<표 I-2> 관광사업체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여행업	8,499	8,569	9,284	10,725	12,438	11,722	12,854	14,607
관광숙박업	758	844	896	920	1,073	1,074	1,278	1,503
관광객이용시설업	198	233	292	302	353	385	336	1,213
국제회의업	237	308	363	398	485	508	677	619
카지노업	17	17	17	16	17	16	17	17
유원시설업	201	277	303	368	389	358	593	1,060
관광편의시설업	2,067	2,507	3,126	3,415	4,171	4,378	5,014	4,855
전체	11,977	12,755	14,281	16,144	18,926	18,441	20,769	23,87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는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3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레저분야 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235,603명으로 전년 대비 2.3%의 증가율을 보임.

<표 I-3>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여행업	54,661	46,989	49,928	59,287	69,990	70,574	69,400	84,558
관광숙박업	53,385	56,530	60,402	62,783	70,803	63,899	67,465	70,305
관광객이용시설업	7,909	8,575	9,528	9,741	11,882	13,528	10,671	11,065
국제회의업	7,710	8,737	11,018	12,638	13,599	14,092	17,330	15,131
카지노업	5,819	6,212	7,248	6,923	7,422	8,452	8,931	9,418
유원시설업	10,865	10,946	11,545	13,492	14,386	14,441	17,031	17,224
관광편의시설업	26,825	30,951	36,725	39,715	41,576	42,150	39,506	27,902
전체	167,174	168,940	186,394	204,579	229,658	227,136	230,334	235,6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문화체육관광부(2008-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참조 후 재작성.

○ 관광사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2012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5년 관광사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22조 3,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의 감소세를 나타냄.

<표 I-4> 관광사업체 연간 총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여행업	2,896,571	2,750,419	3,199,417	4,402,134	5,909,063	5,798,802	5,321,988	6,472,575
관광숙박업	4,940,447	5,092,650	5,541,966	6,140,944	7,056,942	7,085,528	7,930,628	7,859,586
관광객이용 시설업	1,153,131	1,317,715	1,526,685	1,725,561	1,901,977	2,166,797	814,120	789,116
국제회의업	1,264,133	1,321,120	1,986,080	2,027,030	2,297,493	2,408,318	2,442,369	1,760,254
카지노업	1,982,595	2,306,733	2,262,584	2,311,664	2,460,353	2,631,044	2,799,221	2,804,413
유원시설업	707,224	851,486	950,505	1,043,514	1,181,948	1,324,103	1,498,173	1,538,658
관광편의 시설업	1,538,874	1,789,690	2,399,661	2,546,204	2,747,202	1,874,445	1,760,749	1,133,617
전체	14,482,975	15,429,813	17,866,898	20,197,051	23,554,978	23,289,037	22,567,248	22,358,2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4.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

가. 여행업

- 여행업은 국내의 관광·레저산업 발전의 동맥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여행업의 종류에는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됨.
- 1991년 1월 1일부터 여행업의 대외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여행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사의 경영개선 유도, 서비스 향상에 의한 신뢰회복, 여행업 전문 인력 양성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체 수

- 전국 시·도별 여행업 등록 현황은 일반여행업 2,952개소, 국내여행업 5,202개소, 국외여행업 6,656개소로 총 14,810개소가 등록되어 있음(2015년 말 기준).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6,136개소(일반: 1,875개소, 국내:1,174개소, 국외: 3,087개소)로 가장 많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부산시 1,204개소(일반:104개소, 국내:451개소, 국외: 649개소)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음.
 - 다음으로 제주도 1,132개소(일반: 268개소, 국내: 729개소, 국외: 135개소), 경기도 1,037개소(일반: 190개소, 국내: 379개소, 국외: 468개소)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세종시의 경우 28개소(일반: 2개소, 국내: 12개소, 국외: 14개소)로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표 I-5> 전국 시·도별 여행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서울시	6,136	1,875	1,174	3,087
부산시	1,204	104	451	649
대구시	523	59	240	224
인천시	285	64	112	109
광주시	369	50	156	163
대전시	542	54	240	248
울산시	209	16	96	97
세종시	28	2	12	14
경기도	1,037	190	379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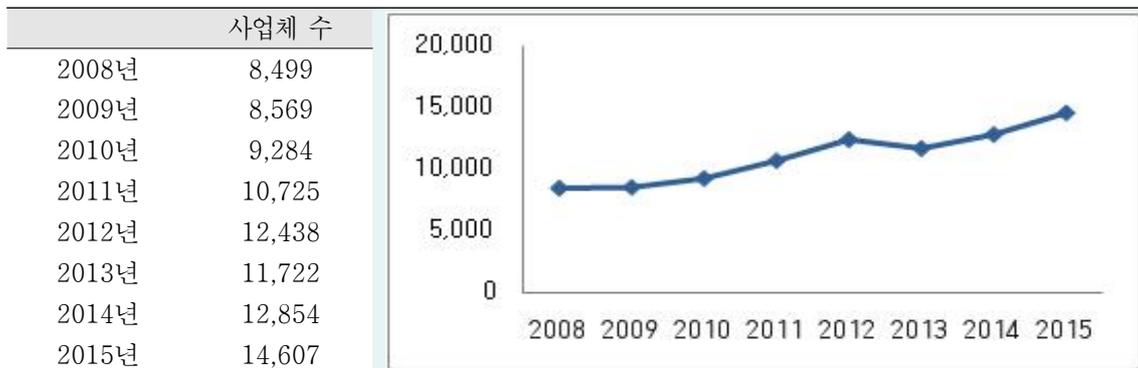
강원도	273	38	119	116
충청북도	314	28	152	134
충청남도	479	11	243	225
전라북도	387	61	161	165
전라남도	508	35	258	215
경상북도	539	41	280	218
경상남도	845	56	400	389
제주도	1,132	268	729	135
계	14,810	2,952	5,202	6,65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여행업분야의 관광사업체 수는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3.6%가 증가함.

<표 I-6> 여행업분야 관광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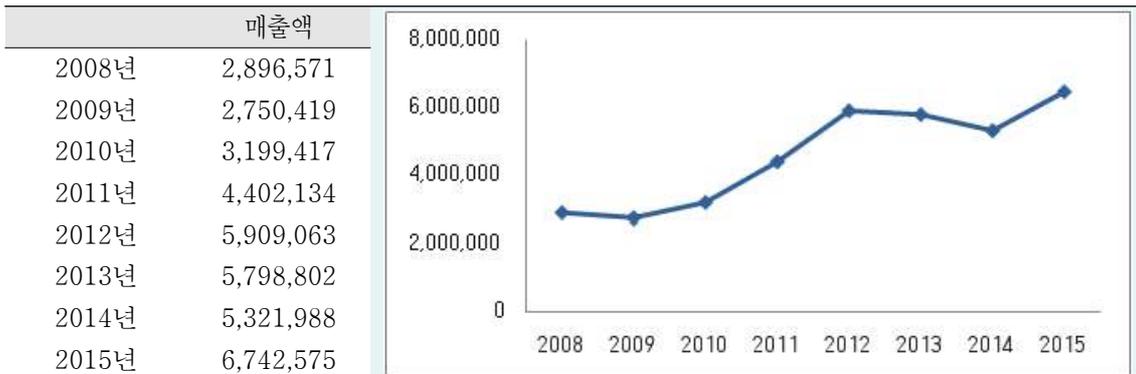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매출액

- 여행업분야의 매출액은 2012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2014년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2015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21.6%의 증가율을 보임.

<표 I-7> 여행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나. 관광숙박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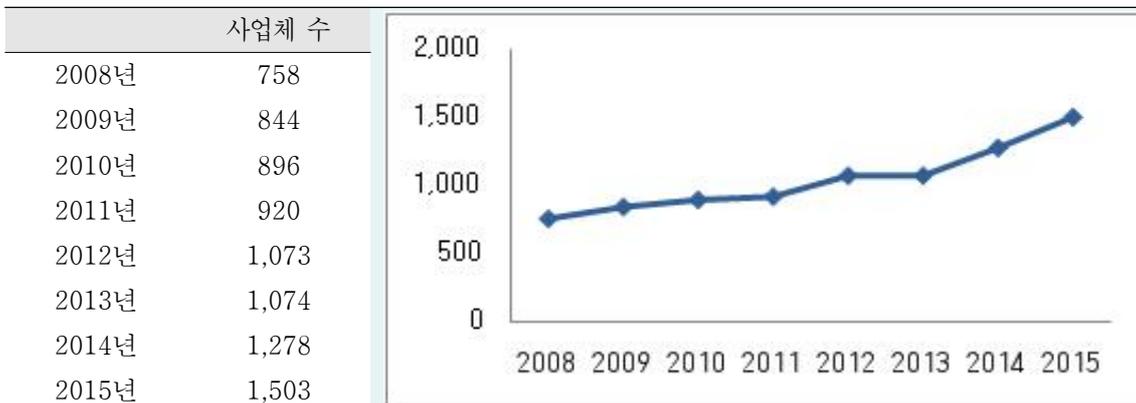
-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되며,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성됨.

□ 사업체 수

- 관광숙박업 분야 사업체 수는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7.6%의 증가율을 나타냄.

<표 I-8> 관광숙박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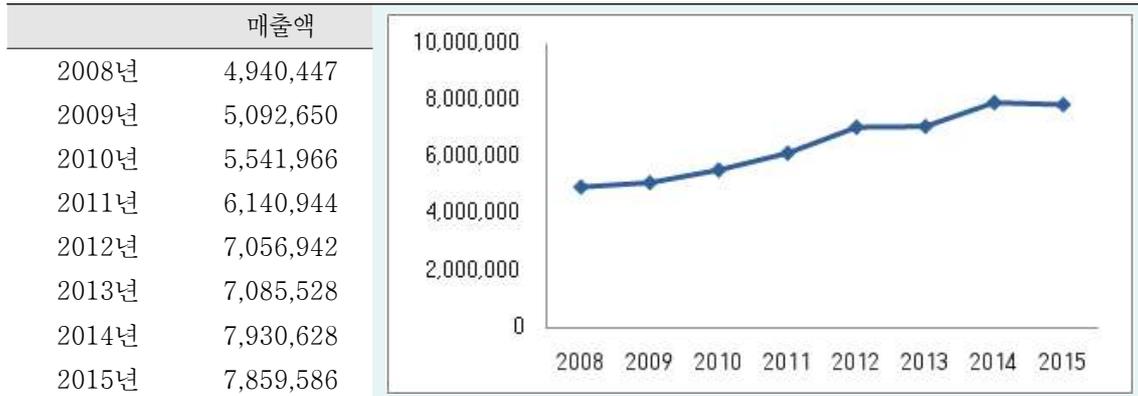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매출액

- 관광숙박업 분야 매출액은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보합세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0.9%의 감소율을 보임.

<표 I-9> 관광숙박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 호텔업

- 관광호텔업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907개 업체(101,726실)가 등록되어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249개 업체(39,278실), 제주도 107개 업체(11,645실), 경기도 120개 업체(9,581실), 부산시 63개 업체(8,144실) 등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음.
-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한국 고유의 시설을 갖춘 숙박업종으로 1991년 7월 26일 최초로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전통호텔업(씨에스 호텔앤리조트)이 등록되었으며, 2015년 말 전국 6개소, 157실이 운영되고 있음.
- 가족호텔업은 증가된 가족단위의 관광수요에 부응하여 국민복지 차원에서 건전한 가족관광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호텔 내에 취사장, 운동·오락시설 및 위생설비를 겸비토록 하였음.
- 2015년 12월 말 전국 121개소 10,389실이 운영되고 있음.
- 수상관광호텔업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숙박업종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²⁾

2) 2000년 7월 20일 최초로 부산 해운대구에 객실 수 53실의 수상관광호텔업이 등록되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멸실되었음.

○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숙박업종으로 2009년 10월 7일 호텔업의 한 종류로 신설되었음.

- 호스텔업은 2015년 12월 말 전국 232개소 4,889실이 운영되고 있음.

<표 I-10> 전국 시·도별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관광호텔업	5성급	7	-	-	1	-	-	1	-	1	-	-	-	1	-	-	11	
	4성급	1	-	-	-	-	-	-	-	-	-	-	-	-	-	-	1	
	3성급	8	2	-	1	-	2	-	1	-	-	2	1	1	1	-	19	
	2성급	10	2	-	2	-	2	-	7	1	2	-	2	1	1	-	32	
	1성급	5	2	-	1	-	-	-	2	1	2	-	1	3	-	4	-	21
	특1등급	20	8	2	4	1	1	1	4	7	1	-	-	3	4	3	16	75
	특2등급	40	4	5	8	-	3	2	10	6	1	4	3	5	1	3	19	114
	1등급	43	11	1	3	2	2	-	9	7	3	2	1	8	9	6	26	133
	2등급	17	12	1	4	1	2	2	8	1	1	3	5	4	3	5	14	83
	3등급	34	9	1	21	3	1	2	25	2	2	1	4	2	6	9	13	135
	등급 무	64	13	10	19	11	7	2	54	16	10	8	11	11	15	13	19	283
	소 계	249	63	20	64	18	20	10	120	42	22	18	29	39	41	45	107	907
수상관광호텔업	-	-	-	-	-	-	-	-	-	-	-	-	-	-	-	-	-	
한국전통호텔업	-	-	-	2	-	-	-	-	-	-	-	1	1	1	-	1	6	
가족호텔업	11	-	-	2	-	1	2	3	1	1	2	3	4	9	2	17	121	
호스텔업	28	23	1	18	-	-	-	1	1	-	-	1	1	4	-	-	232	
소형호텔업	3	-	-	2	-	-	-	1	1	-	-	1	1	4	-	-	13	
의료관광호텔업	-	-	-	-	-	-	-	-	-	-	-	-	-	-	-	-	-	
호텔업 소계	291	86	21	88	18	21	12	128	55	25	22	39	64	57	70	282	1,279	
휴양콘도미니엄업	-	4	-	2	-	-	-	15	67	8	15	6	8	15	14	55	209	
총 계	291	90	21	90	18	21	12	143	122	33	37	45	72	72	84	337	1,48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자로 호텔업의 한 종류로 신설되었고, 소형호텔업은 부띠크 호텔 등 객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특색 있는 숙박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에 신설됨.

- 소형호텔업은 2015년 12월 말 전국 13개소 465실이 운영되고 있음.

(2)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1957년 스페인에서 기존호텔에 개인의 소유권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한 것이 시초이며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시설로 국내의 1982년 12월 31일자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종으로 신설되었음.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2015년 12월 말 기준 209개 업체에 42,796실이 운영되고 있음.

(3) 국민여가 캠핑장

○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 국민의 여가가 확대되고 국내 숙박관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캐빈, 코테지, 방갈로, 야영장 등의 관광숙박 시설과 취사장, 세면장, 운동·놀이시설 등의 공공편의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한 가족단위 관광숙박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까지 7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전국 50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음.

<표 I-11> 전국 시·도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캠핑장 수	-	1	2	1	1	1	1	9	14	6	4	5	12	13	7	-	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으로 구분됨.

□ 사업체 수

○ 2015년 12월 말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현황은 전문휴양업 78개, 종합휴양업 21개, 야영장업은 1,002개 업체이며, 관광유람선업 35개 업체, 관광공연장업은 7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음.

<표 I -12> 전국 시·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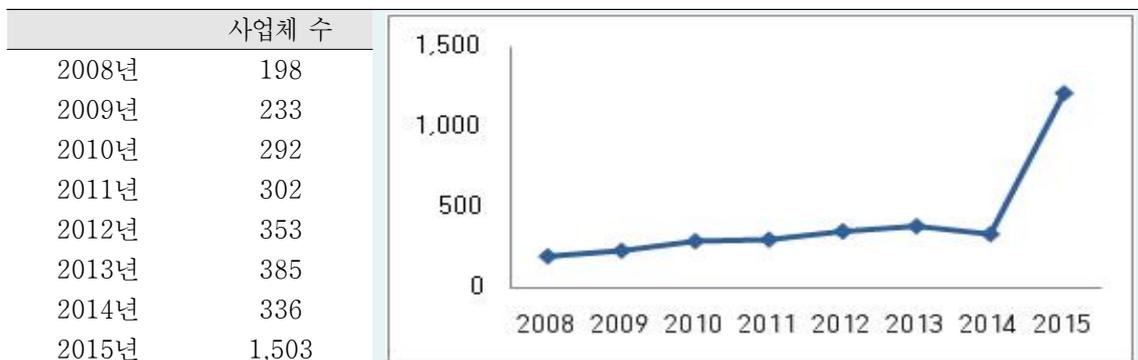
구분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서울시	-	1	4	1	4
부산시	1	1	5	4	-
대구시	-	1	5	-	1
인천시	1	-	22	5	-
광주시	-	-	3	-	-
대전시	-	1	6	-	-
울산시	-	-	5	-	-
세종시	-	-	4	-	-
경기도	10	3	173	-	-
강원도	5	5	243	2	-
충청북도	5	1	95	-	1
충청남도	4	1	76	1	-
전라북도	1	1	59	3	-
전라남도	1	3	60	4	-
경상북도	7	1	113	-	-
경상남도	2	2	98	8	-
제주도	41	-	31	8	1
계	78	21	1,002	36	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사업체 수는 20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4년 잠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61%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이는 2015년부터 일반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조사대상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 -13> 관광객이용시설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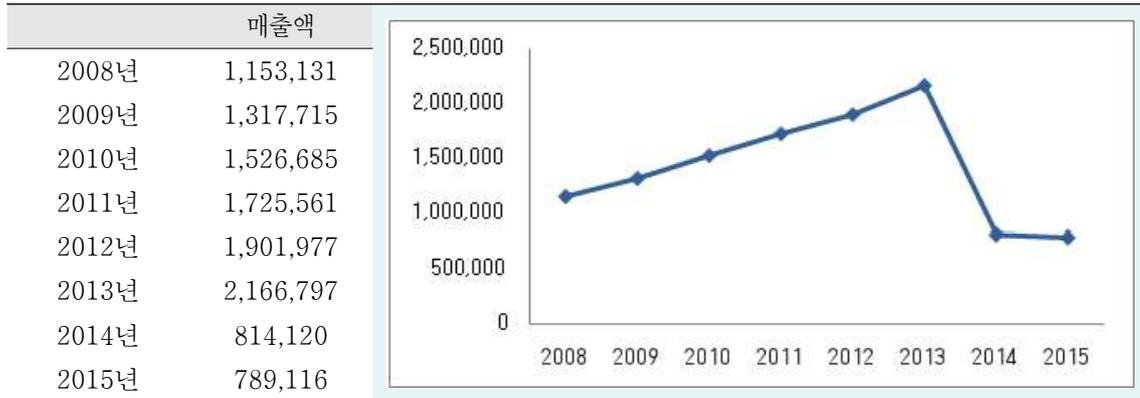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매출액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매출액은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5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표 I-14> 관광객이용시설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라.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분류됨.

-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 주관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함.

□ 사업체 수

○ 2015년 말 기준 국제회의시설업은 11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국제회의 기획업은 60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표 I-15> 전국 시도별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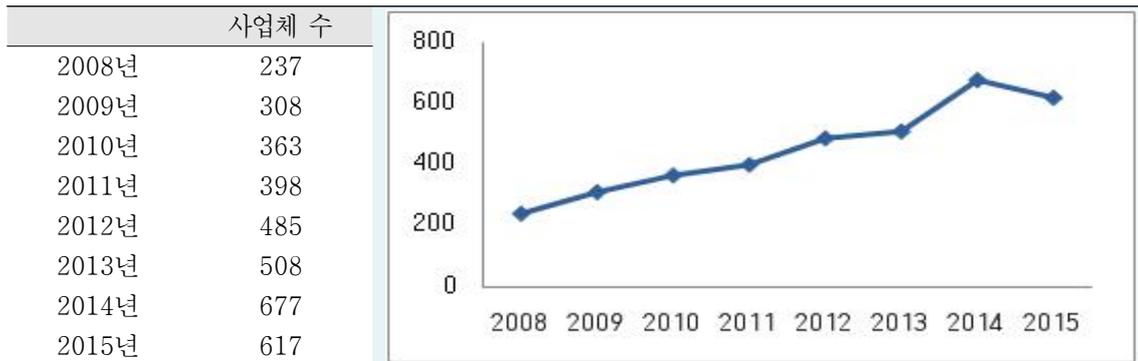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제회의업 (시설업+기획업)	409	44	24	8	16	29	0	25	15	4	1	7	0	15	18	4	6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국제회의업 분야 사업체 수는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5년 전년대비 8.9%의 감소세를 보임.

<표 I-16> 국제회의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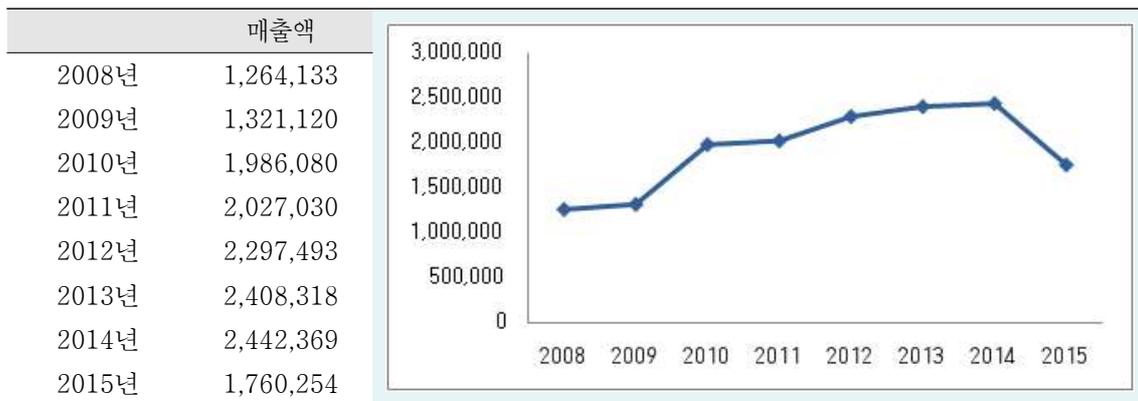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매출액

- 국제회의업의 매출액은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 전년 대비 27.9%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냄.

<표 I-17> 국제회의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마. 카지노업

- 국내 카지노는 카지노업 허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진작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사업체 수

-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967년 인천 올림픽스 카지노 개설을 시작으로 2005년

신규 허가 3개소를 포함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강원랜드 카지노 1개소가 운영 중임.

-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지역별로는 서울 3개소, 부산 2개소, 인천 1개소, 강원 1개소, 대구 1개소, 제주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표 I-18> 전국 시·도별 카지노업체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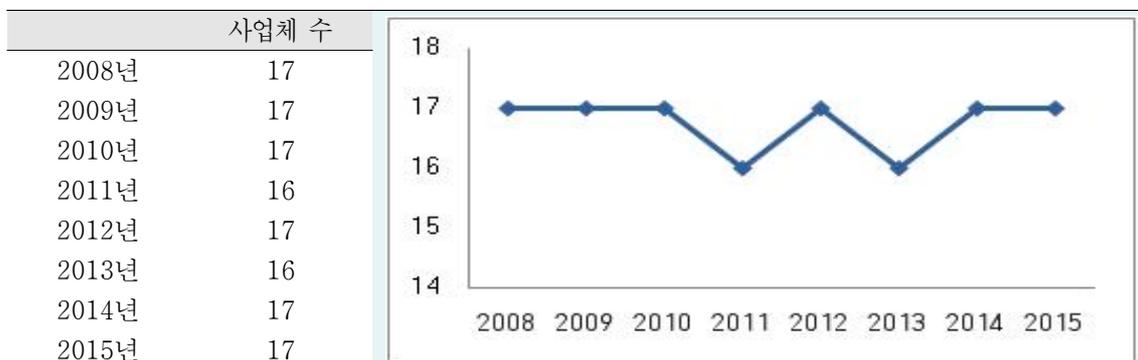
구분	업체 수	업체 명
서울시	3	위커희 카지노(파라다이스)
		세븐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그랜드코리아레저)
		세븐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시	2	세븐릭카지노 부산롯데점(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카지노지점(파라다이스)
인천시	1	인천카지노(파라다이스세가사미)
강원도	1/1	알펜시아카지노(지바스)-외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강원랜드)-내국인 전용 카지노
대구시	1	인터볼고대구카지노(골든 크라운)
제주도	8	더케이제주호텔카지노(엔에스디영상)
		제주카지노지점(파라다이스)
		마제스타카지노(마제스타)
		로얄팔레스카지노(건하)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롯데(두성)
		제주션카지노(지앤엘)
		랜딩카지노(그랜드익스프레스코리아)
		골든비치카지노(골든비치)
계	16/1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소, 내국인전용카지노 1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카지노업 분야 사업체 수는 16개와 17개 사이로 거의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임.

<표 I-19> 카지노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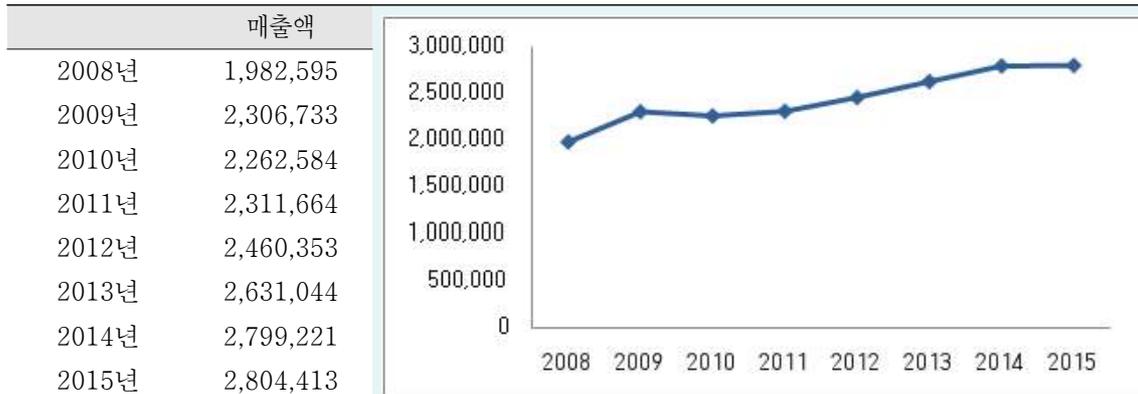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매출액

- 카지노업의 매출액은 2009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0년 잠시 주춤하는 모습에서 2011년부터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표 I-20> 카지노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바. 유원시설업

-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됨.

□ 사업체 수

- 유원시설업은 2015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894개 업체가 운영 중임.

<표 I-21> 전국 시·도별 유원시설업체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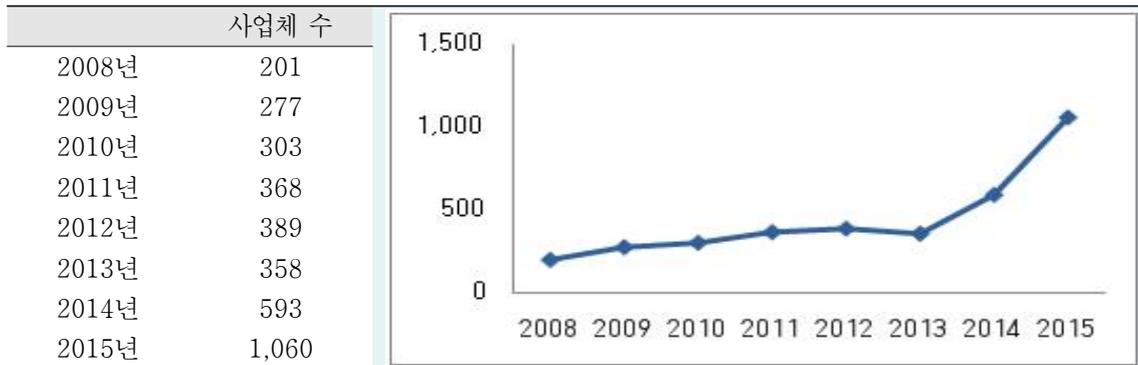
시·도	업체 수	시·도	업체 수
서울시	62	강원도	48
부산시	46	충청북도	26
대구시	21	충청남도	60
인천시	33	전라북도	27
광주시	12	전라남도	71
대전시	21	경상북도	65
울산시	34	경상남도	70
세종시	10	제주도	28
경기도	260		
계		89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유원시설업 분야 사업체 수는 2012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3년 잠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78.8%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

<표 I-22> 유원시설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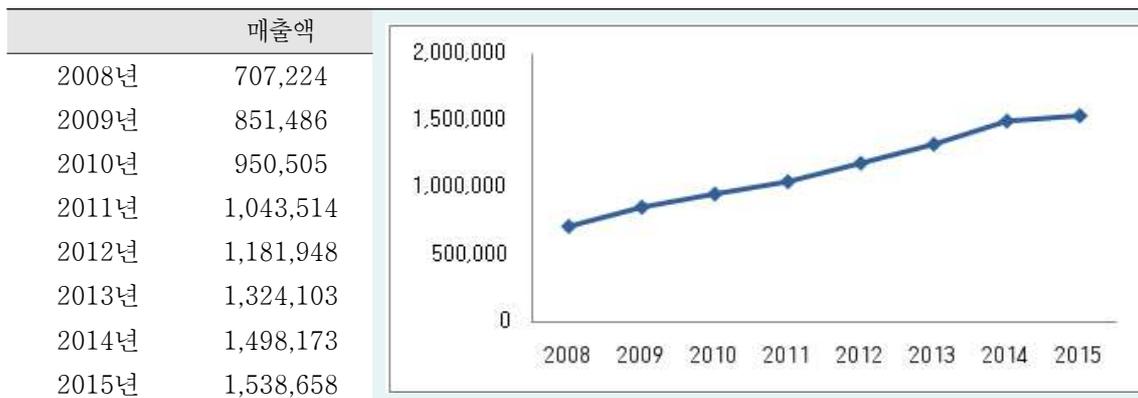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매출액

- 유원시설업의 매출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상승세를 나타냄.

<표 I-23> 카지노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사.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제외한 사업이나 시설 가운데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업을 말함.

-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케도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³⁾ 등 11가지가 있음.

□ 사업체 수

- 2015년 말 기준으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4,722개소로 관광유희음식점업 14개 업체, 관광극장유희업 145개 업체,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434개, 관광식당업 1,398개 업체, 시내순환관광업 48개 업체, 관광사진업 16개 업체,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개, 관광펜션업 386개, 관광케도업 6개, 한옥체험업 1,065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209개 업체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표 I-24> 전국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관광유희음식점업	2	-	1	-	-	-	1	-	-	1	-	2	1	-	3	1	2	14
관광극장유희업	27	8	6	4	4	10	3	-	34	5	6	5	3	5	6	16	3	145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7	18	33	4	4	2	35	-	190	4	3	7	16	3	36	62	10	434
관광식당업	467	112	46	8	39	71	47	3	314	28	12	22	62	8	9	42	108	1,398
시내순환관광업	3	2	3	2	-	1	1	-	3	12	-	-	1	7	4	8	1	48
관광사진업	9	1	-	-	-	-	-	-	1	3	-	-	1	-	-	-	1	16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	-	-	-	-	-	-	-	-	-	-	1	-	-	1
관광펜션업	-	2	-	6	-	-	4	-	33	74	9	78	23	38	60	59	-	386
관광케도업	-	-	1	-	-	-	-	-	2	-	-	-	-	2	1	-	-	6
한옥체험업	105	-	15	7	3	-	2	-	20	29	23	29	200	298	277	57	-	1,06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732	101	22	51	26	4	2	1	77	17	4	2	107	17	24	22	-	1,209
계	1,352	244	127	82	76	88	95	4	674	173	57	145	414	378	421	267	125	4,72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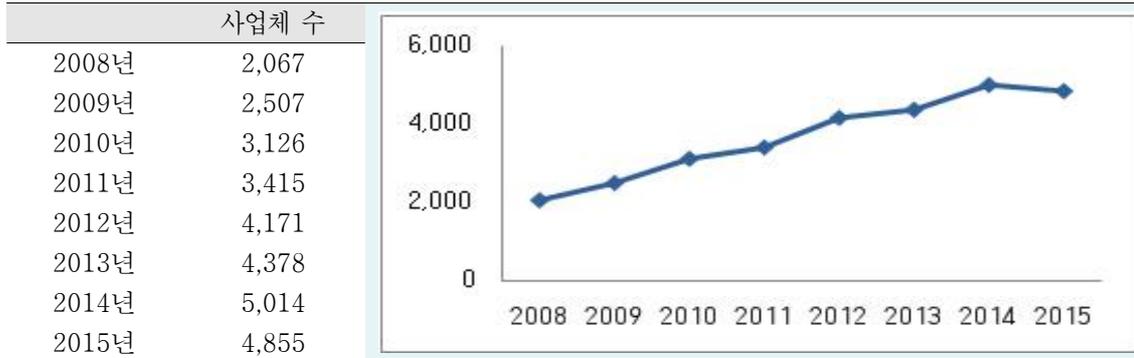
-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사업체 수는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기존 관광편의시설업에서 2016년 3월 23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되었음.

2015년 전년대비 3.2%의 감소세를 나타냄.

<표 I-25> 관광편의시설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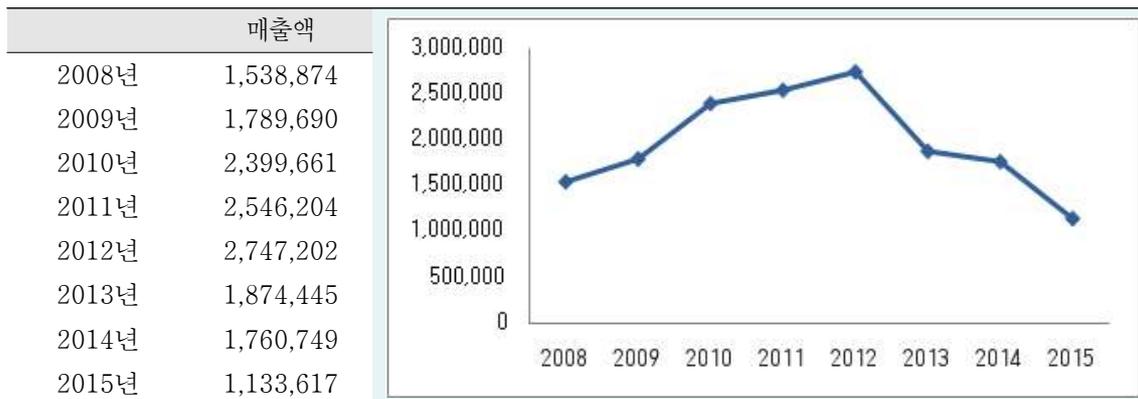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매출액

- 관광편의시설업의 매출액은 2012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2013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5.6%의 감소율을 나타냄.

<표 I-26> 관광편의시설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실태분석

1.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실태분석 개요⁴⁾

□ 조사개요

- 본 조사는 관광·레저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됨.
- 본 조사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
- 본 조사의 시점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조사 시기는 2016년 6월 16일부터 2016년 9월 23일까지 실시함.
-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함.
-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857개의 목표 표본 중 3,72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성공되어 76.6%의 응답률을 보임.

□ 표본설계

-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로 분류된 총 7개 업종에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사업체임.
- 본 조사는 통계 작성 시점과 실제 조사 기간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4) 본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2016)의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통계청의 MDIS 데이터는 관광레저산업을 대표하기에는 데이터의 분류가 광범위하여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며, 2014년 자료로 현황을 분석하기에는 최신의 자료로 보기 어려운 관계로 본 데이터를 활용함.

목표 모집단과 실제 모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조사 전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최초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본 조사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체를 제외한 최종 모집단을 구성함.

- 관광사업체 구성을 살펴보면 업종별 사업체 수의 차이가 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사업체 수가 적은 업종은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사업체 수가 많은 업종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이들 업종 중 여행업 전체,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일반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은 표본조사를 실시함.
- 비교적 사업체 수가 많지만 중요한 업종인 관광숙박업 전체와 그 외 업종은 비교적 모집단 수가 작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함.

<표 II-1> 목표 모집단 현황

업종 대분류	업종 중분류	업종 소분류	목표 모집단	구성비
여행업	일반여행업		3,330	13.9
	국외여행업		4,067	17.0
	국내여행업		2,876	12.0
	국내·외여행업		4,334	18.2
	소계		14,607	61.2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915	3.8
		한국전통호텔업	7	0.0
		가족호텔업	122	0.5
		호스텔업	2323	1.0
		소형호텔업	12	0.1
	휴양콘도미니엄업		215	0.9
소계		1,503	6.3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47	0.2
	종합휴양업		27	0.1
	일반야영장업		872	3.7
	자동차야영장업		228	1.0
	관광유람선업		35	0.1
	관광공연장업		4	0.0
	소계		1,213	5.1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11	0.0

	국제회의기획업		608	2.5
	소계		619	2.6
카지노업			17	0.1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39	0.2
	일반유원시설업		325	1.4
	기타유원시설업		696	2.9
	소계		1,060	4.4
관광편의시설업			4,855	20.3
합계			23,874	100.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용자 가이드, 참조 후 제작됨.

□ 조사내용

- 본 조사는 공통항목 조사와 업종별 특수항목 조사의 2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공통항목으로는 일반현황, 사업체현황, 고용현황, 재무현황, 전자상거래현황, 자격증보유현황 등이 조사됨.

<표 II-2> 관광사업체 공통항목

구분		조사항목
일반현황	업종분류	업종별 세부분류
	업종등록현황	업종등록 현황, 관광협회 가입현황
	사업체개요	사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외법인, 비법인단체
	회계년도	회계연도 결산월
사업체현황	사업체구분	단독사업체, 지역본사점, 지역본부, 지역중앙회
	영업현황	일일평균 영업시간, 연간 영업개월수, 월평균 휴무일수
	건물연면적	소유 형태별 건물 연면적
	편의시설연면적	소유 형태별 편의시설 연면적
고용현황	종사자수	고용형태별/연령별/학력별 종사자수, 연간 신규채용자수
	이직자수	연간 이직자수
재무현황	연간투자비	사업체 연간 시설 투자비
	자본금	자본금
	매출액	연간 총매출액
전자상거래현황	전자상거래 활용	전자상거래 활용형태
	전자상거래 실적	총매출액 대비 비중, 총구매액 대비 비중
자격증보유현황	종사원자격증 보유현황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기타자격증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용자 가이드, 참조 후 제작됨.

□ 분석방법

- 여러 조사항목 중 관광사업체 업종별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 관광사업체 업종별 인력현황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현황인 종사자수에 대해 여러 기준에 따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음.
- 관광사업체 업종별로 고용현황인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음.

2. 업종별 실태분석

가. 여행업

(1) 응답 표본 특성

○ 여행업 실태조사를 위해 최종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총 14,607개 업체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일반여행업 3,330개 업체, 국외여행업 4,067개 업체, 국내여행업 2,876개 업체, 국내·외 여행업 4,3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2) 분석결과

□ 여행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 여행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행업 종사자 규모가 1명-5명 미만의 경우 국외여행업이 전체의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명-10명 미만의 경우 일반여행업이 전체의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명-20명 미만의 경우 일반여행업이 전체의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명-50명 미만의 경우 국내·외 여행업이 전체의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명 이상의 경우 국내여행업이 전체의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 여행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1명-5명 미만	10,415 (100.0)	1,548 (14.9)	3,579 (34.4)	2,123 (20.4)	3,165 (30.4)
5명-10명 미만	2,209 (100.0)	1,118 (50.6)	270 (12.2)	337 (15.3)	485 (22.0)
10명-20명 미만	1,210 (100.0)	454 (37.5)	159 (13.1)	173 (14.3)	423 (35.0)
20명-50명 미만	647 (100.0)	167 (25.8)	59 (9.1)	191 (29.5)	230 (35.5)
50명 이상	126 (100.0)	42 (33.3)	0	53 (42.1)	31 (24.6)
전체	14,607 (100.0)	3,330 (22.8)	4,067 (27.8)	2,876 (19.7)	4,334 (29.7)

□ 여행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여행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여행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83.4%로 높게 나타났음.
- 국내여행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79.8%로 높게 나타났고, 국내·외 여행업의 경우 역시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86.6%로 높게 나타남.

<표 II-4> 여행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자영업자	3,585 (4.2)	460 (1.6)	1,161 (8.9)	993 (5.4)	972 (3.9)
무급가족종사자	564 (0.7)	96 (0.3)	192 (1.5)	126 (0.7)	150 (0.6)
상용근로자	71,715 (84.8)	24,733 (87.2)	10,858 (83.4)	14,651 (79.8)	21,473 (86.6)
입시 및 일용근로자	5,434 (6.4)	1,335 (4.7)	688 (5.3)	1,497 (8.1)	1,913 (7.7)
기타종사자	3,260 (3.9)	1,755 (6.2)	127 (1.0)	1,103 (6.0)	275 (1.1)
전체	84,558 (100.0)	28,379 (100.0)	13,025 (100.0)	18,371 (100.0)	24,782 (100.0)

□ 여행업 성별 종사자 수

○ 여행업 성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일반여행업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0%로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54.1%로 높게 나타났음.
- 국내여행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74.0%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외 여행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68.3%로 높게 나타남.

<표 II-5> 여행업 성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남성	50,720 (60.0)	14,191 (50.0)	5,979 (45.9)	13,610 (74.1)	16,936 (68.3)
여성	33,838 (40.0)	14,184 (50.0)	7,046 (54.1)	4,761 (25.9)	7,847 (31.7)
전체	84,558 (100.0)	28,379 (100.0)	13,025 (100.0)	18,371 (100.0)	24,782 (100.0)

□ 여행업 연령별 종사자 수

○ 여행업 연령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일반여행업의 경우 30세-40세 미만이 전체의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의 경우 40세-50세 미만이 전체의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국내여행업의 경우 40세-50세 미만이 전체의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외 여행업의 경우 50세-60세 미만이 전체의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6> 여행업 연령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30세 미만	12,887 (16.0)	7,200 (25.9)	2,406 (20.6)	1,412 (8.2)	1,870 (7.9)
30세-40세 미만	20,438 (25.4)	9,453 (34.0)	3,254 (27.9)	3,234 (18.7)	4,496 (19.0)
40세-50세 미만	23,143 (28.8)	6,821 (24.5)	3,745 (32.1)	5,833 (33.8)	6,743 (28.5)
50세-60세 미만	17,437 (21.7)	3,240 (11.6)	1,694 (14.5)	4,667 (27.1)	7,835 (33.1)
60세-65세 미만	5,078 (6.3)	675 (2.4)	493 (4.2)	1,864 (10.8)	2,045 (8.6)
65세 이상	1,426 (1.8)	434 (1.6)	80 (0.7)	241 (1.4)	671 (2.8)
전체	80,408 (100.0)	27,823 (100.0)	11,673 (100.0)	17,252 (100.0)	23,661 (100.0)

□ 여행업 학력별 종사자 수

○ 여행업 학력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II-7> 여행업 학력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고졸 이하	26,323 (32.7)	3,242 (11.7)	835 (7.2)	10,100 (58.5)	12,146 (51.3)
전문대 재/졸	15,701 (19.5)	6,237 (22.4)	2,765 (23.7)	2,902 (16.8)	3,797 (16.0)
대학교 재/졸	37,601 (46.8)	18,135 (65.2)	7,868 (67.4)	4,073 (23.6)	7,524 (31.8)
대학원 재/졸	783 (1.0)	209 (0.8)	204 (1.7)	177 (1.0)	193 (0.8)
전체	80,408 (100.0)	27,823 (100.0)	11,673 (100.0)	17,252 (100.0)	23,661 (100.0)

- 일반여행업의 경우 대학교 재/졸이 전체의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의 경우 대학교 재/졸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국내여행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외 여행업의 경우 역시 고졸 이하가 전체의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행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종류별)

○ 여행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일반여행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보유한 종사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의 경우 기타 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국내여행업의 경우 기타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외 여행업의 경우 역시 기타 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50.5%로 높게 나타남.

<표 II-8> 여행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2,370 (29.4)	1,532 (44.1)	241 (32.5)	163 (14.5)	434 (15.9)
국내여행안내사	2,815 (34.9)	1,479 (42.6)	159 (21.5)	357 (31.7)	821 (30.2)
호텔경영사	51 (0.6)	15 (0.4)	26 (3.5)	1 (0.1)	10 (0.4)
호텔관리사	47 (0.6)	0	24 (3.2)	23 (2.0)	0
호텔서비스사	163 (2.0)	68 (2.0)	24 (3.2)	15 (1.3)	56 (2.1)
기타	2,615 (32.4)	377 (10.9)	267 (36.0)	569 (50.5)	1,401 (51.5)
전 체	8,061 (100.0)	3,470 (100.0)	741 (100.0)	1,127 (100.0)	2,722 (100.0)

□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의 언어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일반여행업의 경우 중국어가 전체의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국내 여행업의 경우 중국어가 전체의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외 여행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9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9> 여행업 언어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영어	1,136 (25.5)	229 (7.9)	142 (23.7)	82 (41.0)	682 (90.3)
일어	938 (21.1)	634 (21.9)	232 (38.8)	14 (7.0)	58 (7.7)
중국어	2,202 (49.5)	1,910 (65.9)	173 (28.9)	104 (52.0)	15 (2.0)
불어	25 (0.6)	24 (0.8)	1 (0.2)	0	0
독어	50 (1.1)	0	50 (8.4)	0	0
스페인어	0	0	0	0	0
러시아어	98 (2.2)	98 (3.4)	0	0	0
기타	2 (0.0)	2 (0.1)	0	0	0
전 체	4,450 (100.0)	2,897 (100.0)	598 (100.0)	200 (100.0)	755 (100.0)

□ 여행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

○ 여행업의 업종별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여행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5,060명으로 남성 2,100명(41.5%), 여성 2,960명(58.5%)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3,735명으로 남성 1,536명(41.1%), 여성 2,199명(58.9%)으로 나타남
- 국외여행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472명으로 남성 521명(35.4%), 여성 951명(64.6%)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877명으로 남성 239명(27.3%), 여성 638명(72.7%)으로 나타남
- 국내여행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962명으로 남성 1,412명(72.0%), 여성 550명(28.0%)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1,320명으로 828명(62.7%), 여성 492명(37.3%)으로 나타남
- 국내·외 여행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948명으로 남성 1,194명(61.3%), 여성 754명(38.7%)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1,840명으로 남성 1,111명(60.4%), 여성 729명(39.6%)으로 나타남

<표 II-10> 여행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개소,%)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신규 채용자 수			이직자 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일반여행업	5,060(100.0)	2,100(41.5)	2,960(58.5)	3,735(100.0)	1,536(41.1)	2,199(58.9)
국외여행업	1,472(100.0)	521(35.4)	951(64.6)	877(100.0)	239(27.3)	638(72.7)
국내여행업	1,962(100.0)	1,412(72.0)	550(28.0)	1,320(100.0)	828(62.7)	492(37.3)
국내·외 여행업	1,948(100.0)	1,194(61.3)	754(38.7)	1,840(100.0)	1,111(60.4)	729(39.6)
전 체	10,442(100.0)	5,227(50.1)	5,215(49.9)	7,772(100.0)	3,715(47.8)	4,057(52.2)

나. 관광숙박업

(1) 응답 표본 특성

○ 관광숙박업 실태조사를 위해 최종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는 총 1,503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관광호텔업 915개 업체, 한국전통호텔업 7개 업체, 가족호텔업 122개 업체, 호텔업 232개 업체, 소형호텔업 12개 업체, 휴양콘도미니엄업 215개 업체로 총 1,50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2) 분석결과

□ 관광숙박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 관광숙박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관광숙박업 종사자 규모가 1명-10명 미만의 경우 기타호텔업이 전체의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명-30명 미만의 경우 관광호텔업이 전체의 7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명-50명 미만의 경우 관광호텔업이 전체의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50명-100명 미만의 경우 관광호텔업이 전체의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명 이상의 경우 관광호텔업이 전체의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1> 관광숙박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1명-10명 미만	532 (100.0)	221 (41.5)	287 (53.9)	24 (4.5)
10명-30명 미만	552 (100.0)	437 (79.2)	66 (12.0)	49 (8.9)
30명-50명 미만	165 (100.0)	98 (59.4)	12 (7.3)	55 (33.3)
50명-100명 미만	136 (100.0)	82 (60.3)	8 (5.9)	46 (33.8)
100명 이상	118 (100.0)	77 (65.3)	1 (0.8)	41 (34.7)
전 체	1,503 (100.0)	915 (60.9)	373 (24.8)	215 (14.3)

□ 관광숙박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관광숙박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관광호텔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71.6%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67.1%로 높게 나타남.

<표 II-12> 관광숙박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자영업자	720 (1.0)	431 (0.9)	278 (8.0)	11 (0.1)
무급가족종사자	193 (0.3)	77 (0.2)	115 (3.3)	1 (0.0)
상용근로자	55,693 (79.2)	41,650 (83.9)	2,480 (71.6)	11,562 (67.1)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827 (18.2)	6,763 (13.6)	575 (16.6)	5,489 (31.9)
기타종사자	873 (1.2)	695 (1.4)	16 (0.5)	161 (0.9)
전 체	70,305 (100.0)	49,617 (100.0)	3,464 (100.0)	17,224 (100.0)

□ 관광숙박업 성별 종사자 수

○ 관광숙박업 성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7.0%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0.2%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역시 남성이 전체의 62.0%로 높게 나타남.

<표 II-13> 관광숙박업 성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남 성	40,706 (57.9)	28,290 (57.0)	1,738 (50.2)	10,678 (62.0)
여 성	29,600 (42.1)	21,327 (43.0)	1,727 (49.9)	6,546 (38.0)
전 체	70,305 (100.0)	49,617 (100.0)	3,464 (100.0)	17,224 (100.0)

□ 관광숙박업 연령별 종사자 수

○ 관광숙박업 연령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30세 미만이 전체의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의 경우 30세-40세 미만이 전체의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30세 미만이 전체의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4> 관광숙박업 연령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30세 미만	22,606 (32.6)	15,897 (32.4)	684 (22.3)	6,025 (35.0)
30세-40세 미만	18,895 (27.2)	13,598 (27.7)	872 (28.4)	4,425 (25.7)
40세-50세 미만	14,287 (20.6)	10,631 (21.6)	679 (22.1)	2,976 (17.3)
50세-60세 미만	10,746 (15.5)	7,092 (14.4)	597 (19.4)	3,057 (17.8)
60세-65세 미만	2,278 (3.3)	1,463 (3.0)	218 (7.1)	598 (3.5)
65세 이상	580 (0.8)	428 (0.9)	21 (0.7)	131 (0.8)
전 체	69,392 (100.0)	49,109 (100.0)	3,072 (100.0)	17,212 (100.0)

□ 관광숙박업 학력별 종사자 수

○ 관광숙박업 학력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전문대 재/졸이 전체의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의 경우 대학교 재/졸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대학교

재/졸이 전체의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5> 관광숙박업 학력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고졸 이하	19,193 (27.7)	12,444 (25.3)	1,001 (32.6)	5,748 (33.4)
전문대 재/졸	24,137 (34.8)	17,993 (36.6)	826 (26.9)	5,318 (30.9)
대학교 재/졸	24,563 (35.4)	17,428 (34.4)	1,186 (38.6)	5,949 (34.6)
대학원 재/졸	1,499 (2.2)	1,243 (2.5)	59 (1.9)	197 (1.1)
전 체	69,392 (100.0)	49,109 (100.0)	3,072 (100.0)	17,212 (100.0)

□ 관광숙박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종류별)

○ 관광숙박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기타 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기타 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86.9%로 높게 나타남.

<표 II-16> 관광숙박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통역안내사	1,156 (17.6)	988 (20.4)	91 (74.6)	77 (4.8)
국내여행안내사	334 (5.1)	271 (5.6)	9 (7.4)	54 (3.4)
호텔경영사	130 (2.0)	100 (2.1)	7 (5.7)	23 (1.4)
호텔관리사	267 (4.1)	234 (4.8)	3 (2.5)	30 (1.9)
호텔서비스사	708 (10.8)	676 (14.0)	7 (5.7)	25 (1.6)
기타	3,965 (60.5)	2,568 (53.1)	6 (4.9)	1,391 (86.9)
전 체	6,559 (100.0)	4,837 (100.0)	122 (100.0)	1,600 (100.0)

□ 관광숙박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 관광숙박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의 언어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7> 관광숙박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영어	612(52.9)	521(52.7)	56(61.5)	36(46.8)
일어	259(22.4)	225(22.8)	14(15.4)	20(26.0)
중국어	249(21.5)	213(21.6)	16(17.6)	19(24.7)
불어	6(0.5)	6(0.6)	0	0
독어	2(0.2)	2(0.2)	0	0
스페인어	1(0.1)	1(0.1)	0	0
러시아어	11(1.0)	11(1.1)	0	0
기타	17(1.5)	10(1.0)	5(5.5)	2(2.6)
전체	1,156(100.0)	988(100.0)	91(100.0)	77(100.0)

□ 관광숙박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

○ 관광숙박업의 업종별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관광호텔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8,655명으로 남성 4,618명(53.4%), 여성 4,036명(46.6%)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8,502명으로 남성 4,415명(51.9%), 여성 4,087명(48.1%)으로 나타남

<표 II-18> 관광숙박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신규 채용자 수			이직자 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관광호텔업	8,655(100.0)	4,618(53.4)	4,036(46.6)	8,502(100.0)	4,415(51.9)	4,087(48.1)
기타호텔업	982(100.0)	517(52.6)	465(47.4)	999(100.0)	519(52.0)	481(48.1)
휴양콘도미니엄업	2,298(100.0)	1,418(61.7)	880(38.3)	2,354(100.0)	1,336(56.8)	1,018(43.2)
전체	11,934(100.0)	6,553(54.9)	5,381(45.1)	11,856(100.0)	6,270(52.9)	5,586(47.1)

- 기타호텔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982명으로 남성 517명(52.6%), 여성 465명(47.4%)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999명으로 남성 519명(52.0%), 여성 481명(48.1%)으로 나타남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2,298명으로 남성 1,418명(61.7%), 여성 880명(38.3%)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2,354명으로 남성 1,336명(56.8%), 여성 1,018명(43.2%)으로 나타남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1) 응답 표본 특성

○ 관광객이용시설업 실태조사를 위해 최종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는 총 1,213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휴양업 47개 업체, 종합휴양업 27개 업체, 일반야영장업 872개 업체, 자동차야영장업 228개 업체, 관광유람선업 35개 업체, 관광공연장업 4개 업체로 총 1,2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2) 분석결과

□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19>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1명-5명 미만	886 (100.0)	11 (1.2)	715 (80.7)	156 (17.6)	5 (0.6)	0
5명-10명 미만	167 (100.0)	3 (1.8)	115 (68.9)	41 (24.6)	8 (4.8)	0
10명-20명 미만	82 (100.0)	11 (13.4)	37 (45.1)	21 (25.6)	13 (15.9)	0
20명-50명 미만	44 (100.0)	25 (56.8)	2 (4.5)	9 (20.5)	8 (18.2)	0
50명 이상	34 (100.0)	25 (73.5)	3 (8.8)	1 (2.9)	1 (2.9)	4 (11.8)
전 체	1,213 (100.0)	74 (6.1)	872 (71.9)	228 (18.8)	35 (2.9)	4 (0.3)

-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규모가 1명-5명 미만의 경우 일반야영장업이 전체의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명-10명 미만의 경우 일반야영장업이 전체의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명-20명 미만의 경우 일반야영장업이 전체의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명-50명 미만의 경우 전문 및 종합휴양업이 전체의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명 이상의 경우 전문 및 종합휴양업이 전체의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관광객이용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79.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36.8%로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47.9%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83.3%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89.6%로 높게 나타남.

<표 II-20> 관광객이용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자영업자	779 (7.0)	15 (0.3)	633 (18.1)	119 (9.7)	12 (2.1)	0
무급가족종사자	637 (5.8)	5 (0.1)	532 (15.2)	100 (8.1)	0	0
상용근로자	6,701 (60.6)	4,374 (79.6)	1,024 (29.2)	589 (47.9)	473 (83.3)	240 (89.6)
임시 및 일용근로자	2,880 (26.0)	1,091 (19.9)	1,290 (36.8)	388 (31.5)	83 (14.6)	28 (10.4)
기타종사자	70 (0.6)	9 (0.2)	25 (0.7)	36 (2.9)	0	0
전체	11,066 (100.0)	5,494 (100.0)	3,504 (100.0)	1,232 (100.0)	568 (100.0)	268 (100.0)

□ 관광객이용시설업 성별 종사자 수

○ 관광객이용시설업 성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6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남성이 64.1%로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63.8%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72.4%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남성이 64.2%로 높게 나타남.

<표 II-21> 관광객이용시설업 성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남 성	6,939 (62.7)	3,322 (60.5)	2,247 (64.1)	786 (63.8)	411 (72.4)	172 (64.2)
여 성	4,127 (37.3)	2,172 (39.5)	1,256 (35.8)	445 (36.1)	157 (27.6)	96 (35.8)
전 체	11,066 (100.0)	5,494 (100.0)	3,504 (100.0)	1,232 (100.0)	568 (100.0)	268 (100.0)

□ 관광객이용시설업 연령별 종사자 수

○ 관광객이용시설업 연령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30세 미만이 전체의 3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50세-60세 미만이 26.3%로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50세-60세 미만이 전체의 31.3%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의 경우 60세-65세 미만이 전체의 19.1%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30세-40세 미만 31.3%로 높게 나타남.

<표 II-22> 관광객이용시설업 연령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30세 미만	2,836 (29.4)	2,018 (36.9)	586 (25.0)	107 (10.6)	101 (18.2)	24 (9.0)
30세-40세 미만	2,161 (22.4)	1,474 (26.9)	293 (12.5)	209 (20.7)	101 (18.2)	84 (31.3)
40세-50세 미만	2,086 (21.6)	1,138 (20.8)	545 (23.3)	202 (19.9)	89 (16.0)	112 (41.8)
50세-60세 미만	1,718 (17.8)	657 (12.0)	615 (26.3)	318 (31.3)	96 (17.3)	32 (11.9)
60세-65세 미만	638 (6.6)	145 (2.6)	251 (10.7)	132 (13.0)	106 (19.1)	4 (1.5)
65세 이상	212 (2.2)	43 (0.8)	48 (2.1)	46 (4.5)	63 (11.3)	12 (4.5)
전 체	9,650 (100.0)	5,474 (100.0)	2,339 (100.0)	1,013 (100.0)	556 (100.0)	268 (100.0)

□ 관광객이용시설업 학력별 종사자 수

○ 관광객이용시설업 학력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대학교 재/졸이 전체의 3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야

영장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58.0%로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53.1%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의 경우 고졸이하가 전체의 48.8%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전문대 재/졸이 46.3%로 높게 나타남.

<표 II-23> 관광객이용시설업 학력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고졸 이하	4,003 (41.5)	1,765 (32.2)	1,358 (58.0)	538 (53.1)	271 (48.8)	72 (26.9)
전문대 재/졸	2,450 (25.4)	1,585 (29.0)	456 (19.5)	165 (16.3)	119 (21.5)	124 (46.3)
대학교 재/졸	2,920 (30.3)	1,890 (34.5)	506 (23.6)	296 (29.2)	165 (29.6)	64 (23.9)
대학원 재/졸	277 (2.9)	234 (4.3)	19 (0.8)	15 (1.4)	1 (0.2)	8 (3.0)
전 체	9,650 (100.0)	5,474 (100.0)	2,339 (100.0)	1,013 (100.0)	556 (100.0)	268 (100.0)

□ 관광객이용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종류별)

○ 관광객이용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국내여행안내사가 전체의 80.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야영장업의 경우 기타 자격증 보유가 67.9%로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81.8%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의 경우 기타 자격증 보유가 전체의 78.5%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호텔관리사가 전체의 100.0%로 높게 나타남.

<표 II-24> 관광객이용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관광통역안내사	31(15.1)	11(16.7)	9(32.1)	9(81.8)	3(3.2)	0
국내여행안내사	71(34.6)	53(80.3)	0	0	18(19.4)	0
호텔경영사	0	0	0	0	0	0
호텔관리사	8(3.9)	0	0	0	0	8(100.0)
호텔서비스사	0	0	0	0	0	0
기타	96(46.8)	2(3.0)	19(67.9)	2(18.2)	73(78.5)	0
전 체	205(100.0)	66(100.0)	28(100.0)	11(100.0)	93(100.0)	8(100.0)

□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의 언어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중국어가 전체의 6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영어가 88.9%로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55.6%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100.0%로 높게 나타남.

<표 II-25>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영어	20(43.5)	5(19.2)	8(88.9)	5(55.6)	3(100.0)	-
일어	6(13.0)	3(11.5)	1(11.1)	2(22.2)	0	-
중국어	20(43.5)	18(69.2)	0	2(22.2)	0	-
불어	0	0	0	0	0	-
독어	0	0	0	0	0	-
스페인어	0	0	0	0	0	-
러시아어	0	0	0	0	0	-
기타	0	0	0	0	0	-
전체	46(100.0)	26(100.0)	9(100.0)	9(100.0)	3(100.0)	-

□ 관광객이용시설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업종별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244명으로 남성 660명(53.1%), 여성 583명(46.9%)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1,064명으로 남성 589명(55.4%), 여성 475명(44.6%)으로 나타남
-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87명으로 남성 118명(63.3%), 여성 68명(36.7%)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116명으로 남성 72명(62.1%), 여성 44명(37.9%)으로 나타남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20명으로 남성 73명(61.2%), 여성 46명(38.7%)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73명으로 남성 40명(54.8%), 여성

33명(45.2%)으로 나타남

- 관광유람선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04명으로 남성 77명(74.5%), 여성 27명(25.5%)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39명으로 남성 34명(87.2%), 여성 6명(15.4%)으로 나타남
-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6명으로 남성 8명(50.0%), 여성 8명(50.0%)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12명으로 남성 8명(66.7%), 여성 4명(33.3%)으로 나타남

<표 II-26> 관광객이용시설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개소%)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신규 채용자 수			이직자 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문 및 종합휴양업	1,244(100.0)	660(53.1)	583(46.9)	1,064(100.0)	589(55.4)	475(44.6)
일반야영장업	187(100.0)	118(63.3)	68(36.7)	116(100.0)	72(62.1)	44(37.9)
자동차야영장업	120(100.0)	73(61.2)	46(38.7)	73(100.0)	40(54.8)	33(45.2)
관광유람선업	104(100.0)	77(74.5)	27(25.5)	39(100.0)	34(87.2)	6(15.4)
관광공연장업	16(100.0)	8(50.0)	8(50.0)	12(100.0)	8(66.7)	4(33.3)
전 체	1,669(100.0)	937(56.1)	733(43.9)	1,304(100.0)	743(57.0)	561(43.0)

라. 국제회의업

(1) 응답 표본 특성

○ 국제회의업 실태조사를 위해 최종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는 총 619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국제회의시설업 11개 업체, 국제회의기획업 608개 업체로 총 6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2) 분석결과

□ 국제회의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 국제회의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제회의업 종사자 규모가 1명-5명 미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이 전체의 100.0%로 높게 나타났고, 5명-10명 미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이 전체의 100.0%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명-20명 미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이 전체의 98.3%로 높게 나타남.

- 20명-50명 미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이 전체의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명 이상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이 전체의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7> 국제회의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1명-5명 미만	110(100.0)	0	110(100.0)
5명-10명 미만	163(100.0)	0	163(100.0)
10명-20명 미만	178(100.0)	3(1.7)	175(98.3)
20명-50명 미만	115(100.0)	5(4.3)	110(95.7)
50명 이상	53(100.0)	3(5.7)	50(94.3)
전 체	619(100.0)	11(1.8)	608(98.2)

□ 국제회의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국제회의업 고용 형태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63.9%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87.9%로 높게 나타남.

<표 II-28> 국제회의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자영업자	29(0.2)	0	29(0.2)
무급가족종사자	3(0.0)	0	3(0.0)
상용근로자	13,180(87.1)	312(63.9)	12,868(87.9)
임시 및 일용근로자	1,907(12.6)	176(36.1)	1,731(11.8)
기타종사자	12(0.1)	0	12(0.1)
전 체	15,131(100.0)	488(100.0)	14,643(100.0)

□ 국제회의업 성별 종사자 수

○ 국제회의업 성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6.4%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3.5%로 높게 나타남.

<표 II-29> 국제회의업 성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남 성	8,101(53.5)	275(56.4)	7,827(53.5)
여 성	7,030(46.5)	214(43.9)	6,817(46.6)
전 체	15,131(100.0)	488(100.0)	14,643(100.0)

□ 국제회의업 연령별 종사자 수

○ 국제회의업 연령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30세 미만이 전체의 39.1%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30세-40세 미만이 전체의 37.8%로 높게 나타남.

<표 II-30> 국제회의업 연령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30세 미만	4,618(30.6)	191(39.1)	4,427(30.3)
30세-40세 미만	5,698(37.7)	168(34.4)	5,530(37.8)
40세-50세 미만	3,373(22.3)	96(19.7)	3,277(22.4)
50세-60세 미만	1,266(8.4)	28(5.7)	1,238(8.5)
60세-65세 미만	108(0.7)	6(1.2)	102(0.7)
65세 이상	37(0.2)	0	37(0.3)
전 체	15,099(100.0)	488(100.0)	14,611(100.0)

□ 국제회의업 학력별 종사자 수

○ 국제회의업의 학력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II-31> 국제회의업 학력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고졸 이하	690(4.6)	30(6.1)	661(4.5)
전문대 재/졸	2,254(14.9)	118(24.2)	2,136(14.6)
대학교 재/졸	11,096(73.5)	294(60.2)	10,802(73.9)
대학원 재/졸	1,059(7.0)	47(9.6)	1,012(6.9)
전 체	15,099(100.0)	488(100.0)	14,611(100.0)

-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대학교 재/졸이 전체의 60.2%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대학교 재/졸이 전체의 73.9%로 높게 나타남.

□ 국제회의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종류별)

○ 국제회의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기타 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85.9%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53.4%로 높게 나타남.

<표 II-32> 국제회의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관광통역안내사	330(46.8)	6(6.1)	324(53.4)
국내여행안내사	50(7.1)	0	50(8.3)
호텔경영사	7(1.0)	4(4.0)	3(0.5)
호텔관리사	4(0.6)	4(4.0)	0
호텔서비스사	0	0	0
기타	314(44.5)	85(85.9)	229(37.8)
전체	705(100.0)	99(100.0)	606(100.0)

□ 국제회의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 국제회의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언어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II-33> 국제회의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영어	125(37.9)	6(100.0)	119(36.7)
일어	95(28.8)	0	95(29.3)
중국어	109(33.0)	0	109(33.6)
불어	0	0	0
독어	0	0	0
스페인어	0	0	0
러시아어	0	0	0
기타	0	0	0
전체	330(100.0)	6(100.0)	324(100.0)

-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100.0%로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36.7%로 높게 나타남.

□ 국제회의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

○ 국제회의업의 업종별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12명으로 남성 68명(60.7%), 여성 44명(39.3%)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69명으로 남성 41명(59.4%), 여성 28명(40.6%)으로 나타남
-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2,268명으로 남성 1,145명(50.0%), 여성 1,123명(49.5%)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1,922명으로 남성 931명(48.4%), 여성 991명(51.6%)으로 나타남

<표 II-34> 국제회의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개소%)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신규 채용자 수			이직자 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국제회의시설업	112(100.0)	68(60.7)	44(39.3)	69(100.0)	41(59.4)	28(40.6)
국제회의기획업	2,268(100.0)	1,145(50.5)	1,123(49.5)	1,922(100.0)	931(48.4)	991(51.6)
전 체	2,380(100.0)	1,213(51.0)	1,167(49.0)	1,990(100.0)	971(48.8)	1,019(51.2)

마. 카지노업

(1) 응답 표본 특성

- 카지노업 실태조사를 위해 최종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는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외국인 전용 16개 업체, 내국인 전용 1개 업체로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2) 분석결과

□ 카지노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 카지노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20명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94.1%로 높게 나타남.

<표 II-35> 카지노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구분	20명 미만	20명 이상	전체
비율	1(5.9)	16(94.1)	17(100.0)

□ 카지노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카지노업 사업체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의 93.6%가 상용근로자로 나타남.

<표 II-36> 카지노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	전체
비율	0	0	8,818 (93.6)	600 (6.4)	0	9,418 (100.0)

□ 카지노업 성별 종사자 수

- 카지노업 사업체 성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남성 종사원이 전체의 53.6%로 높게 나타남.

<표 II-37> 카지노업 성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비율	5,044 (53.6)	4,374 (46.4)	9,418 (100.0)

□ 카지노업 연령별 종사자 수

- 카지노업 사업체 연령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30세-40세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46.3%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세 미만이 26.2%로 높게 나타남.

<표 II-38> 카지노업 연령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30세 미만	30세-40세 미만	40세-50세 미만	50세-60세 미만	60세-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비율	2,470 (26.2)	4,359 (46.3)	2,276 (24.2)	291 (3.1)	17 (0.2)	5 (0.1)	9,418 (100.0)

□ 카지노업 학력별 종사자 수

- 카지노업 사업체 학력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대학교 재/졸이 전체의 43.6%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대 재/졸이 37.1%로 높게 나타남.

<표 II-39> 카지노업 학력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 재/졸	대학교 재/졸	대학원 재/졸	전체
비율	1,640 (17.4)	3,497 (37.1)	4,104 (43.6)	177 (1.9)	9,418 (100.0)

□ 카지노업 사업체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종류별)

- 카지노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59.7%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여행안내사 2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40> 카지노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 서비스사	기타	전체
비율	142 (59.7)	58 (24.4)	2 (0.8)	4 (1.7)	27 (11.3)	5 (2.1)	238 (100.0)

□ 카지노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 카지노업 사업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언어별)수를 살펴보면 중국어가 전체의 49.3%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어 3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41> 카지노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단위: 명,%)

구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 어	러시아 어	기타	전체
비율	25 (17.6)	46 (32.4)	70 (49.3)	1 (0.7)	0	0	0	0	142 (100.0)

□ 카지노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

○ 카지노업의 업종별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카지노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141명으로 남성 638명(55.8%), 여성 506명(44.2%)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1,120명으로 남성 640명(52.9%), 여성 931명(47.1%)으로 나타남.

<표 II-42> 카지노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개소%)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신규 채용자 수			이직자 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 체	1,141(100.0)	638(55.8)	506(44.2)	1,210(100.0)	640(52.9)	571(47.1)

바. 유원시설업

(1) 응답 표본 특성

○ 유원시설업 실태조사를 위해 최종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는 총 1,060개 업체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종합유원시설업 39개 업체, 일반유원시설업 325개 업체, 기타유원시설업 69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2) 분석결과

□ 유원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 유원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43> 유원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1명-5명 미만	735(100.0)	1(0.1)	134(18.2)	600(81.6)
5명-10명 미만	132(100.0)	2(1.5)	64(48.5)	66(50.0)
10명-20명 미만	74(100.0)	8(10.8)	50(67.6)	17(23.0)
20명-50명 미만	72(100.0)	9(12.5)	53(73.6)	11(15.3)
50명 이상	46(100.0)	20(43.5)	21(52.2)	2(4.3)
전 체	1,060(100.0)	39(3.7)	325(30.7)	696(65.7)

- 유원시설업 종사자 규모가 1명-5명 미만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이 전체의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명-10명 미만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이 전체의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명-20명 미만의 경우 일반유원시설업이 전체의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명-50명 미만의 경우 일반유원시설업이 전체의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명 이상의 경우 일반유원시설업이 전체의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원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유원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전체의 60.8%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56.7%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전체의 36.3%로 높게 나타남.

<표 II-44> 유원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자영업자	802(4.7)	3(0.0)	159(2.0)	640(26.8)
무급가족종사자	283(1.6)	2(0.0)	42(0.5)	239(10.0)
상용근로자	7,779(45.2)	2,746(39.2)	4,437(56.7)	595(24.9)
임시 및 일용근로자	8,300(48.2)	4,259(60.8)	3,173(40.6)	868(36.3)
기타종사자	61(0.4)	0	11(0.1)	51(2.1)
전체	17,224(100.0)	7,009(100.0)	7,823(100.0)	2,392(100.0)

□ 유원시설업업 성별 종사자 수

○ 유원시설업의 성별 분포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7.3%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64.0%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61.1%로 높게 나타남.

<표 II-45> 유원시설업 성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남성	9,947(27.8)	4,013(57.3)	5,004(64.0)	930(38.9)
여성	7,277(42.2)	2,997(42.8)	2,819(36.0)	1,462(61.1)
전체	17,224(100.0)	7,009(100.0)	7,823(100.0)	2,392(100.0)

□ 유원시설업 연령별 종사자 수

○ 유원시설업 연령 분포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30세 미만인 종사자가 전체의 69.3%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30세 미만인 종사자가 전체의 47.9%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30세 미만의 종사자가 전체의 63.0%로 높게 나타남.

<표 II-46> 유원시설업 연령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30세 미만	9,485(58.6)	4,852(69.3)	3,652(47.9)	954(63.0)
30세-40세 미만	3,050(18.9)	990(14.1)	1,742(22.9)	318(21.0)
40세-50세 미만	2,318(14.4)	796(11.4)	1,356(17.8)	166(11.0)
50세-60세 미만	1,096(6.8)	351(5.0)	690(9.1)	56(3.7)
60세-65세 미만	171(1.1)	9(0.1)	149(2.0)	13(0.9)
65세 이상	47(0.3)	8(0.1)	32(0.4)	8(0.5)
전체	16,140(100.0)	7,005(100.0)	7,621(100.0)	1,514(100.0)

□ 유원시설업 학력별 종사자 수

○ 유원시설업 학력 분포별 종사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고졸 이하 종사자가 전체의 51.4%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대학교 재/졸이 전체의 37.5%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전문대 재/졸이 전체의 41.6%로 높게 나타남.

<표 II-47> 유원시설업 학력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고졸 이하	5,913(36.6)	3,605(51.4)	1,987(26.1)	324(21.4)
전문대 재/졸	4,852(30.1)	1,562(22.3)	2,660(34.9)	630(41.6)
대학교 재/졸	5,087(31.5)	1,669(23.8)	2,861(37.5)	557(36.8)
대학원 재/졸	288(1.8)	173(2.5)	113(1.5)	3(0.2)
전체	16,140(100.0)	7,005(100.0)	7,621(100.0)	1,514(100.0)

□ 유원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종류별)

○ 유원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종류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기타 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45.8%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기타 자격증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58.1%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

타유원시설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85.6%로 높게 나타남.

<표 II-48> 유원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350(38.3)	74(30.8)	164(30.3)	113(85.6)
국내여행안내사	93(10.2)	51(21.3)	27(5.0)	16(12.1)
호텔경영사	19(2.1)	3(1.3)	16(3.0)	0
호텔관리사	24(2.6)	3(1.3)	21(3.9)	0
호텔서비스사	0	0	0	0
기타	428(46.8)	110(45.8)	315(58.1)	3(2.3)
전체	914(100.0)	240(100.0)	542(100.0)	132(100.0)

□ 유원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 유원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언어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종사자 모두가 영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영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95.7%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영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 종사자가 전체의 67.3%로 높게 나타남.

<표 II-49> 유원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영어	306(87.4)	74(100.0)	157(95.7)	76(67.3)
일어	0	0	0	0
중국어	44(12.6)	0	7(4.3)	37(32.7)
불어	0	0	0	0
독어	0	0	0	0
스페인어	0	0	0	0
러시아어	0	0	0	0
기타	0	0	0	0
전체	350(100.0)	74(100.0)	164(100.0)	113(100.0)

□ 유원시설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

○ 유원시설업의 업종별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675명으로 남성 247명(36.6%), 여성 428명(63.4%)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522명으로 남성 273명(52.3%), 여성 248명(47.5%)으로 나타남
-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976명으로 남성 630명(64.5%), 여성 346명(35.5%)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891명으로 남성 580명(65.1%), 여성 312명(35.0%)으로 나타남
-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614명으로 남성 157명(25.6%), 여성 457명(74.4%)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224명으로 남성 120명(53.6%), 여성 105명(46.9%)으로 나타남

<표 II-50> 유원시설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개소,%)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신규 채용자 수			이직자 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종합유원시설업	675(100.0)	247(36.6)	428(63.4)	522(100.0)	273(52.3)	248(47.5)
일반유원시설업	976(100.0)	630(64.5)	346(35.5)	891(100.0)	580(65.1)	312(35.0)
기타유원시설업	614(100.0)	157(25.6)	457(74.4)	224(100.0)	120(53.6)	105(46.9)
전 체	2,265(100.0)	1,034(45.7)	1,231(54.3)	1,637(100.0)	973(59.4)	665(40.6)

사. 관광편의시설업

(1) 응답 표본 특성

○ 관광편의시설업 실태조사를 위해 최종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는 총 4,855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관광유희음식점업 6개 업체, 관광극장유희업 106개 업체, 외국인 전용 유희음식점업 454개 업체, 관광식당업 1,386개 업체, 시내순환관광업 48개 업체, 관광사진업 12개 업체,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1개 업체, 관광펜션업 391개 업체, 관광레도업 9개 업체, 한옥체험업 1,108개 업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334개 업체로 총 4,85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2) 분석결과

□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명-5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전체의 41.9%로 높게 나타났고, 5명-10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관광식당업이 전체의 55.3%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명-20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관광식당업이 전체의 83.0%로 높게 나타남.
- 20명-50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관광식당업이 전체의 65.8%로 높게 나타났고, 50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 관광극장업이 전체의 47.1%로 높게 나타남.

<표 II-51>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1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관광유희음식점업	6(0.1)	2(0.1)	1(0.1)	0	3(1.4)	0
관광극장업	106(2.2)	1(0.0)	16(1.6)	21(3.8)	60(27.0)	8(47.1)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454(9.4)	173(5.6)	232(23.2)	48(8.7)	1(0.5)	0
관광식당업	1,386(28.5)	224(7.3)	552(55.3)	459(83.0)	146(65.8)	6(35.3)
시내순환관광업	48(1.0)	10(0.3)	14(1.4)	12(2.2)	8(3.6)	3(17.6)
관광사진업	12(0.2)	7(0.2)	4(0.4)	0	1(0.5)	0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0.0)	0	0	1(0.2)	0	0
관광펜션업	391(8.1)	327(10.7)	62(6.2)	1(0.2)	1(0.5)	0
관광캐도업	9(0.2)	1(0.0)	4(0.4)	2(0.4)	1(0.5)	1(5.9)
한옥체험업	1,108(22.8)	1,035(33.8)	64(6.4)	8(1.4)	1(0.5)	0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334(27.5)	1,284(41.9)	50(5.0)	0	0	0
전체	4,855(100.0)	3,065(100.0)	998(100.0)	553(100.0)	222(100.0)	17(100.0)

□ 관광편의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관광편의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유희음식점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93.7%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전체의 43.5%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52.6%로 높게 나타남.
- 관광식당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66.4%로 높게 나타났고,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98.8%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사진업의 경우 상용근로자

가 전체의 67.5%로 높게 나타남.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72.2%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펜션업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체의 31.1%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케도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92.6%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옥체험업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체의 40.7%로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52.6%로 높게 나타남.

<표 II-52> 관광편의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
관광유흥음식점업	127 (100.0)	3 (2.4)	1 (0.8)	119 (93.7)	4 (3.1)	0
관광극장업	2,999 (100.0)	103 (3.4)	4 (0.1)	1,087 (36.2)	1,306 (43.5)	500 (16.7)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2,565 (100.0)	466 (18.2)	157 (6.1)	1,348 (52.6)	514 (20.0)	80 (3.1)
관광식당업	15,159 (100.0)	1,294 (8.5)	400 (2.6)	10,073 (66.4)	3,359 (22.2)	33 (0.2)
시내순환관광업	770 (100.0)	1 (0.1)	0	761 (98.8)	8 (1.0)	0
관광사진업	77 (100.0)	11 (14.3)	0	52 (67.5)	0	15 (19.5)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8 (100.0)	0	0	13 (72.2)	5 (27.8)	0
관광펜션업	1,220 (100.0)	379 (31.1)	334 (27.4)	198 (16.2)	307 (25.2)	3 (0.2)
관광케도업	148 (100.0)	1 (0.7)	0	137 (92.6)	10 (6.8)	0
한옥체험업	2,507 (100.0)	1,020 (40.7)	695 (27.7)	471 (18.8)	302 (12.0)	20 (0.8)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2,312 (100.0)	1,369 (59.2)	348 (15.1)	413 (17.9)	170 (7.4)	12 (0.5)
전체	27,902 (100.0)	4,647 (16.7)	1,938 (6.9)	14,672 (52.6)	5,983 (21.4)	662 (2.4)

□ 관광편의시설업 성별 종사자 수

○ 관광편의시설업 성별 분포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유흥음식점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70.1%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7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72.4%로 높게 나타남.
- 관광식당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3.0%로 높게 나타났고,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남

성이 전체의 83.2%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사진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64.9%로 높게 나타남.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0%씩 나타났고, 관광펜션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56.3%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케도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62.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옥체험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61.1%로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52.9%로 높게 나타남.

<표 II-53> 관광편의시설업 성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관광유흥음식점업	127 (100.0)	38 (29.9)	89 (70.1)
관광극장업	2,999 (100.0)	2,306 (76.9)	693 (23.1)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2,565 (100.0)	708 (27.6)	1,856 (72.4)
관광식당업	15,159 (100.0)	8,029 (53.0)	7,131 (47.0)
시내순환 관광업	770 (100.0)	641 (83.2)	129 (16.8)
관광사진업	77 (100.0)	50 (64.9)	27 (35.1)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8 (100.0)	9 (50.0)	9 (50.0)
관광펜션업	1,220 (100.0)	533 (43.7)	686 (56.3)
관광케도업	148 (100.0)	92 (62.2)	56 (37.8)
한옥체험업	2,507 (100.0)	976 (38.9)	1,532 (61.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2,312 (100.0)	1,089 (47.1)	1,223 (52.9)
전체	27,902 (100.0)	14,471 (51.8)	13,431 (48.1)

□ 관광편의시설업 연령별 종사자 수

○ 관광편의시설업 연령 분포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유흥음식점업의 경우 30세 미만이 전체의 69.9%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업의 경우 40-50세가 전체의 36.6%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경우 30세 미만이 전체의 56.0%로 높게 나타남.
- 관광식당업의 경우 40-50세가 전체의 32.3%로 높게 나타났고,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50-60세가 전체의 39.3%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사진업의 경우 40-50세가 전체

의 39.4%로 높게 나타남.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경우 40-50세 미만이 전체의 61.1%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펜션업의 경우 50-60세가 전체의 34.1%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케도업의 경우 50-60세가 전체의 28.6%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옥체험업의 경우 50-60세가 전체의 41.6%로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30-40세가 전체의 36.0%로 높게 나타남.

<표 II-54> 관광편의시설업 연령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관광유흥음식점업	123 (100.0)	86 (69.9)	35 (28.5)	0	2 (1.6)	0	0
관광극장업	2,893 (100.0)	630 (21.8)	704 (24.3)	1,058 (36.6)	381 (13.2)	117 (4.0)	2 (0.1)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942 (100.0)	1,087 (56.0)	571 (29.4)	126 (6.5)	114 (5.9)	17 (0.9)	26 (1.3)
관광식당업	13,465 (100.0)	2,953 (21.9)	3,155 (23.4)	4,353 (32.3)	2,138 (15.9)	608 (4.5)	258 (1.9)
시내순환관광업	768 (100.0)	44 (5.7)	122 (15.9)	157 (20.4)	302 (39.3)	100 (13.0)	43 (5.6)
관광사진업	66 (100.0)	9 (13.6)	16 (24.2)	26 (39.4)	10 (15.2)	6 (9.1)	0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8 (100.0)	0	1 (5.6)	11 (61.1)	1 (5.6)	5 (27.8)	0
관광펜션업	507 (100.0)	38 (7.5)	80 (15.8)	125 (24.7)	173 (34.1)	73 (14.4)	18 (3.6)
관광케도업	147 (100.0)	38 (25.9)	24 (16.3)	28 (19.0)	42 (28.6)	14 (9.5)	1 (0.7)
한옥체험업	793 (100.0)	32 (4.0)	98 (12.4)	228 (28.8)	330 (41.6)	63 (7.9)	42 (5.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595 (100.0)	164 (27.6)	214 (36.0)	49 (8.2)	100 (16.8)	28 (4.7)	42 (6.7)
전체	21,317 (100.0)	5,081 (23.8)	5,020 (23.5)	6,160 (28.9)	3,594 (16.9)	1,031 (4.8)	431 (2.0)

□ 관광편의시설업 학력별 종사자 수

○ 관광편의시설업 학력 분포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유흥음식점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51.2%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극장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7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53.6%로 높게 나타남.
- 관광식당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53.1%로 높게 나타났고,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57.3%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사진업의 경우 대학교 재/졸이

전체의 51.5%로 높게 나타남.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경우 고졸이하가 전체의 83.3%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펜션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69.0%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케도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68.7%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옥체험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58.3%로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56.9%로 높게 나타남.

<표 II-55> 관광편의시설업 학력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 재/졸	대학교 재/졸	대학원 재/졸
관광유흥음식점업	123 (100.0)	63 (51.2)	57 (46.3)	3 (2.4)	0
관광극장업	2,893 (100.0)	2,266 (78.3)	501 (17.3)	126 (4.4)	0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942 (100.0)	1,041 (53.6)	561 (28.9)	341 (17.6)	0
관광식당업	13,465 (100.0)	7,145 (53.1)	3,623 (26.9)	2,691 (20.0)	5 (0.1)
시내순환 관광업	768 (100.0)	440 (57.3)	109 (14.2)	218 (28.4)	1 (0.0)
관광사진업	66 (100.0)	19 (28.8)	14 (21.2)	34 (51.5)	0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8 (100.0)	15 (83.3)	3 (16.7)	0	0
관광펜션업	507 (100.0)	350 (69.0)	82 (16.2)	75 (14.8)	0
관광케도업	147 (100.0)	101 (68.7)	20 (13.6)	25 (17.0)	1 (0.7)
한옥체험업	793 (100.0)	462 (58.3)	101 (12.7)	213 (26.9)	16 (2.0)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595 (100.0)	237 (39.8)	99 (16.6)	235 (39.5)	24 (4.0)
전체	21,317 (100.0)	12,138 (56.9)	5,170 (24.3)	3,961 (18.6)	48 (0.2)

□ 관광편의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종류별)

○ 관광편의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종류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극장업의 경우 호텔경영사 전체의 45.8%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식당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76.3%로 높게 나타났고,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국내여행안내사가 전체의 62.8%로 높게 나타남.
- 관광펜션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84.2%로 높게 나타났고, 한옥체험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75.3%로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96.6%로 높게 나타남.

<표 II-56> 관광편의시설업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 서비스사	기타
관광유희음식 점업	-	-	-	-	-	-	-
관광극장업	24 (100.0)	2 (8.3)	0	11 (45.8)	4 (16.7)	7 (29.2)	0
외국인전용유 휴음식점업	-	-	-	-	-	-	-
관광식당업	528 (100.0)	403 (76.3)	0	0	0	0	125 (23.7)
시내순환 관광업	43 (100.0)	15 (34.9)	27 (62.8)	0	0	0	0
관광사진업	-	-	-	-	-	-	-
여행자동차터 미널시설업	-	-	-	-	-	-	-
관광펜션업	19 (100.0)	16 (84.2)	0	0	0	0	3 (15.8)
관광캐도업	-	-	-	-	-	-	-
한옥체험업	85 (100.0)	64 (75.3)	5 (5.9)	0	0	0	16 (18.8)
외국인관광도 시민박업	262 (100.0)	253 (96.6)	0	0	0	0	9 (3.4)
전 체	962 (100.0)	754 (78.4)	32 (3.3)	11 (1.1)	4 (0.4)	7 (0.7)	154 (16.0)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의 언어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관광극장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100.0%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식당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75.7%로 높게 나타났고,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75.7%로 높게 나타남.
- 관광펜션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100.0%로 높게 나타났고, 한옥체험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9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영어가 전체의 58.5%로 높게 나타남.

<표 II-57>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 종사자 수(언어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기타
관광유흥음식점업	-	-	-	-	-	-	-	-	-
관광극장업	2 (100.0)	0	2 (100.0)	0	0	0	0	0	0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	-	-	-	-	-
관광식당업	403 (100.0)	305 (75.7)	1 (0.2)	91 (22.6)	0	0	0	4 (1.0)	2 (0.5)
시내순환관광업	15 (100.0)	13 (86.7)	2 (13.3)	0	0	0	0	0	0
관광사진업	-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	-	-	-	-	-
관광펜션업	16 (100.0)	16 (100.0)	0	0	0	0	0	0	0
관광캐도업	-	-	-	-	-	-	-	-	-
한옥체험업	64 (100.0)	62 (96.9)	0	0	0	2 (3.1)	0	0	0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253 (100.0)	148 (58.5)	52 (20.6)	51 (20.2)	0	0	0	0	2 (0.8)
전체	754 (100.0)	545 (72.3)	57 (7.6)	142 (18.8)	0	2 (0.3)	0	4 (0.5)	4 (0.5)

□ 관광편의시설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

○ 관광편의시설업의 업종별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관광극장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521명으로 남성 362명(69.5%), 여성 158명(30.3%)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309명으로 남성 198명(64.1%), 여성 111명(35.9%)으로 나타남.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717명으로 남성 89명(12.4%), 여성 629명(87.7%)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653명으로 남성 37명(5.7%), 여성 615명(94.2%)으로 나타남.
- 관광식당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3,840명으로 남성 1,948명(50.7%), 여성 1,892명(49.3%)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2,680명으로 남성 1,232명(46.0%), 여성 1,448명(54.0%)으로 나타남.
-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71명으로 남성 144명(84.2%), 여성 28명(16.4%)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115명으로 남성 92명(80.0%), 여

성 22명(19.1%)으로 나타남.

- 관광사진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명으로 여성 1명(100.0%)으로 나타남.
- 관광펜션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1명으로 남성 6명(54.5%), 여성 5명(45.5%)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3명(42.9%), 여성 4명(57.1%)으로 나타남.
- 관광케도업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12명으로 남성 6명(50.0%), 여성 6명(50.0%)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6명으로 남성 4명(66.7%), 여성 2명(33.3%)으로 나타남.
- 한옥체험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247명으로 남성 64명(25.9%), 여성 182명(73.7%)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65명으로 남성 29명(44.6%), 여성 35명(53.8%)으로 나타남.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 수는 총 37명으로 남성 23명(62.2%), 여성 14명(37.8%)으로 나타났고, 연간 이직자 수는 총 25명으로 남성 1명(4.0%), 여성 24명(96.0%)으로 나타남.

<표 II-58> 관광편의시설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개소%)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신규 채용자 수			이직자 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관광유희음식점업	0	0	0	0	0	0
관광극장업	521(100.0)	362(69.5)	158(30.3)	309(100.0)	198(64.1)	111(35.9)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717(100.0)	89(12.4)	629(87.7)	653(100.0)	37(5.7)	615(94.2)
관광식당업	3,840(100.0)	1,948(50.7)	1,892(49.3)	2,680(100.0)	1,232(46.0)	1,448(54.0)
시내순환 관광업	171(100.0)	144(84.2)	28(16.4)	115(100.0)	92(80.0)	22(19.1)
관광사진업	1(100.0)	0	1(100.0)	0	0	0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0	0	0	0	0	0
관광펜션업	11(100.0)	6(54.5)	5(45.5)	7(100.0)	3(42.9)	4(57.1)
관광케도업	12(100.0)	6(50.0)	6(50.0)	6(100.0)	4(66.7)	2(33.3)
한옥체험업	247(100.0)	64(25.9)	182(73.7)	65(100.0)	29(44.6)	35(53.8)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37(100.0)	23(62.2)	14(37.8)	25(100.0)	1(4.0)	24(96.0)
전 체	5,557(100.0)	2,642(47.5)	2,915(52.5)	3,860(100.0)	1,597(41.4)	2,263(58.6)

관광·레저산업 인력양성 및 공급 현황

1. 관광·레저산업 인력정책 현황 및 동향

가. 고용정책 추진 현황

(1) 정부의 고용정책 추진 현황

□ 2016년 1월에 발표한 고용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음.

○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도출

- 재택근무지원제 신설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로 청년층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 재편 및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연계 지원



[그림 III-1] 청년 일자리 전달체계

자료: 교육부(2016).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 보도자료 재인용

-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재편(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 해외취업 프로그램 다양화(국가 및 직종별)
 - 관련기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훈련과정 NCS 적용 및 단계적 확대
- NCS기반 新직업자격에 대한 검증 및 보완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전면 개편과 함께 유망직종 50여개의 NCS 매년 추가개발, 기 개발된 NCS 현장 활용도 제고

<표 III-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구분	세부과제	목표치	관광분야 관련 사항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지원제 신설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일자리 확산 	재택 근무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검토
	청년 일자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 보호 ■ 가이드라인 마련 	관광분야 인턴십 적용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프로그램 통합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재편 ■ 해외 취업 프로그램 고급화 및 다양화 	관광분야 해외 취업 프로그램 확대
	NCS 기반 교육·훈련·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및 전문대 확대 ■ NCS 기반 신 직업자격 	관광관련 특성화고 및 전문대 도입 확대 관광분야 국가기술자격 적용 검토(컨벤션기획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재인용.

(2) 관광·레저산업 고용환경 변화 추세

□ 잡 셰어링(job-sharing: 일자리 나누기) 및 임금피크제 도입

- 관광·레저산업의 고용 환경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비용 부담 증가,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관광·레저 산업 분야 중 여행업 대표 선두주자인 하나투어는 2005년부터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는데⁵⁾ 이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용의 안정이 그 이유임⁶⁾.

5) 임금피크제는 주중 근무 일수를 줄이고 이와 연동하여 임금도 낮추는 형태로 정년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임.

6) 하나투어는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달리 직원들이 만 45세 또는 만 50세 중 하나의 시기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축소 외에 근무일수도 줄여 개인적인 활동이 가능토록 했음(정년 65세 보장 방식 적용).

- 모두투어는 상생협력 및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일자리 제도 등에서 모범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전환,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⁷⁾.

□ 관광·레저산업 분야 해외취업 프로그램 확대

-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해외 취업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 규모가 큰 분야는 항공, 숙박, 외식분야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숙박 분야의 해외취업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4.9배 증가 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⁸⁾.
- 해외 취업이 높은 분야는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면서 숙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고, 반면 전문적인 기획력을 필요로 하는 MICE 분야의 해외 취업은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표 III-2> 관광·레저분야 해외 취업 현황

사업부문	2013년	2014년	2015년
MICE	-	2	4
숙박	16	24	119
여행	4	14	51
외식	46	33	84
항공	80	76	178
합계	146	149	436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재인용.

나. 관광·레저산업 인력 교육정책 추진 현황

(1) 관광·레저산업 교육분야 변화추세

□ 관련 학과 현황

- 관광·레저관련학과는 고등학교⁹⁾의 경우 62개에서 67개로 증가하였고, 전문대

7) 모두투어는 여직원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남직원 육아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처우 개선, 차별 채용 철폐 등에 앞장서고 있음.

8) 여행업 3.6배, 외식업 2.5배, 항공 2.3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학의 경우 73개에서 88개로 증가하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51개에서 68개로 증가하였음.

<표 III-3> 관광관련 학교 학과 현황(2014-2015)

구분	학과	2014	2015	비고
고등학교	관광계열	32	31	-1
	호텔계열	7	7	0
	조리계열	8	12	4
	어문계열	9	9	0
	산업계열	6	8	1
	전 체	62	67	5
전문대	관광계열	73	88	15
	호텔계열	45	43	-2
	조리계열	58	59	1
	어문계열	29	30	1
	산업계열	15	13	-2
	전 체	220	233	13
대학교	관광계열	51	68	17
	호텔계열	15	16	1
	조리계열	16	24	8
	어문계열	12	15	3
	산업계열	14	15	1
	전 체	108	138	3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재인용.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에 따른 변화

- NCS 도입 이후, 관광교육은 학과별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의 유형을 설정하고, NCS 체계에 의한 직무모형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실무교육을 지향하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¹⁰⁾.
- 또한,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산업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분야를 설정하고 NCS 체계에 의한 직무모형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배양하

9) 최근 교육 정책의 방향은 중등 직업교육 규모 조정을 통하여 고졸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있고, 관광분야 특성화고의 경우 62개에서 67개로 증가하였으나 필드에서 숙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직종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음.

10) 전문대학의 경우 학교별 NCS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등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고 궁극적으로 관광 전공자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NCS 도입에 따른 변화

-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 : 교육부의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통해서 NCS 기반 교육과정 학과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 제고 및 NCS 기반 교육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산학간 NCS 공동개발 : 일선 학교와 산업체 또는 협회를 중심으로 NCS 직무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¹¹⁾. 이를 통해서 관광관련학과의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경쟁력 제고 및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표 III-4> NCS 도입에 따른 관광교육 변화 사례

구분	내용	기대효과	
NCS 기반 교육 과정 개편	한국관광대학	· 관광일본어과의 교과과정을 일본어와 연계한 NCS 교과과정으로 개편	· 관광일본어과의 교과과정을 일본어와 연계한 NCS 교과과정으로 개편
	제주관광대	· NCS기반 교육과정 신규 운영학과(8개)에 관광레저스포츠계열, 관광호텔조리계열 포함	·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 제고 · 양질의 NCS기반 교육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취업 시대에 기여
산학간 NCS 개발	제주한라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MOU 체결 ·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NCS 개발 협력	· 프랜차이즈 산업 현장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 제공
	강원관광대	· 한국능률협회 MOU 체결 · NCS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공동협력	· 학생들의 경쟁력 제고 및 취업률 향상 기여
	전남도립대	· 전남관광(주)과 MOU 체결 · NCS 직무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협력 · 관련학과와의 NCS교육과정 직무협업체로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채용약정형 취업과정 도입	· 전라남도 관광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과 관광전문 인력 양성
	코엑스	· 산업인력공단과 MOU 체결 · MICE산업 종사자들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 기회 제공	·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 · 복합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NCS 교육 보급	호산대	·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교와 MOU 체결 · NCS 기반 교육프로그램 보급	· 표준화된 직무능력을 가진 졸업생을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기반 마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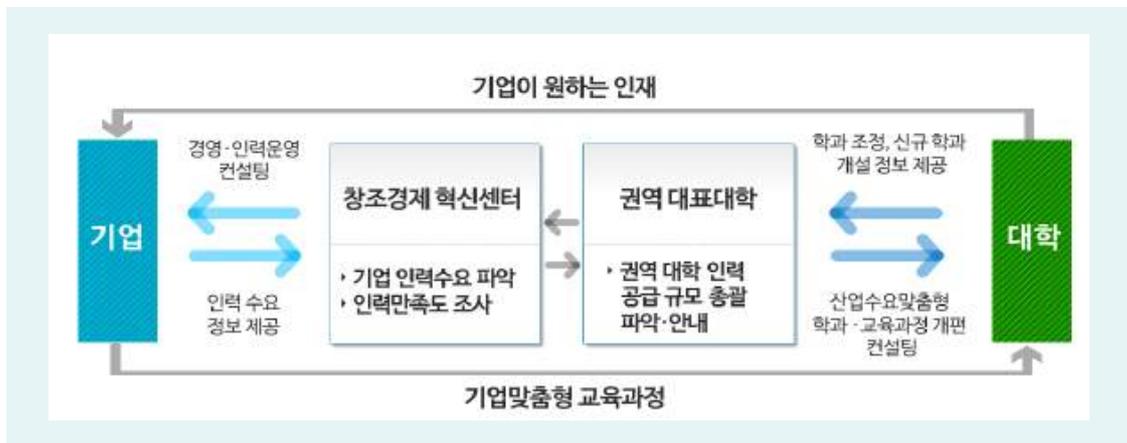
(2) 관광·레저 교육 정책 추진 현황

- 최근 교육정책의 핵심기조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음.

11) 일부 학교에서는 채용약정형 취업과정을 도입하는 등 현장 지향형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음.

○ 2016년 1월에 발표한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을 상위목표로 ①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② 일학습 병행제 및 선취업, 후진학 확산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를 위해 첫째,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등급별 정원 감축,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대학생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 강화¹²⁾와 교육과정 개발단계부터 기업을 참여시키고, 해당 기업에 학생 선발 참여를 보장하는 선순환 인력 채용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 임(창업·취업 교육 우수모델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그림 III-2]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방안

자료: 교육부(2016).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 보도자료 재인용

- 둘째, 일학습 병행제 및 선취업 후진학의 확산으로 인력 육성의 기준이 되는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적용하고 전문대학으로 확대함¹³⁾.

12)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인력 부족 분야 정원을 2만 명 규모로 조정할 방침이며, 사회 맞춤형 학과 학생 수는 '17년까지 1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13) 교육과정 개발단계부터 기업을 참여시키고, 해당 기업에 학생 선발 참여를 보장하는 인력 채용 구조를 확대할 방침으로, 창업·취업 교육 우수모델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 희망하는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도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16년 60교, '17년 203교로 확대하고 서비스 계열까지 적용 범위를 다양화 할 방침임.

<표 III-5> 교육부 교육정책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구분	세부과제	목표치	관광분야 관련 사항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대학등급별 정원 감축	16만 명 감축 (2022년)	· 관광분야가 포함된 인문·사회분야 는 31.8만 명 초과 공급으로 대학정 원 감축 예상 ·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 확대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수 확대	15,000명 (2017년)	-
	대학생 창업 및 취업 지원 강화	-	-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확산	NCS 기반 교육과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적용	-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03교 (2017년)	·서비스 계열까지 적용 범위 다양화
	특성화고, 전문대학, 기업이 연계한 유니테크 사업 지속 추진	-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재인용.

2. 관광·레저산업 인력양성기관 및 프로그램

가. 종사원 교육

- 정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 분야 종사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 밖에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교육주관기관이 다변화되었음.
- 또한 국내 인바운드 크루즈 관광시장 확대와 국적 선사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의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 한국관광공사 교육프로그램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테마아카데미를 비롯한 전문프리미엄가이드 양성교육, 관광통역안내사 기본역량 강화교육, 관광통역안내사역사문화재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관광대학생 취업역량강화 교육, 관광고교 교사 및 학생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III-6> 한국관광공사 교육 프로그램

(단위: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적	교육시간	교육횟수
한국관광공사	- 문화관광해설사 테마아카데미	233	16시간	6
	- 전문프리미엄가이드 양성교육	91	70시간	2
	- 관광통역안내사 기본역량 강화교육	362	30시간	7
	- 관광통역안내사 역사문화재 교육	451	25시간	6
	-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108	80시간	1
	- 관광대학생 취업역량강화 교육	82	3일	1
	- 관광고교 교사 및 학생 대상 교육	155	8-22시간	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한국관광공사 프리미엄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예시)

<표 III-7> 한국관광공사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명	내용	시수
공통과정 기본 소양교육	VIP 관광시장의 이해	-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이해 - VIP 안내서비스 이해	35시간
	VIP 안내서비스 실무	- 이미지메이킹 및 보이스코칭 - VIP 의견의 이해	
	한국문화의 특성	- 종교문화 유교와 불교 - 예술문화 도자기·회화·건축	
	한국관광 스토리텔링	- 충청·백제 문화권 - 경주·신라 문화권 - 서울·경기 문화권 - 어권별 외국어 시나리오 실습 및 발표	
	현장답사	- 현장답사 궁중·종가음식 체험	
특화과정	크루즈산업의 이해	- 크루즈 산업의 기본개요 및 특징	35시간
	국내외 크루즈시장 현황	- 크루즈 시장 동향 및 외국 허브 사례, 국내크루즈 시장	
	SIT관광의 특징 및 현황	- SIT(Special Interest Tourism)관광의 이해	
	크루즈의 기본 이해	- 크루즈 운항, 객실, 선박시설 등 전반적 특성	
	크루즈 서비스 실무	- 크루즈 선내의 안내서비스, 선상 생활매너 및 안전사항	
	기항지 제주, 부산, 인천 관광자원 해설	- 권역별 기항지 관광자원 발굴	
	크루즈 시나리오 작성 실습	- 크루즈 시나리오 작성	
	크루즈 상품의 특징	- 출입국수속, 수하물 관리 기존 상품과 여행상품의 차이	
	크루즈 생활	- 다양한 크루즈 선내 서비스 상품 이해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 에티켓, 예절방식, 호칭 등		
크루즈 선사견학	- 크루즈 선내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견학		

자료: 한국관광공사 공고 “2015년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공고”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교육프로그램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관광안내소 안내원 역량강화교육(직무기초), 관광안내소 안내원 역량강화교육(직무심화),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III-8>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교육 프로그램

(단위: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적	교육시간	교육횟수
한국관광 협회 중앙회	- 관광안내소 안내원 역량강화교육(직무기초)	77	2일	2
	- 관광안내소 안내원 역량강화교육(직무심화)	250	2일	5
	-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66	1일	3
	-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교육	20	1일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프로그램

-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안내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III-9>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 프로그램

(단위: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적	교육시간	교육횟수
(사)한국관광통역 안내사협회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안내실무교육	1,257	9일	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한국여행업협회 교육프로그램

-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매년 여행업 임직원 및 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여행업 안전관리 및 서비스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자 직무교육¹⁴⁾을 실시하고 있음.

<표 III-10> 한국여행업협회 교육 프로그램

(단위: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횟수
한국여행업 협회	- 여행업 안전관리 및 서비스교육	여행업 임직원 및 가이드	4.5	연 1회
	- 국외여행인솔자 직무교육	국외여행인솔자	4	연 6회

자료: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a.or.kr>)

-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관리하에 전국 56개 TC(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업체 및 대학 등)에서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및 양성과정을 연간 운영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14) 교육내용으로는 여행자 보험과 인솔자의 역할, 여행사 인사정책 설명, 인솔자의 기본 업무지침, 검역법 개정 설명, 문제상황 대처 능력 향상교육, 안전대처능력 향상교육 등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표 III-11>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안내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횟수
소양교육	- 필수교육 :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 선택교육 : 교육기관 자유선택(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편성) - 외국어교육 :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중국어등	여행업체 6개월이상 근무자(해외여행경험자)	15시간 이상	연간
양성교육	- 필수교육 :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 선택교육 : 교육기관 자유선택(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편성) - 외국어교육 :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중국어등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 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80시간 이상	연간
보수교육	해외안전사고 관련 사고대처능력 및 서비스 교육 등 TC실무교육	국외여행인솔자 및 여행사 임직원	4.5	연 1회

자료: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a.or.kr>)

□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의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내 인바운드 크루즈 관광시장 확대와 국적 크루즈선 취항계획 실행 여건 조성을 위해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¹⁵⁾.

<표 III-12> 해양수산부 크루즈 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명	교육내용
국내교육 (10주)	기초직업능력	크루즈에 대한 기초 능력 이해
	해양관광 및 관광산업	크루즈연계관광산업의 이론
	크루즈프론트관리	크루즈 자금, 승객지원, 크루즈 여행정보 관리
	크루즈식음료관리	다이닝, 음료서비스, 식음료 업장, 부서 관리
	크루즈캐빈관리	캐빈정비, 캐빈시설, 승객지원 관리
	크루즈기항지관광관리	기항지관광 예약, 관광 서비스 지원, 기항지관광 절차관리
	안전교육	응급조치, 안정장비, 소화퇴선훈련, 안전대피훈련
	선원교육	기초안전교육, 여객선기초교육, 선박보안교육
	외국어교육	크루즈 실무영어, 영어인터뷰, 문서작성 등
해외교육 (8주)	현장학습 및 특강	교육시설 실습 및 취업특강
	해외크루즈연수교육	상해 소재 Genting Star Tourism Academy (4주) 해외 호텔부문 현장실습 (4주)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5.8.7.),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의 길 열렸다'

□ 기타기관 교육프로그램

15)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크루즈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크루즈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크루즈 승무원 양성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크루즈선사와의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기타기관 교육으로는 카지노 리조트 아카데미와 유원시설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표 III-13> 기타기관 교육 프로그램

(단위: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적	교육시간	교육횟수
기타기관	-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3회)	75	21일	2
	- 유원시설 안전교육(5개 과정)	245	1-5일	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나. 관광전문인력 교육

-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 지역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여 관광·레저산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정부와 관련단체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요구됨.
- 이에 관광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광관련 이론 및 실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관광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및 업체 상호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관광아카데미’가 개설되었음.
- ‘관광아카데미’는 관광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대면하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지역관광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적극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사전학습과 Action Learning 학습활동, Peer Consulting을 통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간의 정보교류, 그리고 전문가 멘토제를 통한 직접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국외 현장교육을 통한 해외 사례 조사 및 국내 현장 적용 가능성도 모색하였음¹⁶⁾.

16)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은 지자체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에 따라 2015년부터 교육이 중단되었음.

<표 III-14> 관광아카데미 교육과정별 현황

교육과정	운영내용	운영목표
관광자원 개발	관광개발정책 및 지역관광 현안과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관광 담당인력의 지역관광 진흥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와 지역 관광 네트워크 구성체 역할 제고
관광축제	축제 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축제 기획,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및 홍보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지역축제기획 및 관리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수행능력 제고
관광산업 투자유치	공공 투자유치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무 및 전략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관광산업부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투자유치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관광홍보 마케팅	공공기관 관광홍보담당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관광홍보 마케팅 이론 및 실무 전문 지식에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 관광홍보 마케팅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
관광정책 리더	지자체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관광 마인드 제고를 위한교육과정 운영	지자체 자치단체장의 관광마인드 제고를 통한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지속가능 관광과정	중앙 및 지자체 녹색관광과정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녹색관광 이론 및 실무과정 운영	녹색관광 담당인력의 직무능력 제고와 담당자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조 후 재작성.

3. 정규 교육기관 인력공급 현황

1) 관광·레저분야 고등학교

- 관광관련 최초의 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로 2000년 개교하였으며, 이후 관광관련 고등학교는 2015년 말 전국 55개교, 810학급이 교육중임.

<표 III-15> 관광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학급
관광관련 고등학교	특성화고(전체)	22	470
	특성화고(학과)	25	248
	종합고	4	12
	산업학교	4	80
	합계	55	8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조 후 재작성.

-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1항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14)하고 있음.
- 관광·레저관련 특성화고등학교는 관광 및 레저 관련 분야에 대한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관련 분야의 전문적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라 볼 수 있음.
-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관광·레저관련학과(학과명에 ‘관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개설되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2017년 3월 현재 49개 학교에 이르고 있음.
 - 학교명에 ‘관광’, ‘조리’, ‘외식’, ‘항공’, ‘컨벤션’ 등이 포함되어 관광·레저와 직접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는 27개 학교에 이룸.
-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
 -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명에 ‘관광’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2017년 3월 현재 15개 학교임.

- 이들 특성화고등학교의 주요 계열로는 관광계열(관광, 관광경영, 관광레저, 관광비즈니스과 등), 호텔계열(관광호텔과, 호텔비즈니스과, 호텔경영과 등), 외식 및 조리계열(관광외식조리과, 관광외식경영과, 관광외식산업과, 한식조리과 등), 관광어문계열(관광외국어과,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중국어통역과 등), 관광산업계열(관광컨벤션과, 레저스포츠과, 관광항공서비스과 등) 등이 있음.

○ 전국의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는 평균 9,000여명 정도이며, 한해 평균 3,000여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함.

- 서울지역의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4개 학교가 있으며, 한해 평균 750여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

<표 III-16> 서울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단위: 개, 명)

학교명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대일관광 고등학교	공동학과	8	208	0	0	0	0
	관광레저과	0	0	2	52	2	52
	관광비즈니스과	0	0	2	52	2	52
	관광외국어과	0	0	2	52	2	52
	관광외식산업과	0	0	2	52	2	52
	합계	8	208	8	208	8	208
서울관광 고등학교	공통과정(전문계)	7	183	0	0	0	0
	관광경영과	0	0	4	106	4	102
	관광조리코디과	3	78	3	72	3	76
	관광항공서비스과	0	0	3	76	3	71
	합계	10	261	10	254	10	249
선정국제 관광고등학교	관광비즈니스과	0	0	3	76	3	64
	관광외국어과	0	0	2	47	2	50
	여행항공경영과	2	51	0	0	0	0
	의료관광간호과	2	51	0	0	0	0
	호텔컨벤션과	1	26	0	0	0	0
합계	5	128	5	123	5	114	
송곡관광 고등학교	공동	7	183	0	0	0	0
	관광외국어과	0	0	2	51	2	49
	조리과학과	0	0	2	54	2	48
	호텔비즈니스과	0	0	3	72	3	77
	합계	7	183	7	177	7	174

자료: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www.hifive.go.kr>), 참조 후 재작성.

○ 경기·인천지역의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4개 학교가 있으며, 한해 평균

900여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

<표 III-17> 경기·인천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단위: 개, 명)

학교명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경기관광 고등학교	관광외국어과	1	31	1	30	1	29
	관광경영과	1	31	1	29	1	30
	관광외식조리과	1	30	1	30	1	30
	관광골프운영과	0	0	1	29	1	30
	관광외식경영과	1	30	0	0	0	0
	합계	4	122	4	118	4	119
경일관광경영 고등학교	관광운항과	3	89	3	91	3	86
	관광레저과	2	59	2	59	2	55
	금융정보과	3	88	3	90	3	84
	유통경영과	0	0	3	84	3	86
	재무관리과	2	58	0	0	0	0
	세무회계과	3	87	3	89	3	86
	합계	13	381	14	413	14	397
한국관광 고등학교	관광영어통역과	1	31	1	27	1	33
	관광일본어통역과	1	30	1	27	1	31
	관광중국어통역과	1	31	1	28	1	30
	합계	3	92	3	82	3	94
영화관광경영 고등학교	관광경영과	5	145	5	149	5	139
	금융서비스과	3	87	3	85	3	87
	외식조리과	2	58	2	61	2	57
	합계	10	290	10	295	10	283

자료: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www.hifive.go.kr>), 참조 후 재작성.

○ 대구·경북지역의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2개 학교가 있으며, 한해 평균 60여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

<표 III-18> 대구·경북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단위: 개, 명)

학교명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한국호텔관광 고등학교	관광비즈니스과	1	34	1	32	1	34
	호텔외식조리과	1	34	1	30	1	34
	합계	2	68	2	62	2	68

자료: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www.hifive.go.kr>), 참조 후 재작성.

- 부산경남지역의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4개 학교가 있으며, 한해 평균 900여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

<표 III-19> 부산경남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단위: 개, 명)

학교명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부산관광 고등학교	관광컨벤션과	4	104	4	104	4	105
	한식조리과	4	105	4	106	4	99
	합계	8	209	8	210	8	204
부산정보관광 고등학교	호텔경영과	3	78	3	77	3	73
	호텔정보과	2	52	2	56	2	46
	호텔조리과	4	107	4	100	4	104
	합계	9	237	9	233	9	223
해운대 관광고등학교	공통과정(전문계)	10	257	0	0	0	0
	관광외국어과	0	0	2	51	2	48
	관광조리과	0	0	3	77	3	73
	관광컨벤션과	0	0	3	74	3	66
	레저스포츠과	0	0	2	52	2	48
	합계	10	257	10	254	10	235
경남 관광고등학교	관광경영과	3	77	3	80	3	82
	관광조리과	3	77	3	76	3	84
	관광호텔과	2	49	2	52	2	54
	호텔제과제빵과	2	49	2	59	2	51
	합계	10	252	10	267	10	271

자료: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www.hifive.go.kr>), 참조 후 재작성.

- 충청지역의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충청북도에 1개 학교가 있으며, 한해 평균 60여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

<표 III-20> 충청지역 관광분야 특성화고 현황

(단위: 개, 명)

학교명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한국호텔관광 고등학교	관광비즈니스과	1	34	1	32	1	34
	호텔외식조리과	1	34	1	30	1	34
	합계	2	68	2	62	2	68

자료: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www.hifive.go.kr>), 참조 후 재작성.

- 이들 지역 외 강원지역, 전라지역, 제주지역, 광주, 대전, 울산 등의 지역에서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음.

□ 외식 및 조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 외식 및 조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명에 '외식' 및 '조리'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2017년 3월 현재 3개 학교임.
- 이들 특성화고등학교는 조리과, 조리과학과 등을 운영하며 조리 분야에 특화되어 학과를 운영함.
- 조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는 평균 1,300여명 정도이며, 한해 평균 400여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함.

<표 III-21> 조리분야 특성화고 현황

(단위: 개, 명)

학교명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전남조리과학 고등학교	조리과	3	83	3	80	3	78
	합계	3	83	3	80	3	78
한국조리과학 고등학교	조리과	6	247	6	246	6	247
	합계	6	247	6	246	6	247
한국외식과학 고등학교	관광과	2	61	2	60	2	59
	조리과학과	2	63	2	60	2	58
	합계	4	124	4	120	4	117

자료: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www.hifive.go.kr>), 참조 후 재작성.

□ 항공분야 특성화고등학교

- 항공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명에 '항공'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2017년 3월 현재 6개 학교임.
- 이들 특성화고등학교는 항공서비스과, 항공정비과, 항공비즈니스과 등을 운영하며 항공분야에 특화되어 학과를 운영함.
- 항공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는 평균 3,000여명 정도이며, 한해 평균 1,000여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함.

<표 III-22> 항공분야 특성화고 현황

(단위: 개, 명)

학교명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강호항공 고등학교	항공서비스과	2	55	2	52	2	50
	항공경영정보과	1	26	1	24	1	27
	항공기계과	3	82	3	78	3	86
	항공전자과	2	55	2	55	2	57
	합계	8	218	8	209	8	220
경남항공 고등학교	항공전기전자과	2	48	2	46	2	45
	합계	2	48	2	46	2	45
경북항공 고등학교	항공전자과	2	58	2	56	2	55
	항공정비과	2	58	1	28	1	30
	헬기정비과	0	0	1	27	1	29
	합계	4	116	4	111	4	114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항공기계과	3	60	3	60	3	57
	항공전자통신과	4	70	4	69	4	69
	항공통제과	1	20	1	20	1	20
	합계	8	150	8	149	8	146
서울항공 비즈니스 고등학교	관광비즈니스과	3	70	3	75	3	73
	국제물류과	3	73	3	57	3	65
	국제조리과	3	78	3	74	3	74
	항공비즈니스과	3	75	3	75	3	67
	합계	12	296	12	281	12	279
정석항공과학 고등학교	항공기계과	2	60	2	61	2	62
	항공전자과	2	60	2	61	2	58
	항공전자제어과	2	60	2	58	2	60
	항공정비과	2	60	2	61	2	57
	합계	8	240	8	241	8	237

자료: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www.hifive.go.kr>), 참조 후 재작성.

□ 컨벤션분야 특성화고등학교

○ 컨벤션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명에 '컨벤션'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2017년 3월 현재 3개 학교임.

<표 III-23> 컨벤션분야 특성화고 현황

(단위: 개, 명)

학교명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서울컨벤션 고등학교	컨벤션경영과	3	78	3	78	3	90
	컨벤션비즈니스과	4	104	4	104	4	120
	컨벤션이벤트과	3	78	3	78	3	30

	합계	10	260	10	260	10	240
일산국제 컨벤션고등학교	컨벤션경영과	3	81	3	86	3	78
	컨벤션관광과	3	95	3	92	3	85
	컨벤션광고디자인과	3	91	3	90	3	87
	컨벤션비즈니스과	3	85	3	82	3	75
	합계	12	352	12	350	12	325
해성국제 컨벤션고등학교	공통과정	9	233	0	0	0	0
	국제전시경영과	0	0	2	52	2	50
	컨벤션경영과	0	0	4	97	4	93
	컨벤션영어과	0	0	3	69	3	71
	합계	9	233	9	218	9	214

자료: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www.hifive.go.kr>), 참조 후 재작성.

○ 이들 특성화고등학교는 컨벤션경영과, 컨벤션비즈니스과, 국제전시경영과 등을 운영하며 컨벤션분야에 특화되어 학과를 운영함.

○ 컨벤션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는 평균 2,400여명 정도이며, 한해 평균 800여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함.

2) 관광·레저분야 전문대학 및 대학교

○ 4년제 정규과정의 대학에서는 주로 관광 전반에 걸친 학문적 이론교육을 위주로 하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은 관광에 관한 이론과 NCS를 기반으로 한 실무실기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산업의 전문종사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함.

○ 최근에는 다른 학문분야와 관광이 결합하여 관광의 학문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 및 개방화의 시대 흐름에 따라 관광이 외국어, 경영, 문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학문 영역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임.

○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15년 4월 기준으로 졸업생 수는 약 8,900여명 가량에 이룸.

<표 III-24>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정원	입학생 수	재적학생 수		졸업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전문대학(3년제)	31	3,220	3,550	7,028	3,239	2,912
전문대학(2년제)	34	3,388	3,830	7,335	3,166	2,612
대학교	43	2,987	3,310	11,098	3,047	2,073
방송통신대학	1	2,000	560	3,390	2,045	523
산업대학	2	100	115	300	70	12
사이버대학(대학)	1	-	57	528	96	108
전공대학	1	650	659	1,302	547	665
계	113	12,345	12,081	30,981	12,210	8,9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공동훈련센터 자격으로 여러 전문대학 및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 학습근로자에게 현장외훈련(OFF-JT)을 직접 실시하고 현장훈련(OJT)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참여형태는 크게 국가 또는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연계형과 학위와 연계되어 교육부 또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대학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 관광·레저산업에서 NCS기반자격형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25개임.

<표 III-25> 관광·레저산업 NCS기반자격형 일학습병행제

번호	공동훈련센터명	기업명	훈련기간	비고
1	한양여자대학교	(주)H.T.C	12	듀얼
2	한국폴리텍대학춘천캠퍼스	(주)남이섬	12	듀얼
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마이스테이션	12	듀얼
4	우송정보대학	(주)에스앤호텔	12	듀얼
5	한국폴리텍대학울산캠퍼스	(주)울산MBC투어	12	듀얼
6	한국폴리텍대학서울강서캠퍼스	(주)유니콘네트웍스	12	듀얼
7	한국폴리텍대학춘천캠퍼스	(주)힐리언스	12	듀얼
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해운대센텀호텔	12	듀얼
9	우송정보대학	호텔선샤인	12	듀얼
10	우송정보대학	호텔아드리아	12	듀얼

11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마이스플랜즈	12	듀얼
12	동신대학교	(주)와이제이레저산업	18	IPP
13	동신대학교	홍해개발(주)	18	IPP
14	한국폴리텍VI대학영주캠퍼스	(주)다움	12	
15	부산외국어대학교	(주)부산비즈니스호텔	14	
16	부산외국어대학교	(주)크라운에셋크라운하버호텔부산점	12	
17	서라벌대학교	기분좋은여행(주)	12	
18	서라벌대학교	우양산업개발(주)경주지점	12	
19	서라벌대학교	주식회사경주버드파크	12	
20	동신대학교	하이원투어앤에듀	12	
21	서라벌대학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경주지점	12	
22	한양여자대학	(주)대명레저산업호텔엠블여수	12	
2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씨앤투어	12	
24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진산호텔앤리조트(주)해운대호텔	12	
25	강서폴리텍	투어이친	15	

자료: 기업일학습 포털(www.bizhrd.net), 참조 후 제작성.

- 관광·레저산업에서 자격연계형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13개임.

<표 III-26> 관광·레저산업 자격연계형 일학습병행제

번호	공동훈련센터명	기업명	훈련기간	비고
1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루텐스컨벤션	12	듀얼
2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리컨벤션	12	듀얼
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부산관광호텔	12	듀얼
4	광주대학교	(주)대양인투스	12	듀얼
5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크라운에셋크라운하버호텔부산점	12	듀얼
6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엔타비글로벌(주)	12	듀얼
7	우송정보대학	유성온천개발(주)호텔아드리아	12	듀얼
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식회사비더블류씨(BWC)	12	듀얼
9	우송정보대학	호텔선샤인	12	듀얼
10	대구한의대학교	(주)호텔인터불고안산	18	IPP
11	강원대학교	더케이호텔앤리조트지리산가족호텔	18	IPP
12	서라벌대학교	(주)성호리조트	12	
13	서라벌대학교	더케이호텔앤리조트(주)더케이호텔경주	12	

자료: 기업일학습 포털(www.bizhrd.net), 참조 후 제작성.

- 관광·레저산업에서 자격연계형을 겸한 대학연계형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8개로 모두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듀얼로 진행됨.

- 관광·레저산업에서 대학연계형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1개로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듀얼로 진행됨.

<표 III-27> 관광·레저산업 자격연계형/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제

번호	공동훈련센터명	기업명	훈련기간	비고
1	제주한라대학교	(주)호텔앤리조트	24	듀얼
2	제주한라대학교	(주)디아일랜드마리나	24	듀얼
3	제주한라대학교	(주)블랙스톤리조트	24	듀얼
4	제주한라대학교	(주)비지에이치코리아	24	듀얼
5	제주한라대학교	(주)아이진(베니키아아이진호텔)	24	듀얼
6	제주한라대학교	(주)의인호텔레오	24	듀얼
7	제주한라대학교	(주)타미우스골프앤빌리지	24	듀얼
8	제주한라대학교	한성개발(주)그라벨호텔	24	듀얼

자료: 기업일학습 포털(www.bizhrd.net), 참조 후 제작성.

4. 관광·레저산업 자격현황

1)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운영 현황

가.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운영체계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전문자격인 여행업 분야의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업 분야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총 5종목으로 구성됨.
- 이 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국제회의업 분야의 컨벤션기획사가 이에 해당함.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을 종합하여 총 3개 분야 6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행업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 호텔업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 국제회의업 : 컨벤션기획사

<표 III-28>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구성 체계

구 분	내 용	법 명	
국가전문자격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호텔업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국가기술자격	국제회의기획업	컨벤션기획사

자료: 김현주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형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나.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검정체계

(1) 여행업 분야

□ 자격시험 개요

- 현행 자격제도 운영 체계에서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국적, 성별, 연령 및 학력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국내여행안내사는 연 1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관광통역안내사는 연 2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외 외국어 시험을 시행함.

<표 III-29> 여행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개요

구 분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험시행 시기	연 1회 (11, 12월) 정기시험	연 2회 (3, 5월 및 9, 11월) 특별시험 및 정기시험
시험구성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외국어시험 (공인어학성적 제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험 진행시간	필기시험 (4과목 총 100분) 면접시험 (1인 당 15분 내외)	필기시험 (2과목 당 50분) 면접시험 (1인 당 15분 내외)
합격기준	필기시험 (과목별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비율 환산점수 6할 이상)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외국어 (언어별·시험 종류별 상이) 필기시험 (과목별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비율 환산점수 6할 이상)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면제기준	관련 경력과 전공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	관련 경력, 전공, 자격증 취득여부에 따라 외국어시험 및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자료: 김현주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형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의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 거주 경험 또는 해당 언어 구사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시험을 면제함.

□ 검정과목

-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으로 구성됨.

<표 III-30>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구 분	검정과목(배점비율)	출제영역(문항 수)	검정방식
필기	국사 (30%)	선사시대~근·현대 역사 (15)	객관식 (총 60문항, 4지 택일형)
	관광자원해설 (20%)	자연·문화·사회·산업 관광자원 (10)	
	관광법규 (20%)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규, 한국문화관광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규정 (10)	
	관광학개론 (30%)	관광사업, 관광의 개념, 관광정책 등 (15)	
면접	국가관 및 인성, 관광실무상식		대면 구술평가

자료: 김현주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형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표 III-3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구 분	검정과목 (배점비율)	출제영역 (문항 수)	검정방식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서어, 노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선택		공인어학성적 제출
	국사 (40%)	선사시대~근·현대 역사 (25)	
필기	관광자원해설 (20%)	관광자원 및 문화제 (25)	객관식 (과목당 25문항, 4지 택일형)
	관광법규 (20%)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규 (10)	
	관광학개론 (20%)	관광의 개념 및 역사, 관광정책 및 관광조직, 국제관광, 관광사업 등 (25)	
면접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해당 언어 구술

자료: 김현주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형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면접시험은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 대면 구술평가 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광통역안내사는 시험응시 언어를 사용한 구술시험으로 진행함.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은 영어 등 10개 언어로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의 경우 시장의 수요에 따라 해당 언어 분야의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함.

□ 자격시험 면제요건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은 관련 전공과 경력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관광 분야 전공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유기관의 관광 분야 전공자
 - 여행안내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은 경력, 전공, 자격증 취득여부에 따라 외국어시험 및 필기시험 또는 필기시험 중 일부과목이 면제됨(「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표 III-3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면제 내용	면제 대상
외국어 및 필기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실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기소지자
필기 일부과목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관광 분야 전공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의 실무교육 이수자 (60시간 이상)
외국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 국가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최근 5년간 국내여행안내사 평균합격률은 필기 51.7%, 실기가 76.5%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임.

<표 III-33> 최근 5년 간 국내여행안내사 합격률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합격률	
1차	응시 (명)	262	338	352	431	455	51.7%
	합격 (명)	129	139	220	227	235	
	합격률 (%)	49.2%	41.1%	63.0%	53.0%	52.0%	
2차	응시 (명)	1,689	1,108	1,216	1,430	970	76.5%
	합격 (명)	1,264	845	979	1,096	709	
	합격률 (%)	75.0%	76.3%	81.0%	77.0%	73.0%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률이 34.3%, 실기시험이 58.4%로 국내여행안내사에 비해서 필기시험 합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은 정기시험 이외에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등 자격 취득 수요가 높을 경우, 특별시험을 시행함.

<표 III-34> 최근 5년 간 관광통역안내사 합격률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합격률
응시 (명)	2,618	5,466	8,278	10,418	13,096	
필기 합격 (명)	1,214	1,503	2,476	4,260	3,481	34.3%
합격률 (%)	46.4%	27.5%	29.9%	40.9%	27.0%	
응시 (명)	1,404	1,862	2,902	5,730	4,879	
면접 합격 (명)	899	1,164	1,674	3,198	2,522	58.4%
합격률 (%)	64.0%	62.5%	57.7%	55.8%	52.0%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2) 호텔업 분야

□ 자격시험 개요

- 호텔경영사 자격제도는 호텔관리사 자격 취득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특 2등급 이상의 호텔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호텔관리사 자격제도는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호텔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광 분야를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함.
 - 호텔서비스사 자격제도는 성별, 연령 및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음.

<표 III-35> 호텔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개요

구 분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시험시행 시기		연 1회 (11, 12월) 정기시험	
시험구성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격	호텔관리사 자격 취득 후 관광호텔 3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특2급 이상 호텔 임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 취득 후 호텔업에 종사한 경력 또는 관광 분야 전공자	제한 없음
시험 진행시간	필기시험 (4과목 총 100분), 면접시험 (1인당 15분 내외)	필기시험 (3과목 총 75분), 면접시험 (1인당 15분 내외)	필기시험 (2과목 총 100분), 면접시험 (1인당 15분 내외)
합격기준	외국어 (언어별 상이) 필기 (과목별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비율 환산점수 6할 이상) 면접 (총점의 6할 이상)		
면제기준	관광호텔 근무 경력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	호텔경영 분야 전공 여부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	관련 경력 및 전공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

주: 면제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 검정과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호텔업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기준에 부합하는 어학성적을 취득해야 함.

<표 III-36> 호텔경영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구 분	검정과목 (배점비율)	출제영역 (문항 수)	검정방식
필기	관광법규 (10%)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25)	객관식 (총 100문항, 4지 택일형)
	호텔회계론 (30%)	호텔회계의 개념, 회계처리 절차, 호텔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25)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30%)	호텔조직관리·채용관리, 호텔인사고과관리 등 호텔임금 및 후생·복지관리 호텔인간관계·노사관계관리 (25)	
	호텔마케팅론(30%)	호텔 고객관리, 호텔마케팅 접근전략, 호텔마케팅전략, 내부관계 마케팅 등 (25)	
면접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호텔실무 상식	대면 구술평가(영어) 호텔실무는 한국어	

- 어학성적은 자격 종목별 자격 취득 기준에 부합하는 어학성적이 요구되며 이는 공인 어학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됨.
- 필기시험은 종목별로 상이하며 면접시험은 3개 종목 공통으로 대면 구술평가 형식으로 진행함.

<표 III-37>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구 분	검정과목 (배점비율)	출제영역 (문항 수)	검정방식
필기	관광법규 (30%)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25)	객관식 (총 75문항, 4지 택일형)
	관광학개론 (30%)	관광의 개념, 역사, 국민관광·국제관광, 관광사업, 관광마케팅 등 (25)	
	호텔관리론 (40%)	호텔의 개념, 호텔경영, 호텔마케팅, 호텔조직·인사관리 등 (25)	
면접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호텔실무 상식	대면 구술평가(영어) 호텔실무는 한국어	

<표 III-38>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구 분	검정과목 (배점비율)	출제영역 (문항 수)	검정방식
필기	관광법규 (30%)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15)	객관식 (총 50문항, 4지 택일형)
	호텔실무 (70%)	호텔경영, 객실, 식음료 (35)	
면접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호텔실무 상식		대면 구술평가(영어) 호텔실무는 한국어

주: 호텔서비스사 구술평가는 영어, 일어, 중국어 중 택1

□ 자격시험 면제요건

○ 호텔경영사 자격시험은 관광호텔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 2등급 이상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함.
-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함.
- 국내호텔과 체인호텔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함.

<표 III-39>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면제 내용	면제 대상
외국어 및 필기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면제 가능) 국내호텔과 체인관계가 있는 해외호텔의 호텔경영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내 체인호텔 파견근무를 원하는 자
필기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 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 취득자로 1등급 관광호텔에서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주: 해당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면제 가능

○ 호텔관리사 자격시험은 호텔경영 분야 전공 여부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졸업예정자 및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표 III-40>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면제 내용	면제 대상
외국어 및 필기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면제 가능)
필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호텔경영 분야 전공자

주: 해당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면제 가능

○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은 관련 경력 및 학력(관광 분야 전공)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표 III-41>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면제 내용	면제 대상
외국어 및 필기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면제 가능)
필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광 분야 전공자

주: 해당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면제 가능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의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점수는 6할 이상을 기준으로 함. 필기의 경우 매 과목당 4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호텔종사원의 외국어시험은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년 이내의 정기시험만 인정함.

<표 III-42> 호텔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기준 점수

구 분	합격기준 점수
외국어	종목별·언어별로 상이
필기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환산점수 6할 이상
면접	총점의 6할 이상

○ 최근 5년간 호텔경영사 응시자 수는 9명에 불과하여 평균 합격률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III-43> 최근 5년 간 호텔경영사 합격률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필기	응시 (명)	1	1	2	4	1
	합격 (명)	-	-	1	4	-
	합격률 (%)	0.0%	0.0%	50.0%	100.0%	0.0%
면접	응시 (명)	-	1	1	4	-
	합격 (명)	-	1	1	4	-
	합격률 (%)	-	100.0%	100.0%	100.0%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표 III-44> 최근 5년 간 호텔관리사 합격률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합격률	
필기	응시 (명)	11	18	9	17	25	
	합격 (명)	6	9	7	14	20	68.6%
	합격률 (%)	55.0%	47.4%	78.0%	82.4%	80.0%	
면접	응시 (명)	14	16	17	25	29	
	합격 (명)	10	10	12	14	16	62.7%
	합격률 (%)	71.4%	63.0%	71.0%	56.0%	52.0%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최근 5년간 호텔관리사 평균합격률은 필기가 68.6%, 실기가 62.7%로 나타나, 과반 수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며, 필기검정과 실기검정 합격률의 차이는 거의 없음.

○ 호텔서비스사의 경우, 필기시험 평균 합격률이 71.4%, 실기시험 평균 합격률

이 79.6%로 타 자격에 비해서 합격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I-45> 최근 5년 간 호텔서비스사 합격률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합격률	
필기	응시 (명)	15	8	25	31	44	
	합격 (명)	9	5	20	19	41	71.4%
	합격률 (%)	60.0%	62.5%	80.0%	61.3%	93.1%	
면접	응시 (명)	109	126	124	144	133	
	합격 (명)	97	113	101	106	89	79.6%
	합격률 (%)	86.2%	89.7%	81.5%	73.6%	67.0%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3) 국제회의업 분야

□ 자격시험 개요

- 현행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제도는 성별, 연령 및 학력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자격검정은 연 1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시행하며 별도의 필기시험 면제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표 III-46>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시험 개요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제한 없음
시험시행 횟수	연 1회 (정기시험)
시험구성	필기시험 (1차) 및 실기시험 (2차)
시험 진행시간	필기시험 (3과목 총 2시간 30분), 실기시험 (1과목 약 6시간)
합격기준	필기 (과목별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비율 환산점수 6할 이상) 실기 (총점의 6할 이상)
면제기준	없음

□ 검정과목

- 컨벤션 기획사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1급의 경우 2015년 처

음으로 시행(18명 응시)되었으나 합격자가 없었음.

- 컨벤션기획사 2급의 필기시험은 컨벤션산업론 및 호텔관광실무론, 컨벤션영어로 구성됨.
- 실기시험은 컨벤션실무로서 컨벤션기획서 및 영문서신 작성의 작업형평가로 진행함.

<표 III-47>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영역

구 분	검정과목 (문항 수)	출제영역	검정방식
1차(필기)	컨벤션산업론 (40)	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 컨벤션산업의 의의, 산업 구조, 컨벤션 마케팅 전략적 기초, 국내·외 컨벤션 산업 현황 등	객관식 (총 100문항, 4지 택일형)
		컨벤션 기획 실무, 컨벤션 장소 선정, 컨벤션 유치·기획, 행사운영·서비스, 평가, 위기관리, 사후관리	
	호텔관광실무론 (30)	호텔 실무, 호텔에 대한 기본 이해, 주요 업무, 관광산업 정책 이해	
	컨벤션 영어 (30)	어휘·문법, 독해, 회화, 문서작성 및 이해	
2차(실기)	컨벤션 실무	컨벤션 기획서 작성, 행사 기본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영문서신 작성	작업형 (총 2항목)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함.

<표 III-48>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 합격기준 점수

구 분	내 용
1차(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2차(실기)시험	60점 이상

- 컨벤션기획사 2급의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필기시험의 경우 81.7%, 실기시험의 경우 약 54.3%로 나타남.
- 컨벤션기획사 2급의 필기시험 경우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음.

- 컨벤션기획사 1급은 2015년 첫 시행에서 필기 18명 응시에 1명 합격의 5.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실기에서는 1명이 응시했으나 합격자가 없었음.

<표 III-49> 최근 5년 간 컨벤션기획사 2급 합격률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합격률
필기	응시 (명)	1,555	1,412	1,177	847	631
	합격 (명)	1,211	1,052	1,027	689	551
	합격률 (%)	77.9%	74.5%	87.3%	81.3%	87.3%
면접	응시 (명)	909	777	668	483	371
	합격 (명)	310	422	484	232	233
	합격률 (%)	34.1%	54.3%	72.5%	48.0%	62.8%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다. 분야별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현황

-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자는 175,456명이며, 여행업이 99,178명으로 56.5%, 호텔업이 73,985명으로 42.2%, 국제회의업이 2,296명으로 1.3%를 차지함.
- 여행업 분야의 자격제도는 관광안내 직무와 관련된 국내여행안내사 72,394명, 관광통역안내사 26,784명으로 국내여행안내사 비율이 높음.
- 호텔업 자격 종목은 직무 수준을 기준으로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로 구분되어 일종의 등급제 형태를 나타냄.
- 컨벤션기획사는 관광종사원 자격 중 가장 최근(2003년)에 신설되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취득자(컨벤션기획사 2급) 규모는 2,296명임.

<표 III-50> 관광종사원 자격 종목별 자격 취득 현황

구 분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합 계
	국내여행 안내사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	호텔 서비스 사	컨벤션 기획사 1급	컨벤션 기획사 2급	
자격취득자	72,394	26,784	341	3,440	70,204	0	2,296	175,459
합 계	99,178		73,985			2,296		
비 율	56.5%		42.2%			1.3%		100.0%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의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



[그림 III-3] 관광종사원 자격 종목별 자격 취득 현황

(1) 여행업

- 여행업 분야의 관광종사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38조를 따르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의 자격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에 명시되어 있음.
- 여행업 분야에서 자격을 요하는 업무는 관광통역안내 및 국내여행안내 업무로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가 해당됨.

<표 III-51> 여행업 분야 업무별 자격기준

업 무	자격요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394명으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자격 취득자는 매년 5,000~6,000명의 규모였음.
- 2003년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광종사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3년부터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자는 1,000~

2,000명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까지 동일한 규모를 유지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격 취득자 규모가 1,000명 미만으로 크게 감소함.

<표 III-52> 연도별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자 수

종목명	1989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국내여행안내사	67,501	1,264	845	979	1,096	709	72,394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의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784명으로 영어를 포함한 11개 언어권별 관광통역안내사가 배출됨.

○ 언어권별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일어(38.6%), 중국어(35.9%), 영어(23.0%) 순으로 자격 취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 신설된 이탈리아어(0명), 태국어(79명), 베트남어(25명), 말레이·인도네시아어(64명), 아랍어(2명)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는 자격 취득자 규모가 크지 않음.

○ 연도별로 자격 취득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수가 소폭 증가 추세로 전환됨.

<표 III-53>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수

	1962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비율 (%)
영어	4,876	156	166	238	379	344	6,159	23.0%
일본어	9,048	357	278	244	266	137	10,330	38.6%
중국어	2,954	370	698	1,160	2,468	1,963	9,613	35.9%
프랑스어	161	2	2	3	3	7	178	0.7%
독일어	102	2	3	4	1	3	115	0.4%
스페인어	89	1	2	3	4	4	103	0.4%
러시아어	93	5	3	4	6	5	116	0.4%
말/인어	1	1	0	6	21	35	64	0.2%
베트남어	0	1	0	4	15	5	25	0.1%
태국어	3	4	12	8	35	17	79	0.3%
아랍어	0	0	0	0	0	2	2	0.0%
합 계	17,327	899	1,164	1,674	3,198	2,522	26,784	100.0%

자료 : 관광전문인력포털, <https://academy.visitkorea.or.kr/>. 2009. 12. 3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개정에 따라 2010년도부터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총 5개 언어)가 추가되었으며, 이탈리아어는 2016년 8월 현재 자격증 취득자가 없음.

(2) 호텔업

- 호텔업 분야의 관광종사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38조를 따르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의 자격기준은 「관광진흥법」 제36조 별표4에 명시되어 있음.

<표 III-54> 호텔업 분야 업무별 자격기준

업 무	자격요건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 호텔업 및 호스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 호텔업 분야의 자격제도는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세 단계의 위계를 갖는 체계로 구성됨.
- 호텔경영사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5명이며 최근 5년간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규모는 6명에 불과함.
- 호텔경영사 자격 취득자는 2003년 이후로 급감하여 연간 5명 이내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 2003년 의무고용제 폐지 이후, 연간 자격취득자 수는 전무하거나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 호텔관리사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40명(호텔업 분야 자격취득자의 4.6%)이며, 호텔관리사 자격에 대한 취득자는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자격 취득자 규모는 62명에 불과함.
- 호텔서비스사 자격 취득자는 총 70,204명으로 총 자격취득자의 약 94.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이전에는 약 5,000명에서 6,000명 규모의 자격취득자를 배출하였으나 이후 호텔서비스사 자격 취득자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이후, 자격취득자 규모는 100명 정도의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자격 취득자 규모는 총 506명에 불과한 실정임.

<표 III-55> 연도별 호텔업 관련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자 수

종 목 명	1987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호텔경영사	335	0	1	1	4	0	341
호텔관리사	3,378	10	10	12	14	16	3,440
호텔서비스사	69,698	97	113	101	106	89	70,204
합 계	73,411	107	124	114	124	105	73,985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의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

(3)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업 분야 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2(서비스분야)를 따르며, 자격 검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3에 명시되어 있음.
- 국제회의업 분야에서 자격을 요하는 업무는 컨벤션기획사 1급과 2급이 해당되며,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컨벤션기획사 1급 자격은 2015년 첫 시행됨.

<표 III-56> 국제회의업 분야 업무별 자격기준

업 무	자격요건
컨벤션 유치·기획·운영을 위한 업무 외국어 구사 및 컨벤션 경영·협상·마케팅 능력 활용	컨벤션기획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컨벤션 기획·운영을 위한 기본 업무 컨벤션기획사 1급 보조 업무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자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3을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96명으로 자격제도가 도입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615명이 해당 자격을 취득함.
- 2003년 이후 자격취득자 수가 감소하여 100명 이하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2010년 컨벤션기획사에 대한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필요 경력기간을 단축하면서 컨

벤션기획사 자격취득자가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컨벤션기획사 1급 자격은 2015년 첫 시행에서 필기 18명 응시에 1명 합격의 5.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실기에서는 1명이 응시했으나 합격자가 없었음.

<표 III-57> 연도별 국제회의업 관련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자 수

종 목 명	2003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컨벤션기획사 1급	-	-	-	-	-	0	0
컨벤션기획사 2급	615	233	232	484	422	310	2,296
합 계	615	233	232	484	422	310	2,296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의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현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 별·수준별로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것을 의미함(자격기본법 제2조).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기준에 NCS를 활용함으로써 현장, 교육·훈련, 자격을 상호 연계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NCS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과학적으로 체계화 한 것으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함.
- 직무능력은 직무 수행능력과 직업 기초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업 기초능력이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의미함.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들이 이에 해당됨.
- 직무수행능력은 해당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행업무와의 일치정도에 따라 1) 필수 직업능력, 2) 선택 직업능력, 3)산업공통 직업능력으로 구분됨.

가. 관광·레저 분야 NCS 개발 현황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관련 분야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여행서비스 : 여행상품 개발, 여행상품 상담, 국내여행 안내, 항공객실 서비스, 국외여행 안내
 - 숙박서비스 :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 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 컨벤션: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기획
 - 관광·레저서비스 : 카지노기획개발, 카지노운영관리, 크루즈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표 III-58> 관광·레저분야 NCS 개발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3. 관광·레저	01. 여행서비스	1. 여행상품개발 3. 국내여행안내 5. 항공객실서비스	2. 여행상품상담 4. 해외여행안내
		02. 숙박서비스	1. 숙박기획·개발 3. 부대시설관리 5. 접객서비스	2. 객실관리 4. 연회관리
		03. 컨벤션	1. 회의기획 3. 이벤트기획	2. 전시기획
		04. 관광·레저서비스	1. 카지노기획개발 3. 크루즈운영관리	2. 카지노운영관리 4. 유원시설운영관리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나. 주요 업종별 NCS 개발 현황

(1) 여행서비스

- 여행서비스분야의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을 직능유형(skill type)과 직능수준(skill level)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여행서비스분야의 직능유형(skill type)은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 등 5가지이며, 직능수준(skill level)의 경우 3~5수준에 분포하고 있음.
-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안내의 경우 3수준은 3년, 4수준은 5년, 5수준은 8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며, 보통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됨.
- 항공객실서비스의 경우 3수준인 객실서비스 실무자는 1-7년의 경력 및 전문

대졸 이상의 학력, 그리고 4수준인 객실서비스 관리자는 7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됨.

<표 III-59> 여행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 분	01.여행상품개발	02.여행상품상담	03.국내여행안내	04.해외여행안내	05.항공객실서비스
5수준	여행상품개발 관리자	여행상품 총괄관리자			
4수준	여행상품개발 실무자	여행상담 관리자			객실서비스 관리자
3수준		여행상담 실무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객실서비스 실무자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

- 여행상품개발은 여행사에 의해서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이거나, 여행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으로서 여행상품 시장조사와 원가분석, 여행상품 상품성 검토, 여행상품 구성,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수요시장을 환기·충족시키고, 여행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의미함.
- 여행상품상담은 여행상품 판매를 위하여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여행 관련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의미함.
- 국내여행안내는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여행안내 행사지시서 확인, 국내여행안내 행사준비, 영접(meeting), 교통편 탑승 후 오리엔테이션, 관광자원 해설, 국내여행안내 행사진행, 국내여행안내 안전관리, 국내여행안내 고객만족관리, 환송(Sending), 국내여행안내 정산·보고를 하는 일을 의미함.
- 해외여행안내는 외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국외여행안내 행사확정 확인, 국외여행안내 사전 정보 확인, 출국 업무, 기내 업무, 입국 업무, 국외여행 행사관리, 국외여행안내 시 안전관리, 국외여행안내 고객만족관리, 국외여행안내 정산·보고를 하는 일을 의미함.
- 항공객실서비스란 객실 안전관리, 승객 탑승 전 준비, 승객 탑승 서비스, 이륙 전 서비스, 비행 중 서비스, 착륙 전 서비스, 착륙 후 서비스, 승객 하기 후 관리, 응급환자 대처, 객실승무 관리를 하는 일을 의미함.

(2) 숙박서비스

- 숙박서비스 분야는 크게 고객을 서비스하는 부서(Front of the House)와 지원 부서(Back of the House)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는 접객부서에 해당하고, 숙박기획·개발은 지원 부서에 해당함.
- 위의 직능 수준을 기준으로 접객부서의 1, 2 수준은 주로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3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담당 업장이나 부서의 관리 업무까지 관할하게 됨.
- 지원부서는 고객을 서비스하는 부서가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지원부서의 1, 2 수준은 주로 보조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3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부서에 따라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함.

<표 III-60> 숙박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 분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접객서비스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6(차장)	경영지원실장				
5(과장)	경영지원팀장/ 세일즈&마케팅팀장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	당직지배인	식음료 매니저	
4(대리)	경영지원담당/ 판촉지배인	하우스키핑 부지배인/ 프론트데스크 부지배인	접객서비스 매니저	휘트니스 매니저/ 식음료 부지배인	연회 지배인
3(주임)		하우스키핑 정비담당/ 예약담당/프론트 데스크 담당	접객서비스 주임	휘트니스 어텐던트/ 식음료 캡틴	연회 주임
2(사원)		프론트 데스크 어텐던트, 예약 담당	접객서비스 담당	식음료 서버	연회 담당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

- 숙박기획·개발은 숙박 기획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마케팅, 판촉, 인적 자원관리, 기획, 재무회계, 호텔 프로젝트를 하는 일을 의미함.
- 객실관리는 고객의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 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 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 상품을 창출하는 일을 의미함.

- 부대시설관리는 숙박객 및 방문객의 이용 목적에 따른 편의 제공을 위해 식음료와 판매시설,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일을 의미함.
- 연회관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고객에게 성공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 계획된 장소, 시간, 예산 내에서 식·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연회를 기획, 운영하는 일을 의미함.
- 접객서비스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과의 다양한 접점 상황에서 고객의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창출하는 일을 의미함.

(3) 컨벤션

- PCO(회의기획) 직무능력수준
 - PCO는 하위직급에서 중간직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2년, 중간~상위직급이 4년, 상위~최상위직급이 11년 이상 소요됨.
- PEO(전시기획) 직무능력수준
 - PEO는 하위직급에서 중간직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3년, 중간~상위직급이 5년, 상위~최상위직급이 12년 이상 소요됨.
- 이벤트기획사 직무능력수준
 - 이벤트기획사는 하위직급에서 중간직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2년, 중간~상위직급이 5년, 상위~최상위직급이 10년 이상 소요됨.

<표 III-61> 컨벤션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 분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기획
8(임원/총괄관리자)	회의기획총괄관리자	전시기획총괄관리자	이벤트기획총괄관리자
7(부장/기획자)	회의기획자	전시기획자	이벤트기획자
6(차장/운영책임자)	회의기획운영책임자	전시기획운영책임자	이벤트기획운영책임자
5(과장/실무책임자)	회의기획실무책임자	전시기획실무책임자	이벤트기획실무책임자
4(대리/실무담당자)	회의기획실무담당자	전시기획실무담당자	이벤트기획실무담당자
3(사원/실무보조자)	회의기획실무보조자	전시기획실무보조자	이벤트기획실무보조자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

- 회의 기획은 국제회의 및 국내회의를 유치 또는 신규 개발하고 개최를 위한 기획, 회의 프로그램 설계, 예산 및 회의 참가자 관리, 마케팅, 회의 현장 운영을 통해 회의 참가자 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일을 의미함.
 - 전시기획은 전시회 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어, 일반 참관객, 참가업체 유치 및 관리, 전시장조성, 운영서비스 등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한 통합마케팅의 장을 구성하는 일을 의미함.
 - 컨벤션 산업에서의 이벤트 기획은 정부·협회·단체·기업 등에서 주최하는 컨벤션 프로그램 중 공식·사교·부대행사를 기획·연출·운영 하는 일을 의미함.
- 컨벤션기획사자격증의 현장성 검증 기능 강화 필요
- 컨벤션기획사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입직형 자격증(2급)만의 운영으로 자격기능이 산업의 인력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컨벤션기획사 자격2급의 기능은 산업에 입문하려는 입직자(학생 및 신입직)를 대상으로 기초직업능력을 검증 하는 입직형 자격증으로서 자격검증과정에서 경력검증이나 실무경험 등과 같은 현장성 검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2급 자격증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이나 현장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여 자격취득이 취업이나 이직, 경력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자격 효용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됨.
 - 따라서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격증의 기능을 숙련형으로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숙련형 자격증은 향후 자격증의 기능이 현직 종사자 경력개발 선도 기능으로 강화되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으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숙련형 자격증으로의 준비가 시급함.
 - 현행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은 자격취득 이후 취득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자격취득자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문제시 되고 있어 재교육 및 자격증 갱신제도 등과 같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질적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 즉,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격 취득이후 인력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가 요구되며 자격취득자의 취업, 교육훈련, 자격갱신 등을 포함함.

□ 자격제도의 질적 관리 강화 필요

○ 취업 연계 기능 강화 필요

- 자격취득자의 취업기회 확보와 우대혜택 부여를 위해 일정 인원 이상의 자격취득자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국가행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 기업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직무교육훈련 수행 시 일정 비율의 교육비 지원
- 자격취득자는 컨벤션기획사 포털사이트 인력DB에 자동 등록되어 job market을 통해 수시로 취업정보 및 상담기회 제공

○ 교육훈련 지속적 지원

- MICE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교육 기관 지정 및 지원 제공
- MICE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프로그램 시행 지원
- 우수 자격취득자 선정 및 수상
- 컨벤션기획사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격취득자의 경력단계에 따른 교육 훈련 상담 제공

○ 자격 갱신

- 자격취득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2년~3년) 경과 후 자격갱신 제도 도입
- 자격갱신 기준은 시험 검정보다는 경력 검정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지정 기한 내에 자격갱신에 실패한 경우 자격취득이 소멸 되도록 법제화시켜 자격갱신을 의무화

(4) 관광·레저서비스

- 관광·레저 서비스의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을 직무별로 보면 대체로 1~4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카지노업은 전통적으로 일본시장이 강세였으나 최근 방한 중국관광객이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어 및 중국 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타 업종

에 비해 관광전공자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특히 카지노와 관광산업의 결합으로 국내외에서 비즈니스로 발전하였으며, 카지노업과 호텔업, 음식업, 테마파크 등 이와 관련된 유관업종과 결합하여 종합레저휴양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카지노기획개발의 경우 실제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와 다른 수준을 보이며, 실무자-관리자-책임자-본부장 등과 같이 사무에 대한 직능수준을 수행하며, 카지노운영관리의 경우 안전관리원, 캐셔-서벨리언스-카지노딜러-카지노관리자 등으로 직능수준이 구성됨.
 - 카지노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OJT: On the Job Training)과 조직생활에 대한 인성교육 및 고객대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크루즈운영관리는 실무자-담당책임자-부매니저-매니저 등으로 직능수준이 나뉘는데, 실제 한국에서 운영되는 크루즈의 수가 상당히 적고 대부분 크루즈 상품과 세일즈를 담당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어, 크루즈운영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능수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원시설운영관리의 경우 사원-과장-부장-사업본부장으로 직능수준이 나뉘며, 테마파크의 내부의 시설물 관리와 아울러 기획부터 어트랙션운영, 매장관리까지 테마파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III-62> 관광레저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 분	카지노기획개발	카지노운영관리	크루즈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7(본부장)	카지노기획 본부장			본부장
6(실장)	카지노기획 실장	카지노운영 책임자	크루즈 매니저(지배인)	팀장
5(팀장)	카지노기획 팀장	카지노운영 관리자		매니저
4(과장)	카지노기획 과장	카지노보안 실무자	크루즈 담당책임자	필드 매니저
3수준		카지노운영 실무자		주임
2수준		카지노현장 실무자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

- 카지노기획개발은 고객들이 여가선용을 통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카지노 사업, 마케팅, 상품선정, 시장창출, 고객서비스,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안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의미함.

- 카지노운영관리는 영업장 내에서 고객의 관광레저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카지노 게임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카지노 영업 관리, 테이블 게임 관리, 룰렛 기본스킬, 룰렛 게임진행, 블랙잭 기본스킬, 블랙잭 게임진행, 바카라 기본스킬, 바카라 게임진행, 실전 테이블 게임진행, 머신 게임 관리, 카지노 현장 경리관리, 카지노 고객 지원, 카지노 영업 지원, 서베일런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의미함.
- 크루즈 운영관리는 승선객들이 선상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위락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선내의 승객서비스, 여행정보, 캐빈, 승객지원, 식음료, 조리, 기항지관광, 카지노, 위락 시설, 마케팅, 지상 지원, 선상 지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의미함.
- 유원시설운영관리는 고객이 위락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유원시설에서 유기사설과 유기기구, 상품판매시설, 식음료시설, 고객 편의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 고객응대, 현장서비스관리, 어트랙션운영관리, 상품기획개발, 상품판매관리, 식음료기획, 식음료업장운영, 이벤트기획, 이벤트운영, 전시기획, 전시운영, 시설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등을 하는 일을 의미함.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와 전망

1.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접근방법

- 관광·레저 산업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에는 크게 계량적 기법과 질적 기법이 있음(관광수요예측 시 주로 계량기법 사용).
- 계량기법은 시계열모델(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박스-젠킨스법 등)과 인과모델(회귀모델, 중력모델)로 분류됨¹⁷⁾.

<표 IV-1> 관광·레저 인력수요예측기법의 유형 및 기준

예 측 기 법		이용빈도	예측기간
계량기법	시계열모델	이동평균법	단기
		지수평활법	단기~중기
		박스-젠킨스법	단기~중기
	인과모델	회귀모델	단기~중기
		중력모델	단기~중기
질적 기법	JAM(judgment-aided method)		중기
	시나리오설정법		중기
	델파이모델		장기

자료 : 이충기 (2011). 관광응용경제학. 대왕사.

- 수요예측을 위한 지수평활(linear exponential smoothing)법은 과거의 관측값을 지수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관측값에 대해 연속적으로 단일지수평활 값과 이중지수평활 값을 구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게 되며, 지수평활법에서는 오래된 관측 값보다 최근 관측 값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임.
- 지수평활법¹⁸⁾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단기간의 수요를 예측

17) 시계열모델은 과거자료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인과모델은 예측될 변수인 종속변수와 이를 설명해주는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임.

하는데 있어 비교적 정확도가 높으며, 산출방법에 있어 이해가 쉽고 정확성을 평가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시계열모델 중 지수평활모델은 비교적 단순하면서 단기적 예측에 적합하며,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무적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음¹⁹⁾(정의선·유정정·조승현, 2013).
- 인과모델(causal model)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음.
- 인과모델의 목적은 종속변수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독립변수를 찾아내고 이 두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관광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음.
- 인과모델 중 다변수 회귀(multiple regression)모델은 다른 시계열모델이나 질적 모델에 비하여 이론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계나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의 하나임²⁰⁾.

1)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에서는 두 개의 평활상수 (α , γ)를 이용하여 예측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2모수 선형지수평활법이라고 부르기도 함.
- 다시 말하면,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에서는 평활값(S_t)과 추세변동비(bt)를 계산할 때 서로 다른 평활상수 (α , γ)를 적용함으로써 추세변동비에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게 됨.
-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은 3개의 방정식과 2개의 평활상수 ($0 < \alpha < 1$, $0 < \gamma < 1$)로 구성되며, 추세를 먼저 추정하여 예측하게 됨 (Makridakis, Wheelwright & McGee, 1983).

18) 지수평활법은 단순지수평활법, 브라운지수평활법, 홀트지수평활법, 윈터스지수평활법으로 구분됨(이훈영, 2008).

19) 홀트의 선형지수평활법은 추세패턴을 설명해주는 두 개의 평활상수가 추세패턴을 설명해 줌.

20) 이 방법은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가 미래의 관광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줌.

$$S_t = \alpha X_t + (1 - \alpha)(S_{t-1} + b_{t-1})$$

$$b_t = \gamma(S_t - S_{t-1}) + (1 - \gamma)b_{t-1}$$

$$F_{t+m} = S_t + b_t * m$$

- 여기서 S_t 는 t 시점에서의 평활값으로 직전 기간의 추세변동비에 의하여 조정되는데, 이는 직전 기간의 평활값에 직전 기간의 추세변동비를 더함으로써 이루어짐.
- 이는 직전 기간의 차이를 제거하고 최근 자료에 근접하기 위한 것임. 또한, B_t 는 t 시점에서의 추세평활값이며, F_{t+m} 은 t 시점에서 m 기간 앞으로의 예측값을 의미함(이충기, 2011).

2) 회귀모델 (Regression Model)

- 다변수 회귀모델의 가정 중의 하나는 함수관계가 다음과 같이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를 가져야 함.

$$D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epsilon$$

- 여기서 D 는 종속변수로서 관광수요를 나타내고, $\beta_1, \beta_2, \beta_3$ 는 추정될 계수들을 나타내며, X_1, X_2, X_3 는 설명변수를 나타내고 β_0 는 상수, ϵ 는 잔차를 각각 나타냄.
- 그러나 모든 회귀모델이 처음부터 식 [1]과 같은 선형함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음.

$$D = \beta_0 X_1^{\beta_1} X_2^{\beta_2} X_3^{\beta_3} \epsilon$$

- 지수함수는 양변에 로그를 취함으로써 로그-선형(log-linear)함수로 다음과 같이 전환시킬 수 있음.

$$\ln D = \alpha + \beta_1 \ln X_1 + \beta_2 \ln X_2 + \beta_3 \ln X_3 + v$$

- 여기서 α 는 상수, v 는 잔차를 나타냄.
- 회귀모델에서 분석하려는 3가지 함수는 선형함수(linear function), 2차함수(quadratic function), 3차함수(cubic function)를 선정하게 되는데 3가지 함수

식은 다음과 같음(이창기, 2011).

$$\text{선형함수: } Y = \beta_0 + \beta_1 X_1 + \epsilon$$

$$\text{2차함수: }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2 + \epsilon$$

$$\text{3차함수: }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2 + \beta_3 X_3^3 + \epsilon$$

3) 예측모델의 정확도(Accuracy)비교

- 수요예측의 정확성은 그들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손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선(bottom line)임.
- 따라서 아무리 정교한 모델이라 할지라도 수요예측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예측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정확도의 정도는 예측오차(forecast error)의 값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정확도는 높아짐²¹⁾.
-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 error), 평방근평균제곱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 절대평균비율오차(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타일계수(Theil-U coefficient) 등이 있음.
- 이중에서 MAPE은 계량모델 간에 예측오차의 비교가 용이하고 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고 있으므로 정확도 측정척도로 사용됨.

$$MAPE = \frac{1}{n} \sum \left| \frac{X_t - F_t}{X_t} \right| * 100$$

- 여기서 X는 실제값, F는 예측값, 그리고 n은 실제값의 기간수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된 MAPE 값은 다음과 같이 해석됨(Lewis 1982; 이창기, 2011).

21) 단순한 수요예측기법은 복잡한 기법에 비하여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높으며(Makridakis, 1986),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은 그 논리성에 있어서는 뛰어나지만 그 모델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들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대리(proxy)변수를 이용하게 되며 그 결과로 예측치에 대한 정확도는 떨어짐.

$0\% \leq \text{MAPE} < 10\%$: 매우 정확한 예측
 $10\% \leq \text{MAPE} < 20\%$: 비교적 정확한 예측
 $20\% \leq \text{MAPE} < 50\%$: 비교적 합리적 예측
 $\text{MAPE} \geq 50\%$: 부정확한 예측

- 각 모델의 정확도를 검토하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은 각 모델에 의한 미래의 예측값이 과연 현실적이냐를 판단해야 함.
- 즉, 각 모델에서 도출된 예측값을 통해 과거의 실제값에 비추어 볼 때 예측값이 현실성이 있는가(실제값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현실성이 없다면 예측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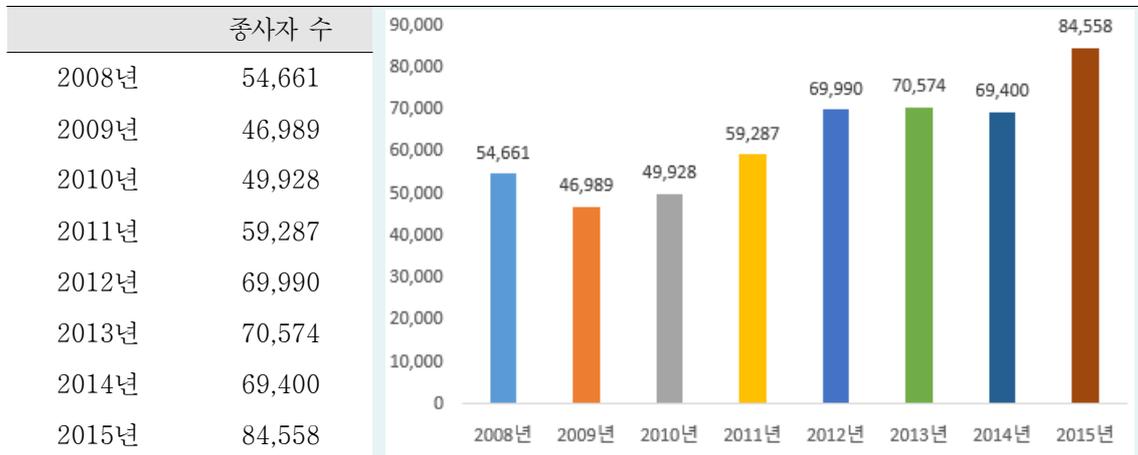
2.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과 전망

가.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결과

(1) 여행업

- 여행업 종사자 수는 2008년 54,661명에서 2009년 46,989명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3년까지 70,574명으로 증가 이후 2014년 69,400명으로 약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015년 다시 84,558명으로 증가함.

<표 IV-2> 여행업 종사자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여행업 종사자 수에 대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과 회귀모델을 이용한 수요예측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절대평균비율오차)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7.558%, 1차 회귀함수 8.359%, 2차 회귀함수 6.926%, 3차 회귀함수 3.885%로 모든 모델에서 $0\% \leq \text{MAPE} < 10\%$ 사이로 나타나 매우 정확한 예측치로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가 도출됨.
- 그러나 3차 회귀함수에 대한 모델의 적합도는 3.885%로 가장 높으나 오히려 예측치는 가장 낮아 과거 실제자료를 고려해 볼 때 예측치가 지나치게 낮게 추정됨(예측결과가 음(-)의 결과로 도출됨). 이는 도표에서 함수는 실제데이터에 가장 적합해 있지만 마지막 부분이 하향하는 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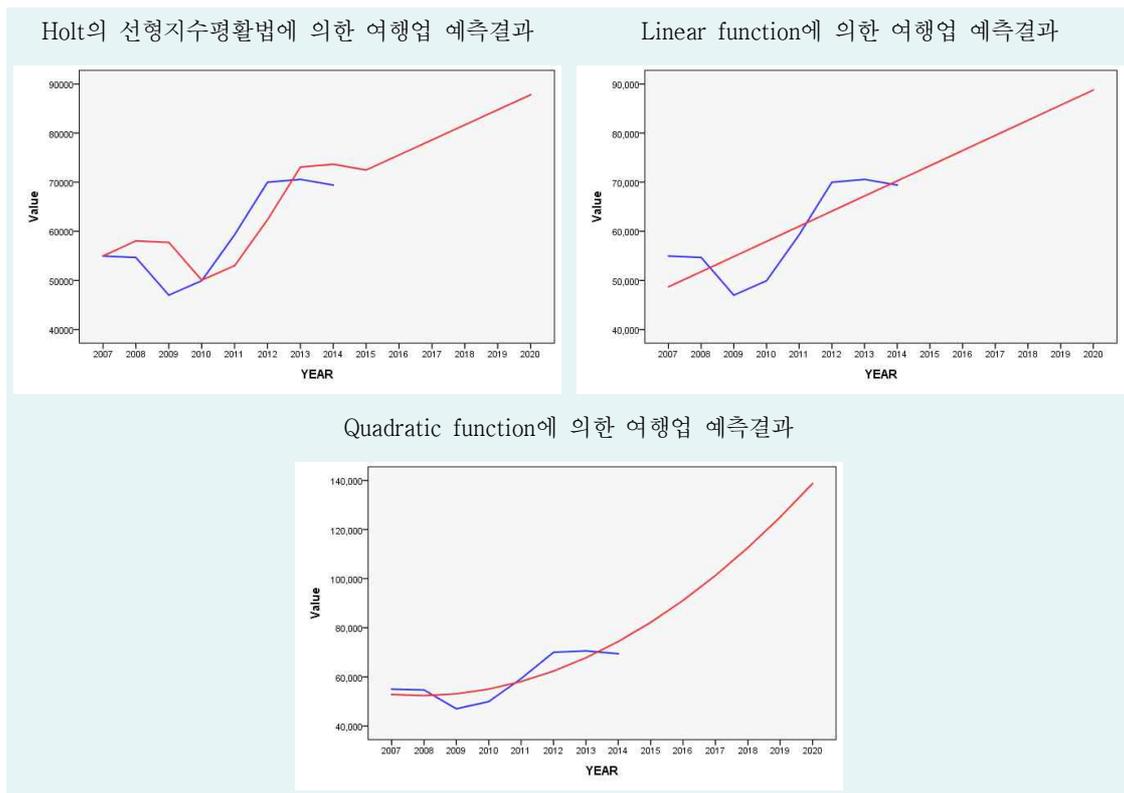
결과에서 제외함.

- 이는 수요예측을 위한 원자료(raw data)가 8개밖에 안 되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여행업에 대한 종사자 수를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은 87,800명, 1차 회귀함수는 88,763명, 2차 회귀함수는 138,737명으로 각각 여행업 종사원 수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표 IV-3> 여행업에 대한 예측결과

	2016	2017	2018	2019	2020	MAPE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75,533	78,600	81,667	84,733	87,800	7.558%
Linear function	76,431	79,514	82,597	85,680	88,763	8.359%
Quadratic function	91,129	101,267	112,581	125,071	138,737	6.926%
예측모델 평균	81,031.0	86,460.3	92,281.7	98,494.7	105,100.0	

Cubic function은 예측결과가 지나치게 낮은 값으로 도출되어 예측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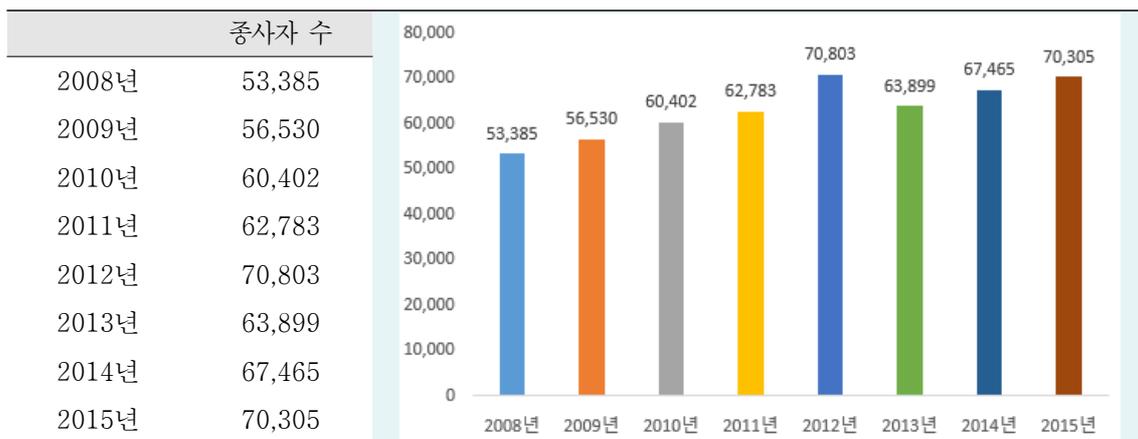
[그림 IV-1] 각 모델에 의한 여행업의 예측결과

- 향후 여행업 종사자 수에 대한 예측결과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는 2차 회귀함수 모델이었으며, 중도적 전망치는 1차 회귀함수모델, 가장 보수적 전망치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모델로 나타남.
- 2020년을 기준으로 위 세 모델(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차 회귀함수모델, 2차 회귀함수모델)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업 종사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면, 각 모델의 결과에 대한 평균치인 105,100명으로 추산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관광숙박업

-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는 2008년 53,385명에서 2012년 70,80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에는 63,899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는 70,305명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임.

<표 IV-4>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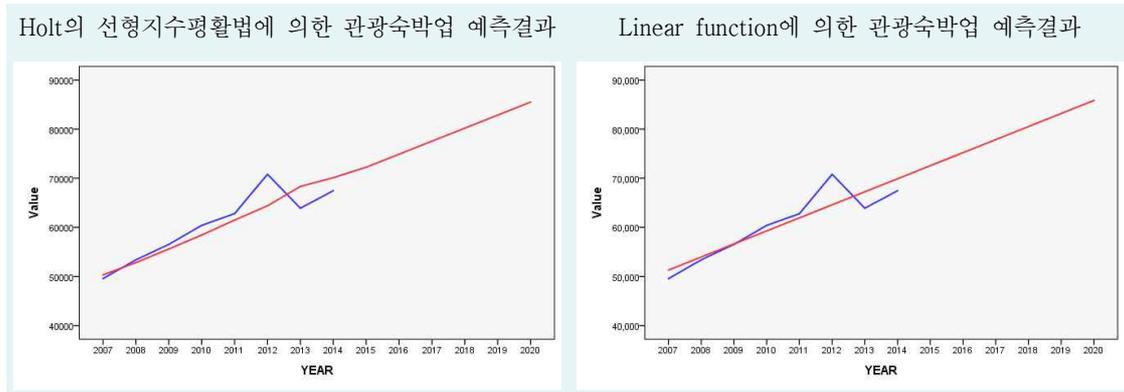
-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에 대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과 회귀모델을 이용한 수요예측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절대평균비율오차)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3.685%, 1차 회귀함수 3.201%, 2차 회귀함수 2.367%, 3차 회귀함수 2.169%로 모든 모델에서 $0\% \leq \text{MAPE} < 10\%$ 사이로 매우 정확한 예측치로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가 도출됨.

- 그러나 3차 회귀함수에 대한 모델의 적합도는 2.169%로 가장 높으나 오히려 예측치는 가장 낮아 과거 실제자료를 고려해 볼 때 예측치가 지나치게 낮게 추정됨(예측결과가 음(-)의 결과로 도출됨). 또한, 2차 회귀함수의 결과에서도 도표의 함수는 실제데이터에 적합해 있지만 마지막 부분이 하향하는 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2차 회귀함수와 3차 회귀함수는 분석결과에서 제외함.
- 이는 수요예측을 위한 원자료(raw data)가 8개밖에 안 되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5> 관광숙박업에 대한 예측결과

	2016	2017	2018	2019	2020	MAPE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74,888	77,544	80,200	82,856	85,512	3.685%
Linear function	75,211	77,867	80,523	83,179	85,835	3.201%
예측모델 평균	75,050	77,706	80,362	83,018	85,674	

Quadratic function과 Cubic function은 예측결과가 지나치게 낮거나 지속적 감소 추세로 도출되어 예측에서 제외함.



[그림 IV-2] 각 모델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예측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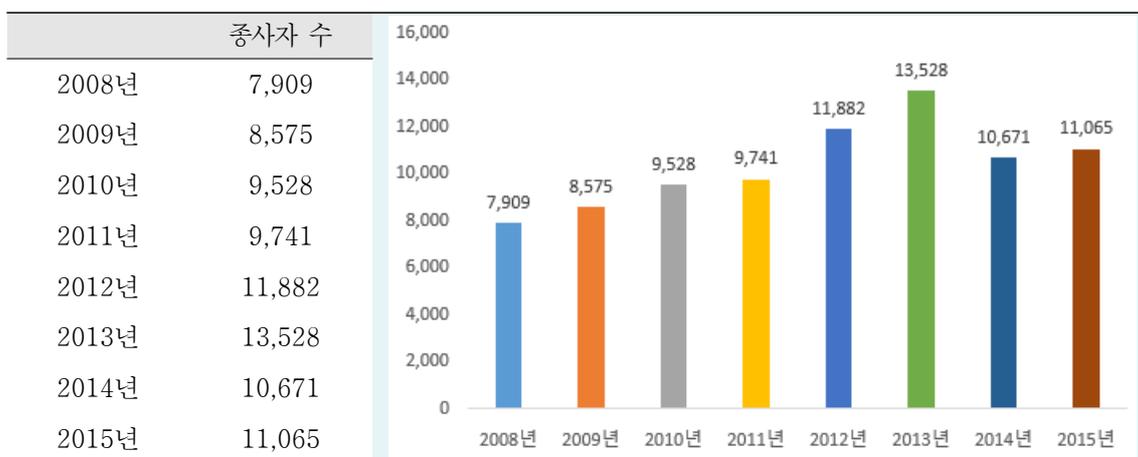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관광숙박업에 대한 종사자 수를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은 85,512명, 1차 회귀함수는 85,835명으로 관광숙박업 종사원 수의 규모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향후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에 대한 예측결과 낙관적인 전망치는 85,835명으로 예측한 1차 회귀함수모델임.

- 2020년을 기준으로 위 두 모델(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차 회귀함수모델)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면, 두 모델의 결과에 대한 평균치인 85,674명으로 추산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수는 2008년 7,909명에서 2013년 13,528명으로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3년 이후 2014년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는 10,671명으로 2,857명 감소하다가 2015년(11,065명) 다시 증가함.

<표 IV-6>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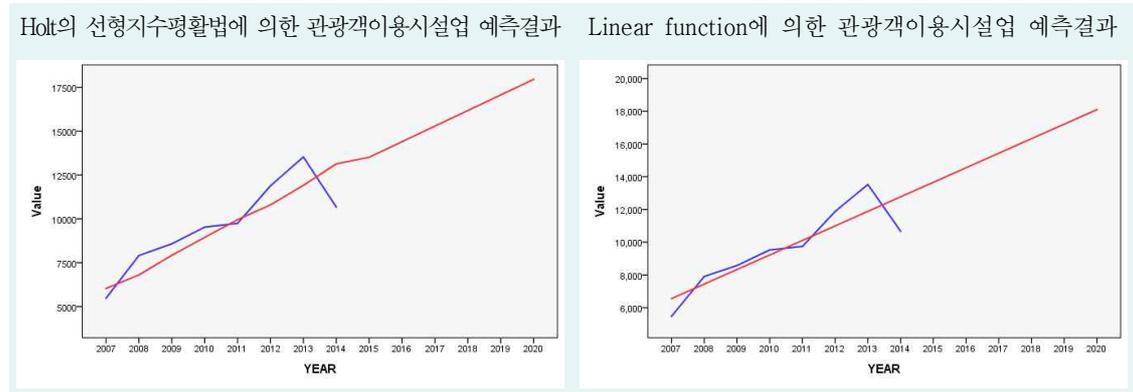
-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수에 대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과 회귀모델을 이용한 수요예측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절대평균비율오차)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0.528%, 1차 회귀함수 9.345%, 2차 회귀함수 6.791%, 3차 회귀함수 7.101%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서 $0\% \leq \text{MAPE} < 10\%$ 사이로 나타나 매우 정확한 예측치로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가 도출됨.
-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에 대한 적합도 결과는 $10\% \leq \text{MAPE} < 20\%$ 사이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에 해당되나 $\text{MAPE} = 10.528\%$ 로 매우 정확한 예측치에 가

까운 적합도로 판단됨.

<표 IV-7>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예측결과

	2016	2017	2018	2019	2020	MAPE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4,399	15,288	16,176	17,064	17,952	10.528%
Linear function	14,548	15,436	16,324	17,213	18,101	9.345%
예측모델 평균	14,474	15,362	16,250	17,139	18,027	

Quadratic function과 Cubic function은 예측결과가 지나치게 낮거나 지속적 감소 추세로 도출되어 예측에서 제외함.



[그림 IV-3] 각 모델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예측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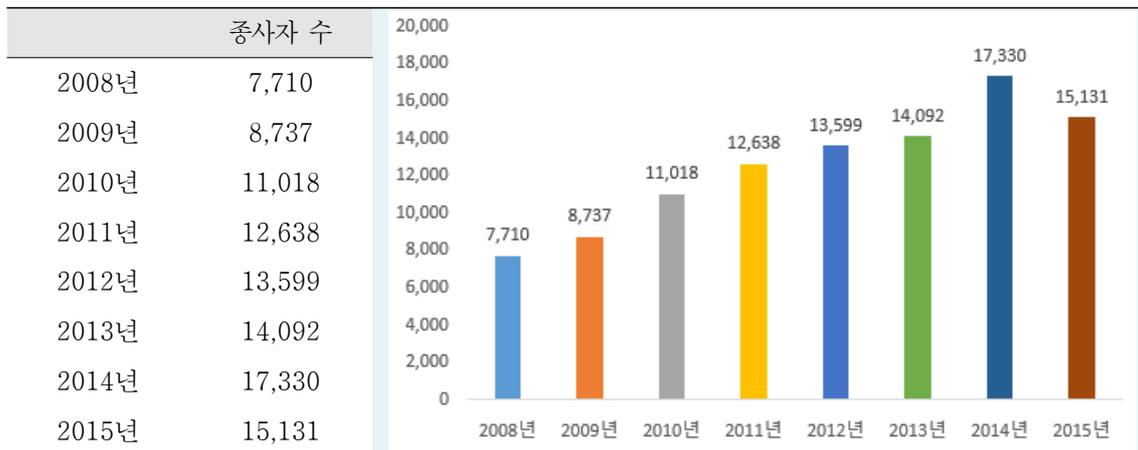
- 그러나 3차 회귀함수에 대한 모델의 적합도는 7.101%로 높은 적합도로 도출되었으나 예측치는 가장 낮아 과거 실제자료를 고려해 볼 때 예측치가 지나치게 낮게 추정됨(예측결과가 음(-)의 결과로 도출됨). 2차 회귀함수의 결과에서도 도표의 함수는 실제데이터에 적합해 있지만 마지막 부분이 하향하는 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2차 회귀함수와 3차 회귀함수는 분석결과에서 제외함.
- 이는 수요예측을 위한 원자료(raw data)가 8개밖에 안 되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종사자 수를 예측한 결과, 2020년 기준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은 17,952명, 1차 회귀함수는 18,101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원 수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향후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수에 대한 예측결과 낙관적인 전망치는 18,101명으로 예측한 1차 회귀함수모델임.
- 2020년 기준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차 회귀함수모델에 대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면, 두 모델의 결과에 대한 평균인 18,027명으로 추산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는 2008년 7,710명에서 2014년 17,330명으로 지속적으로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에는 전년 종사자 수보다 3,238명이 증가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표 IV-8>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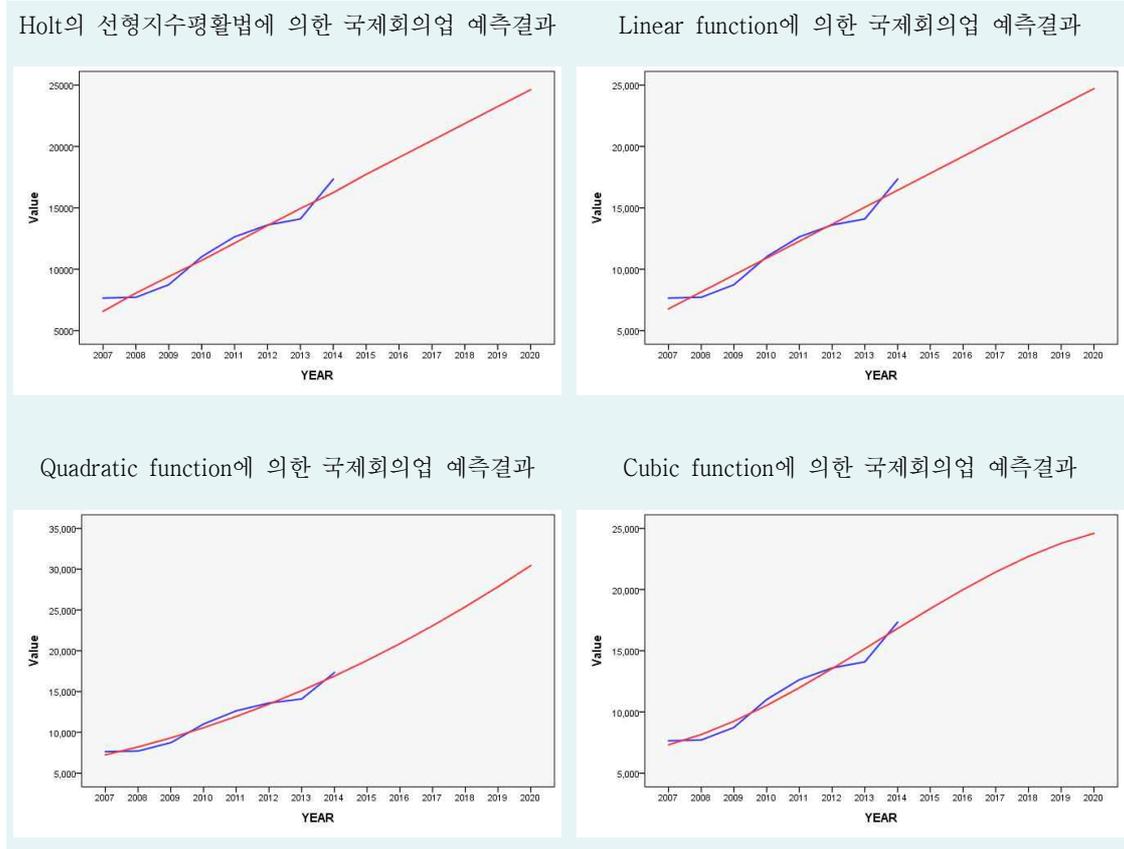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에 대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과 회귀모델을 이용한 수요예측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절대평균비율오차)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5.706%, 1차 회귀함수 5.306%, 2차 회귀함수 4.854%, 3차 회귀함수 4.556%로 모든 모델에서 $0\% \leq \text{MAPE} < 10\%$ 사이로 매우 정확한 예측치로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가 도출됨.

<표 IV-9> 국제회의업에 대한 예측결과

	2016	2017	2018	2019	2020	MAPE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9,104	20,484	21,864	23,244	24,623	5.706%
Linear function	19,186	20,565	21,945	23,325	24,705	5.306%
Quadratic function	20,873	23,063	25,388	27,847	30,442	4.854%
Cubic function	19,995	21,433	22,709	23,778	24,595	4.556%
예측모델 평균	19,790	21,386	22,977	24,549	26,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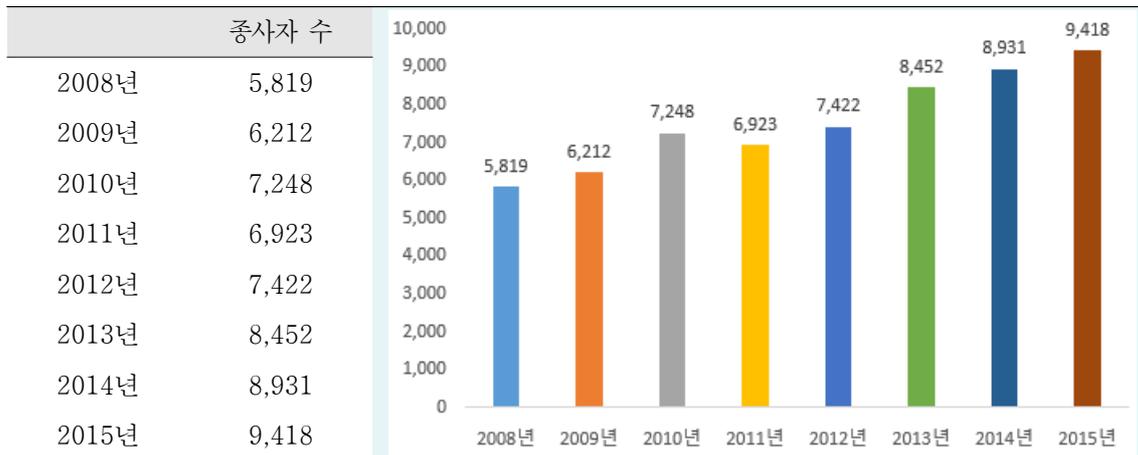
[그림 IV-4] 각 모델에 의한 국제회의업의 예측결과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국제회의업에 대한 종사자 수를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은 24,623명, 1차 회귀함수는 24,705명, 2차 회귀함수는 30,442명, 그리고 3차 회귀함수는 24,595명으로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의 규모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향후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에 대한 예측결과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는 2차 회귀함수모델이었으며, 중도적 전망치는 1차 회귀함수모델, 보수적 전망치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모델과 3차 회귀함수모델로 나타남.
- 2020년을 기준으로 각 예측모델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면, 각 모델의 결과에 대한 평균치인 26,091명으로 추산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카지노업

- 카지노업 종사자 수는 2008년 5,819명에서 2010년 7,248명으로 지속적으로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 6,923명으로 소폭 감소됨.
- 2011년 소폭 감소 이후 2012년 7,422명, 2013년 8,452명, 2015년 9,418명으로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V-10> 카지노업 종사자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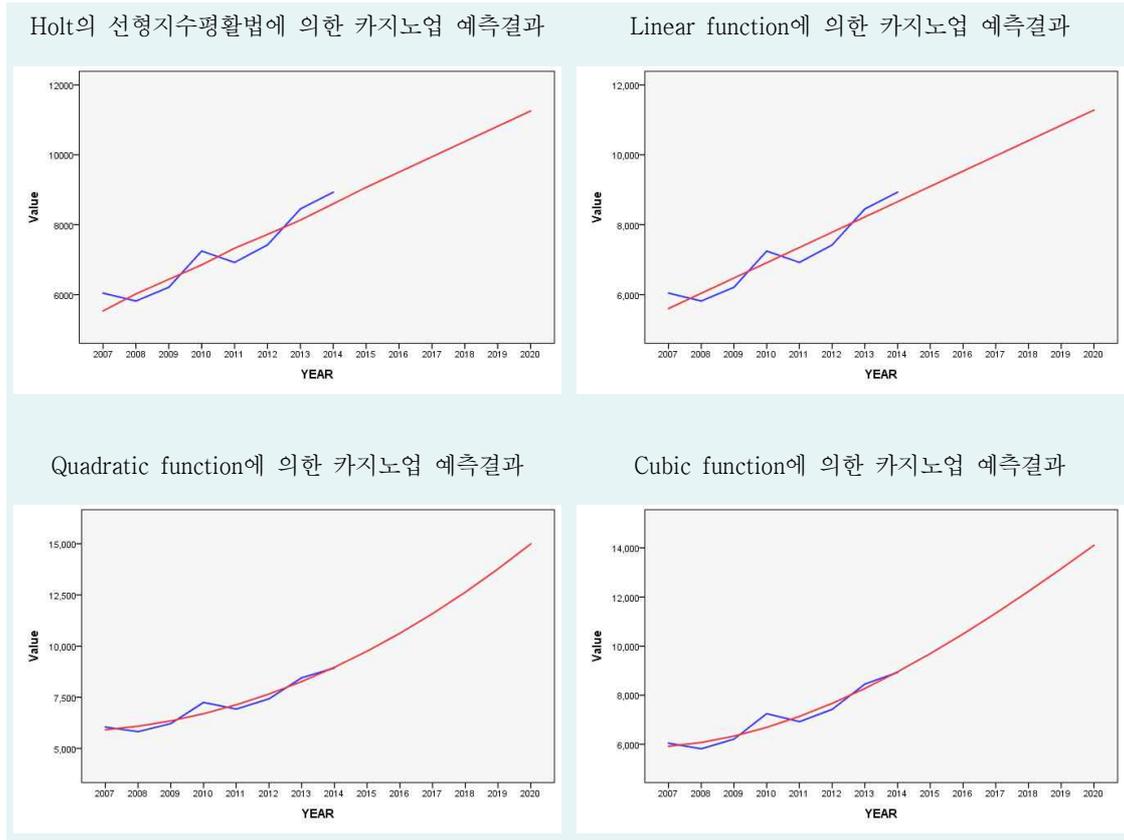
- 카지노업 종사자 수에 대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과 회귀모델을 이용한 수요 예측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절대평균비율오차)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4.812%, 1차 회귀함수 4.600%, 2차 회귀함수 3.160%, 3차 회귀함수 3.102%로 모든 모델에서 $0\% \leq \text{MAPE} < 10\%$ 사이로 매우 정확한 예측치로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가 도출됨.

<표 IV-11> 카지노업에 대한 예측결과

	2016	2017	2018	2019	2020	MAPE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9,506	9,943	10,379	10,816	11,252	4.812%
Linear function	9,533	9,969	10,406	10,842	11,279	4.600%
Quadratic function	10,626	11,587	12,636	13,772	14,996	3.160%
Cubic function	10,492	11,339	12,228	13,153	14,106	3.102%
예측모델 평균	10,039	10,710	11,412	12,146	12,908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카지노업에 대한 종사자 수를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은 11,252명, 1차

회귀함수는 11,279명, 2차 회귀함수는 14,996명, 그리고 3차 회귀함수는 14,106명으로 카지노업 종사자 수의 규모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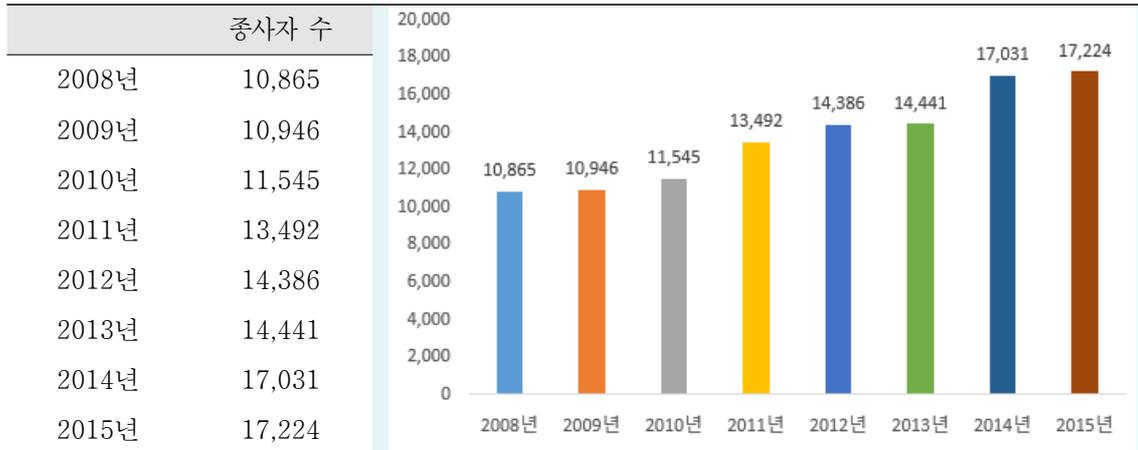
[그림 IV-5] 각 모델에 의한 카지노업의 예측결과

- 향후 카지노업 종사자 수에 대한 예측결과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는 2차 회귀함수모델이었으며, 중도적 전망치는 3차 회귀함수모델, 보수적 전망치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모델과 1차 회귀함수모델로 나타남.
- 2020년을 기준으로 각 예측모델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업 종사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면, 각 모델의 결과에 대한 평균치인 12,908명으로 추산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6) 유원시설업

- 유원시설업 종사자 수는 2008년 10,865명에서 2009년 10,946명, 2011년 13,492명, 2013년 14,441명, 2015년 17,224명으로 종사자 수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표 IV-12> 유원시설업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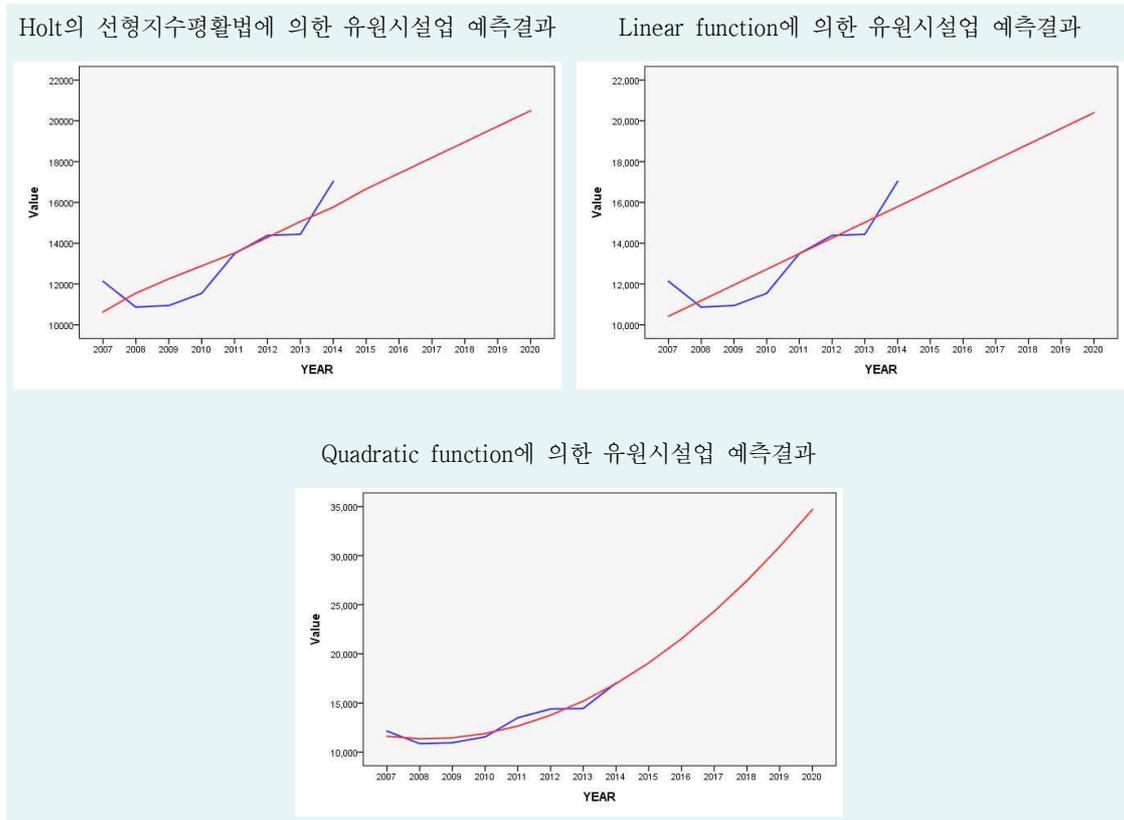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유원시설업 종사자 수에 대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과 회귀모델을 이용한 수요예측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절대평균비율오차)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6.854%, 1차 회귀함수 6.097%, 2차 회귀함수 4.081%, 3차 회귀함수 2.874%로 모든 모델에서 $0\% \leq \text{MAPE} < 10\%$ 사이로 매우 정확한 예측치로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가 도출됨.
- 그러나 3차 회귀함수에 대한 모델의 적합도는 2.874%로 가장 높으나 오히려 예측치는 가장 낮아 과거 실제자료를 고려해 볼 때 예측치가 지나치게 낮게 추정됨. 이는 도표에서 함수는 실제데이터에 가장 적합해 있지만 마지막 부분이 하향하는 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측결과에서 제외함.
- 이는 수요예측을 위한 원자료(raw data)가 8개밖에 안 되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13> 유원시설업에 대한 예측결과

	2016	2017	2018	2019	2020	MAPE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7,428	18,195	18,962	19,729	20,496	6.854%
Linear function	17,324	18,091	18,858	19,625	20,393	6.097%
Quadratic function	21,530	24,316	27,439	30,898	34,694	4.081%
예측모델 평균	18,761	20,201	21,753	23,417	25,194	

Cubic function은 예측결과가 지나치게 낮은 값으로 도출되어 예측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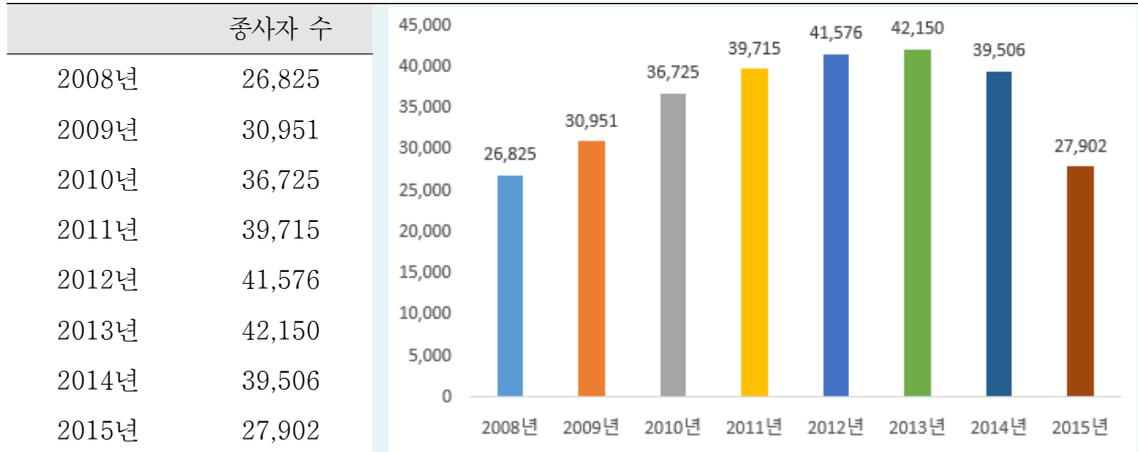
[그림 IV-6] 각 모델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예측결과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유원시설업에 대한 종사자 수를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은 20,496명, 1차 회귀함수는 20,393명, 2차 회귀함수는 34,694명으로 각각 유원시설업 종사원 수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향후 유원시설업 종사자 수에 대한 예측결과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는 2차 회귀함수모델이었으며, 중도적 전망치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모델, 가장 보수적 전망치는 1차 회귀함수모델로 나타남.
- 2020년을 기준으로 위 세 모델(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차 회귀함수모델, 2차 회귀함수모델)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유원시설업 종사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면, 각 모델의 결과에 대한 평균치인 25,194명으로 추산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7)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수는 2008년 26,825명에서 2009년 30,951명, 2011년 39,715명, 2013년 42,15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2014년 이후에는 39,506명에서 2015년 27,902명으로 11,604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보임.

<표 IV-14>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수에 대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과 회귀모델을 이용한 수요예측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절대평균비율오차)는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0.809%, 1차 회귀함수 9.797%, 2차 회귀함수 10.197%, 3차 회귀함수 5.005%로 1차 회귀함수와 3차 회귀함수의 결과에서는 모델의 적합도가 $0\% \leq \text{MAPE} < 10\%$ 사이로 나타나 매우 정확한 예측치로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가 도출됨.
-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MAPE = 10.809%)과 더불어 2차 회귀함수(MAPE = 10.197%)의 결과에 대한 모델 적합도는 $10\% \leq \text{MAPE} < 20\%$ 의 사이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에 해당되나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과 2차 회귀함수 두 모델 모두 MAPE 값이 10%대로 도출되어 매우 정확한 예측치($0\% \leq \text{MAPE} < 10\%$)에 가까운 적합도로 판단됨.
- 그러나 3차 회귀함수에 대한 모델의 적합도는 5.005%로 가장 높았으나 오히려 예측치는 가장 낮아 과거 실제자료를 고려해 볼 때 예측치가 지나치게 낮게 추정됨(예측결과가 음(-)의 결과로 도출됨). 이는 도표에서 함수는 실제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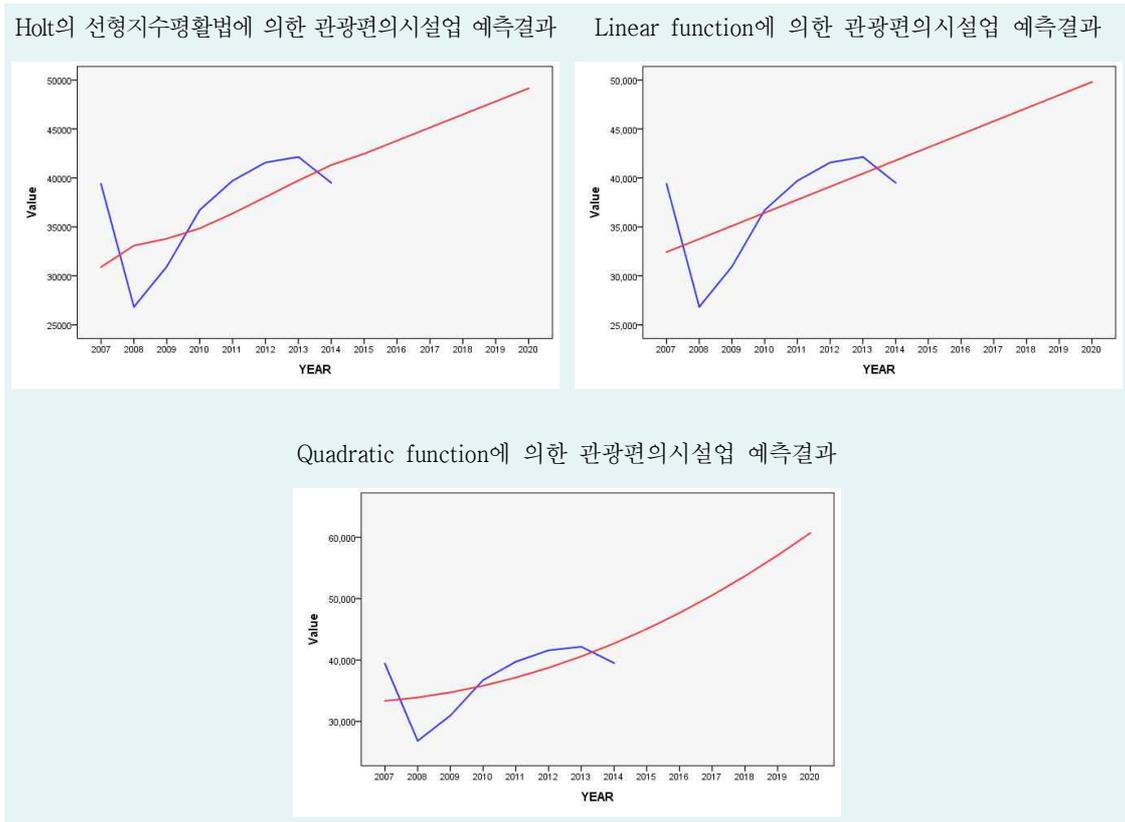
터에 가장 적합해 있지만 마지막 부분이 하향하는 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측결과에서 제외함.

- 이는 수요예측을 위한 원자료(raw data)가 8개밖에 안 되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종사자 수를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은 49,152명, 1차 회귀함수는 49,801명, 2차 회귀함수는 60,686명으로 각각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원 수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향후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수에 대한 예측결과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는 60,686명으로 예측한 2차 회귀함수모델이었으며, 중도적 전망치는 49,801명으로 예측한 1차 회귀함수모델, 가장 보수적 전망치는 49,152명으로 예측한 Holt의 선형지수평활모델로 나타남.
- 2020년을 기준으로 위 세 모델(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1차 회귀함수모델, 2차 회귀함수모델)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면, 각 모델의 예측 결과에 대한 평균치인 53,213명으로 추산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15>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예측결과

	2016	2017	2018	2019	2020	MAPE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43,807	45,143	46,480	47,816	49,152	10.809%
Linear function	44,456	45,792	47,128	48,465	49,801	9.797%
Quadratic function	47,657	50,530	53,660	57,045	60,686	10.197%
예측모델 평균	45,307	47,155	49,089	51,109	53,213	

Cubic function은 예측결과가 지나치게 낮은 값으로 도출되어 예측에서 제외함.



[그림 IV-7] 각 모델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예측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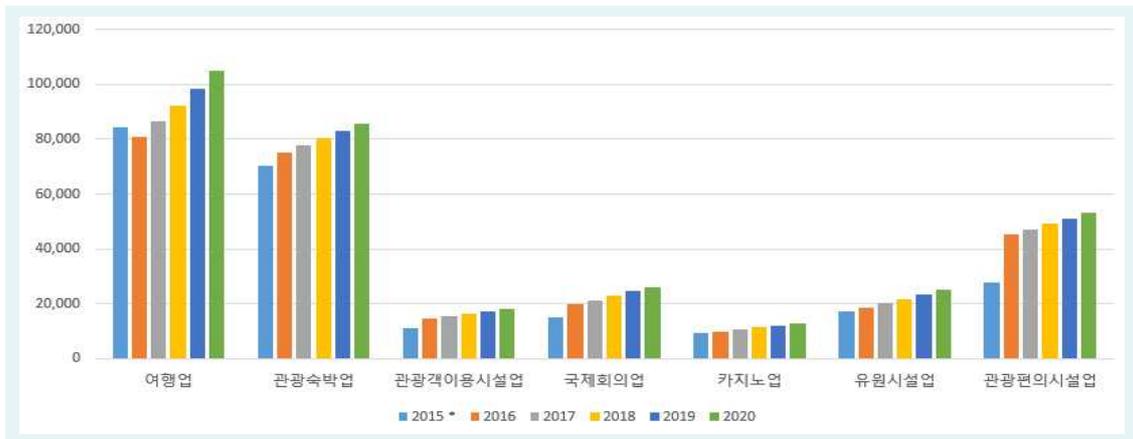
나. 관광·레저 산업 인력수요 전망

○ 관광산업 인력수요 전망을 종합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264,452명에서 2020년에 326,20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16>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2015 *	2016	2017	2018	2019	2020
여행업	84,558	81,031	86,460	92,282	98,495	105,100
관광숙박업	70,305	75,050	77,706	80,362	83,018	85,674
관광객이용시설업	11,065	14,474	15,362	16,250	17,139	18,027
국제회의업	15,131	19,790	21,386	22,977	24,549	26,091
카지노업	9,418	10,039	10,710	11,412	12,146	12,908
유원시설업	17,224	18,761	20,201	21,753	23,417	25,194
관광편의시설업	27,902	45,307	47,155	49,089	51,109	53,213
합 계	235,603	264,452	278,980	294,125	309,873	326,207

주1: 제시된 2015년 기준 관광·레저산업 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 (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임.



[그림 IV-8]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 수요 전망

- 이 중 여행업이 105,100명, 관광숙박업 85,674명으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이 인력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인력수요 증가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합계 95,873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력수요 규모가 큰 업종은 여행업 35,700명, 관광숙박업 18,209명, 관광편의시설업 13,707명, 국제회의업 8,761명, 유원시설업 8,163명, 관광객이용시설업 7,356명, 카지노업 3,977명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34,118명에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7년 14,528명, 2018년 15,145명, 2019년 15,748명, 2020년 16,334명 규모로 분석됨.

<표 IV-17> 연도별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증가분

사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합계
여행업	11,631	5,429	5,822	6,213	6,605	35,700
관광숙박업	7,585	2,656	2,656	2,656	2,656	18,209
관광객이용시설업	3,803	888	888	889	888	7,356
국제회의업	2,460	1,596	1,591	1,572	1,542	8,761
카지노업	1,108	671	702	734	762	3,977
유원시설업	1,730	1,440	1,552	1,664	1,777	8,163
관광편의시설업	5,801	1,848	1,934	2,020	2,104	13,707
합 계	34,118	14,528	15,145	15,748	16,334	95,873

3. 관광·레저 산업 업종별 실태 및 전망 ²²⁾

가. 여행업

○ 여행업 분야는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자, 콘텐츠 개발자, 마케터, TC 및 가이드, IT 전문 인력 등 5개 직종이 핵심인력으로 구분됨.

□ 핵심 직종별 수급 실태

- 향후 인력수요 증가 직종: 여행상품 개발자, 콘텐츠 기획자, IT전문인력
- 향후 인력수요 감소 직종: 여행상품 상담원
- 이 밖에 TC 및 가이드는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규모가 많음.

□ 여행업 분야 인력 전망(고용정보원)

- 여행사무원: 2013년 31,200명에서 2018년에는 38,600명으로 증가
-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사: 2013년 19,800명에서 2018년 24,100명으로 증가 (4.0%)

<표 IV-18> 여행업 분야 인력 수요 전망

(단위: 명, %)

직종	취업자 수(천 명)				연평균 증감율(%)			
	2008	2013	2018p	2023p	2008	2013	2018p	2023p
여행 사무원	21.0	31.2	38.6	43.4	8.2	4.4	2.4	3.4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사	9.1	19.8	24.1	26.5	16.8	4.0	1.9	3.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 여행업 이용객수에 따른 전망

- 2015년 기준 여행업의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2014년(94,334,877명)에 비해 2015년 96,078,467명으로 1.8%가 증가하였음.

22) 관광·레저 산업 업종별 전망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함.

<표 IV-19> 여행업 이용객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13	2014	2015	증감률
일반 여행업	20,154,532	30,144,870	29,155,913	-3.3
국외 여행업	5,119,099	19,813,237	19,003,491	-4.1
국내 여행업	9,417,624	23,032,175	26,602,747	15.5
국내·외 여행업	10,847,306	21,344,595	21,316,316	-0.1
전 체	45,538,560	94,334,877	96,078,467	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위의 결과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여행 및 내국인의 국외 여행에 비해 내국인의 국내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국내여행업의 경우 관련자격증(국내 여행안내사 등)을 소지한 관광인력의 확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나. 관광숙박업(호텔업)

- 호텔업은 영업·마케팅,接客 안내 파트의 벨 어텐던트, 하우스 키핑, 시설 및 장비관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가 핵심인력으로 구분됨.

□ 핵심 직종별 수급 실태

- 향후 인력수요 증가 직종: 벨 어텐던트, 하우스키핑, 시설 및 장비관리 인력
- 이 밖에 영업·마케팅 분야는 향후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규모가 많음.

□ 관광숙박업 분야 인력 전망(고용정보원)

- 숙박시설 서비스원: 2013년 44,800명, 2018년에는 40,400명, 2023년 39,700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²³⁾.

23) IT 기술 발달에 따른 시스템 자동화 등으로 노동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대규모 관광호텔의 경우 일정 수준 유지 예상).

<표 IV-20> 관광숙박업 분야 인력 수요 전망

(단위: 명. %)

직종	취업자 수(천 명)				연평균 증감율(%)			
	2008	2013	2018p	2023p	2008	2013	2018p	2023p
숙박시설 서비스원	45.5	44.8	40.4	39.7	-0.3	-2.0	-0.4	-12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 관광숙박업 이용객수에 따른 전망

- 2015년 기준 관광숙박업의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2014년(85,401,877명)에 비해 2015년 91,441,457명으로 7.1%가 증가하였음.

<표 IV-21> 관광숙박업 이용객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
호텔업	관광호텔업	47,826,137	41,133,313	40,972,238	-0.4
	기타호텔업	5,405,017	5,959,645	6,572,793	10.3
	소계	53,231,154	47,092,958	47,545,031	1.0
휴양콘도미니엄업		46,494,275	38,308,920	43,896,426	14.6
전체		99,725,429	85,401,877	91,441,457	7.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위의 결과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 및 특색 있는 숙박시설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숙박시설의 인력확충이 필요함(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다.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 기획, 전시 컨벤션 기획, 시설관리 인력이 핵심 인력으로 구분됨.
 - 국제회의 기획업은 사업부서에서 컨벤션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핵심적인 기능을 함(50%이상 비중 차지).
 - 국제회의시설업에서는 전시 컨벤션 기획 업무를 하는 인력 및 시설관리 인력 수요 높음.

□ 핵심 직종별 수급 실태

- 향후 인력수요 증가 직종: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자
- 이 밖에 국제회의·전시·컨벤션 기획자는 채용 수요보다 공급 규모가 크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채용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국제회의업 이용객 수에 따른 전망
 - 2015년 국제회의시설업의 참가자 수는 1,9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2> 국제회의 시설업 참가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13	2014	2015	증감률
국제회의 시설업	24,609,507	26,123,745	19,463,756	-25.5

주: 국제회의업의 참가자 수 - 국제회의, 전시회 등 '국제회의시설'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유료 및 무료 입장객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위에 결과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 및 관련 프로그램의 미흡으로 참가자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관련 자격(컨벤션 기획사 등)을 갖춘 우수인력 확충을 통한 국제회의시설업의 활성화가 필요함(교육기관의 관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

라. 카지노업

- 카지노업은 게임운영을 담당하는 딜러, 게임 관찰 및 관리 업무 담당 Surveillance, 고객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마케터, IT전문 인력이 핵심 인력으로 구분됨.
- 핵심 직종별 수급 실태
 - 향후 인력수요 증가 직종: 딜러
 - 이 밖에 영업 및 마케팅 관련 분야는 중국 현지 유학 경험 인력이 카지노업으로 유입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고, IT전문인력은 CRM, CRS 등 시스템 관리 담당 인력으로 복합리조트 건립과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카지노업 이용객 수에 따른 전망

- 카지노업의 연간 총 이용객 수는 5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3> 카지노업 이용객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13	2014	2015	증감률
전 체	5,727,542	5,968,733	5,746,741	-3.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위의 결과에 따라 카지노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벤트 등) 개발 및 관련 종사원의 서비스 향상이 요구되어짐.
- 이에 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벤트 및 서비스 등)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우수 인력의 현장 배치가 필요함.

마. 그 밖의 업종

(1) 관광객이용시설업

□ 이용객수에 따른 전망

- 2015년 전국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이용객 수는 4,992만명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4>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용객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13	2014	2015	증감률
전문 및 종합휴양업	42,590,404	46,655,438	36,060,231	-22.7
일반야영장업	-	-	7,578,982	-
자동차야영장업	838,054	3,086,138	3,397,916	10.1
관광유람선업	2,928,150	2,993,786	2,173,608	-27.4
관광공연장업	1,545,572	1,544,694	712,896	-53.8
전 체	69,564,948	54,280,056	49,923,632	-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위의 결과에 따라 가족단위 캠핑 이용객들이 늘어남을 알 수 있으며 추세에 발맞춰 관련 자격증의 개발(예: 캠핑지도사 등)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우수인력 현장 배치가 필요함.

(2) 유원시설업

□ 이용객수에 따른 전망

- 2015년 전국의 유원시설업 이용객 수는 9,933만 명으로 2014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5> 유원시설업 이용객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
종합유원시설업	46,467,699	44,259,659	40,661,896	-8.1
일반유원시설업	36,216,200	46,576,026	48,457,414	4.0
기타유원시설업	8,149,650	12,078,690	10,207,995	-15.5
전체	90,833,549	102,914,375	99,327,305	-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위의 결과에 따라 대규모 유원시설업에 비해 중소 규모의 유원시설업에 많은 이용객수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기관의 관련 프로그램(유원시설운영 관리 등) 운영을 통한 중소규모 유원시설업에 우수인력의 신규 유입이 요구됨.

(3) 관광편의시설업

□ 이용객수에 따른 전망

- 2015년 전국의 관광편의시설업 이용객 수는 9,2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IV-26> 관광편의시설업 이용객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
관광유흥음식점업	4,433,904	1,450,869	132,742	-90.9
관광극장유흥업	7,964,336	10,708,922	6,882,701	-35.7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336,263	2,044,284	2,829,345	38.4
관광식당업	118,557,370	170,451,201	74,897,499	-56.1
시내순환관광업	894,266	1,846,671	2,109,878	14.3
관광사진업	31,525	60,607	22,067	-63.6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970,435	2,620,472	252,000	-90.4
관광펜션업	1,410,644	1,668,921	1,535,172	-8.0
관광케도업	4,967,150	7,978,479	2,088,558	-73.8
한옥체험업	557,165	633,988	889,776	40.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87,402	446,877	683,569	50.3
전체	143,210,460	199,911,290	92,323,309	-53.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위에 결과에 따라 외국어 실력을 갖춘 인력 확충이 예상되며, 시티투어를 비롯한 한국전통체험관광객들을 위한 역량을 갖춘 종사원의 확충이 전망되어 이를 위한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요구됨(문화관광해설사, 체험지도사 등).

관광·레저산업 주요 이슈와 ISC의 역할

1. 관광·레저산업 주요 이슈

1) 관광·레저산업 노동시장

-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고용창출을 동반한 성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용창출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보다는 여행 산업과 같은 고용친화적인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여행 및 관광숙박업의 노동과정은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기계나 장치에 의해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에서도 2014년 기준 2016년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264,452명에서 2020년에 326,20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5년간 95,873명의 추가적인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 중 여행업이 98,495명, 관광숙박업 83,018명으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이 인력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인력수요 증가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합계 95,873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력수요 규모가 큰 업종은 여행업 35,700명, 관광숙박업 18,209명, 관광편의시설업 13,707명, 국제회의업 8,761명, 유원시설업 8,163명, 관광객이용시설업 7,356명, 카지노업 3,977명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34,118명에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7년 14,528명, 2018년 15,145명, 2019년 15,748명, 2020년 16,334명 규모로 분석됨.

- 그러나 관광·레저산업분야 경력개발은 인적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라 수평 직급 간 분포가 타 산업에 비해 넓게 형성되어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승진 기회 등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승진 적체에 따라 조직 내에서 비전을 찾지 못한 인력의 유출이 많으며,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고 있음.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전체 종사자 수와 전체 이직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관광·레저 사업체 종사자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관광·레저 사업체 이직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고용노동통계의 전 산업 이직률은 4.7%(2014년 기준, 전 산업 총 종사자 15,657,030명, 전 산업 총 이직자 686,451명)로 나타나고 있어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직률은 여행업 12.0%, 관광숙박업 19.1%, 관광객이용시설업 14.3%, 국제회의업 15.5%, 카지노업 12.2%, 유원시설업 8.6%, 관광편의시설업 24.3%로 전 산업 평균 이직률인 4.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2) 관광·레저산업 교육·훈련제도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취업자에 대한 비중에서 특성화고의 경우는 외식업, 호텔업, 리조트, 여행업, 면세점의 순이었고, 전문대학에서는 호텔업, 외식업, 여행업, 면세점, 리조트업의 순이었으며, 4년제 대학교는 호텔업, 외식업 및 여행업, 리조트, 항공업의 순으로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수는 외식업이 2014년 64.1%, 2015년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관광산업 분야별 취업자수는 호텔업, 기타, 리조트, 여행업, 면세점, 테마파크, 항공업, 컨벤션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중 호텔업에 종사하는 수가 2014년 23.1%, 2015년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관광산업 분야별 취업자수는 외식업, 여행업, 기타, 면세점, 리조트, 항공업, 테마파크, 컨벤션의 순이었음.

-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관광 관련 분야 취업자를 살펴보면 호텔업 종사자가 2014년 33.3%, 2015년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관광 산업 분야별 취업자수는 기타, 외식업, 여행업, 리조트, 항공업, 면세점, 테마파크, 컨벤션의 순으로 조사됨.
- 반면,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교의 각 교급에서 취업 시 선호하는 분야는 호텔업과 항공업, 외식업, 여행업 등으로 분석됨. 비율이 높게 나타난 취업 시 선호분야는 관광산업에서 규모가 크고 주요한 업종으로 여겨지는 대상에 구직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관광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시 선호하는 업종은 호텔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항공업, 여행업, 외식업, 리조트, 면세점, 기타, 테마파크 순으로 나타남.
 - 전문대학 학생들이 취업 시 선호하는 업종은 호텔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행업, 항공업, 외식업, 면세점, 리조트, 컨벤션, 기타, 카지노, 테마파크의 순임.
 - 대학교 학생들이 취업 시 선호하는 분야는 호텔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행업, 항공업, 외식업, 기타, 리조트, 컨벤션, 카지노, 면세점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교의 각 교급에서의 전체 취업자 중 관광·레저산업 분야로의 취업률에서도 각각 55.5%, 47.8%, 49.1%로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정도의 인력만이 관광·레저산업 관련 분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분야로의 취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전체 취업자 중 관광·레저산업 분야로의 취업에서도 2015년 기준 관광분야 특성화고 등학교의 졸업생 수는 3,810명이고 취업자 수는 1,590명이며, 이 중 관광업계 취업자는 883명으로 전체 취업생 중 55.5%가 관광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전문대학 관광학과 졸업생 수는 3,650명이고, 취업자 수 2,086명이며, 이 중 관광분야 취업자 수는 998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47.8%가 관광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기준 대학교의 졸업생 수는 2,602명이고 취업자 수는 1,589명이며, 이 중 관광분야 취업자 수는 78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9.1%가 관광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의 현장실습, 기업맞춤형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의 현장성 미흡 및 직장 내 의사소통능력,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등의 부족으로 직장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현실임.

- 관광·레저산업 관련 업무의 특성은 실무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교과목은 대부분이 이론교육 위주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레저산업 관련 현장과 괴리가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서 Job mismatch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광·레저산업 업무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되고 일반화된 훈련과정이 없으며, 자격제도가 현업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 실제로 업무와 연계된 표준화된 훈련과정은 현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정 관광·레저산업 관련 분야에서 자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종류와 체계가 다양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3) 관광·레저산업 관련 자격제도

- 현행 자격제도는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과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취득과정(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관광·레저산업 현장에서는 경영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관광관련 자격증 취득 관심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5점 척도 기준으로 관광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도는 3.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됨.
 - 관광관련 자격증 취득 수요에 대하여 관광 특성화고등학교는 「국내여행안내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호텔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컨벤션기획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순으로 조사됨.
 - 전문대학 관광관련 학과는 「국외여행인솔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텔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컨벤션기획사」 순으로 조사됨.
 - 대학교 관광관련 학과는 「국외여행인솔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순으로 관광관련 자격증 취득 수요가 조사됨.
- 현행 관광 종사원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사항에서도 5점 척도 기준으로 「현행 자격제도의 검정체계 개선」 3.5점, 「신규유망 자격제도의 도입」 3.2점, 「

NCS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2.8점 순으로 현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사결과 나타남.

-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 매칭 되지 않아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현행 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는 전면 개편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자격제도의 법적 기준의 마련, 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강제성 부여, 자격 비율등급 반영 등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임.
- 현행 자격제도는 현장의 Level을 반영하지 못하여 명확하게 수준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자격 취득과 업무수행이 연계되기 어려운 실정임.
- 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격의 취득이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경영진과 현장에서 일하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 및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관광·레저산업 분야에서 자격취득자들이 가질 수 있는 채용, 승진 등에 우선권 제공 등 실질적인 차별화가 필요함.

4) 관광·레저산업분야 New 트렌드

- 학계 및 업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조사결과와 심층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관광·레저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와 트렌드의 추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관광·레저산업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고 전략분야 발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New 트렌드를 도출함.
- 플랫폼 경제 기반의 관광·레저산업 영역의 초연결 및 자동화를 통한 관광상품 및 서비스 유통구조의 변화
 - 소셜 플랫폼 사용의 증대로 집단지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통해 생생한 관광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호스트봇(Hostbot),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디디추싱(Didi Chuxing), 교통서비스 우버(Uber), 오픈데이블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의 활성화.

□ 사물인터넷 기반의 관광정보 공유서비스

-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관광서비스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관광객의 정보접근성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예약이 강세를 보이며 관광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음.
 - 관광명소에 IoT센서의 부착을 통해 여러 불편함 해소에 일조.
- 무선인터넷망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여 여행가이드 없이 쉽게 스마트 관광을 즐길수 있는 융복합 관광서비스의 제공.

□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패턴 분석

- 관광객의 소비패턴 분석, 부문별 선호도 파악, 여행객 안전을 위한 실시간 자동경보시스템인 Travelbasys, 주문형 경제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
- 빅데이터 분석은 각 지역별로 홍보와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빅데이터 수요조사 실시 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정책 수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기반 자동화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체험상품의 개발, 콘텐츠 발굴 제작 육성 부문의 수요 증가.
 - 관광·레저산업 내의 단순 반복 작업영역의 대체.

□ 문화관광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한 관련 ICT분야 일자리 증대

- 누구나 쉽게 창작과 제작에 관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와 창작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Open Source Hardware) 등의 보급으로 디지털을 통한 제작이 수월해짐.
 - 문화관광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 및 접근 채널의 다변화.
- ICT 인프라 구축 수요의 증가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업무의 효율성 증대, 문화공간과 시설의 증가 등 문화관광 서비스업의 발전.
 - ICT 발전에 따른 요구되는 일자리 점검을 통해 적합한 노동력 생산시스템의 유기적 협력체계 도출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그린 투어리즘과 6차산업화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대변혁을 대비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체인 소위 6차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새로운 인력창출 필요.
 -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다수의 국민에게 상품의 형태로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농어업인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농어촌의 문화적 체취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강조됨.
- 그린투어리즘은 해당 지역의 고유 특성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건강한 관광 산업으로, 농어촌이 주는 정서적 안정과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함.
- 관광·레저산업과 6차산업의 협업은 생산에서 가공·판매 등의 영역을 통합하고, 관광이나 교류·복지 등을 비즈니스화하여 지역의 일자리 증대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단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 여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여행문화인 슬로우 트래블의 확산

- 슬로우 문화는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슬로푸드, 패스트패션에 상반되는 슬로우 패션을 비롯하여 슬로우 시티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음.
- 최근에 킨포크(Kinfolk) 라이프가 글로벌 트렌드로 조용히 확산되는 등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느림’의 가치가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행문화로 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추세임.
- 스트레스에 지치고 우울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현대인에게 위로형 힐링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행으로서 위안과 치유를 위한 힐링추구형 슬로우 트래블이 점점 더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됨.
- 즉, 여행지를 힘겹게 다니고 여기저기 유명한 곳을 보는 데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여행을 즐기는 슬로우 트래블이 부상하고 있음.

□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는 DIY 여행의 부상

- 단체관광보다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선호하며, 다양한 경험을 누리기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으며, 스스로가 여행의 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관리하는 개별여행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현상에 인터넷의 역할이 중요해짐.
- 단순히 여행지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소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며 정신적·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체험소비가 확산되면서 현지인과 교감을 나누는 경험을 중시하는 크리에이티브 관광(creative tourism)이 성장함.
- 개별관광의 증가, 여행에서의 독특한 경험 추구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요구됨.

2. 관광·레저ISC의 역할

1) 관광·레저ISC의 일반적인 역할

□ 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인재양성 가이드 역할

- 관광·레저산업 ISC는 본 산업인력현황 분석보고서에 의해 예측 가능한 위와 같은 노동시장, 교육훈련제도, 자격제도 및 New 트렌드와 관련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광·레저산업의 대표성을 가진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신산업 패러다임 변화 맞춤형 인재양성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산업 수요 중심 교육훈련 제도 정착을 위한 역할 강화

- NCS개발 및 일학습병행제 운영, 신 자격 개발에 있어 개발방식 및 체계 확립을 위한 관광·레저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제도 개선, 수정·보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 수립에 적절한 대안 제시.
- 교육훈련제도의 개선과 정착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필요한 표준역량이나 자격의 설정, 산업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훈련기준의 공급 등 관광·레저산업 ISC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학습병행제, 신자격개발 등은 개발 및 적용의 초기 단계에 있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준 및 제도들로서 보급 및 확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빠른 제도 개혁 및 개발/개선 진행으로 발생가능한 제도적 미비점을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개선하여 산업현장 정착 유도.

□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 정기적으로 산업 인력 현황 분석 수행

- 기존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되 관광·레저산업 ISC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NCS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조사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실시기관: 한국궤립조사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인력 현황에 대한 주기적이고 정교한 분석 및 예측 결과의 산업체 피드백을 통해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성 제고.

- 특히, 관광·레저 산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 및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는 산업인력현황조사 및 분석 사업은 관광·레저산업 ISC 성과목표와 NCS 및 NCS 기반자격 등 고유·개별사업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
- 산업인력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관광·레저 ISC의 고유사업 및 전략분야 산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산업,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현황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활용성이 높은 산업인력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현장과 밀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통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Raw data 확보 및 재분석, 필요에 따라 관광·레저 ISC가 직접 산업계를 대상으로 FGI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또한, 정기적인 산업인력현황 분석은 정부부처,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활용처의 수요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 강화 병행 필수
- 관광·레저산업분야 NCS를 기반으로 마련한 학습모듈이 교육·훈련기관(특성화고, 전문대, 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레저ISC가 운용 지원.
-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및 공급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산업인력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기회 제공.
- 관광·레저산업 관련 산업동향, 산업인력수급,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특징, 유망산업 중심의 세부 전망 및 이슈 제시
 - 급변하는 관광·레저산업 환경에 부응하고 미래유망 신 성장산업 등 주요 산업의 동향 및 인력수요에 대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이슈에 대하여 조사.
 - 국가통계, 직업교육훈련 현황, 기타 산업계 연구·동향 자료 등의 수집·활용·분석을 체계화하여 적시적 이슈 발굴 및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산업인력 현황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
- 미래유망 신 성장산업 분야 NCS의 선도적 발굴·개발 등을 주도하여 NCS기반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인력양성 정책사업 제안

- 관광·레저산업 관련 미래유망 신 성장산업 분야의 산업 환경 및 동향을 조사·분석.
 - 관광·레저산업 관련 신 성장산업 분야의 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의 설정을 통하여 주요 업무 도출.
 - 미래의 유망 신 성장산업 NCS 개발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관광·레저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력양성기반 구축.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현장 핵심 이슈 및 실정 전달체계 구축
- 지역별 혹은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관광·레저산업분야 관련 직무 근로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취합하여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산업연계성이 높은 협회 및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지역별 모니터링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업계 현장 애로사항 조사 및 발굴.

2) 관광·레저 ISC의 전략적 역할

가. NCS 개발·보완 및 확산

- 관광·레저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산업연계성이 높은 협회 및 단체,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체계를 기본으로 상호 연대하여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고, 관광·레저산업분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적자원 개발의 순기능 담당
- 이를 위해 관광·레저산업분야 교육훈련기관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차이를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의 효과성 및 현장성 제고를 위해 개발된 NCS의 확산을 통해 관련 산업 내 인적자원의 mismatch 완화 또는 해소를 도모하고 실무역량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NCS 기반 교육·훈련 체계를 정착시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
- 관광·레저 ISC는 관련 산업분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NCS 개발·보완, NCS 자격에 대한 설계 및 보완, 검정평가기준에 대한 개발·보완 등을 시행

- 더불어 현대의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유망 직종 분야 및 신 직업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개선 분야를 제시
-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NCS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체계 구축
 - NCS 개발·보완의 전담기관으로써 기업·학교·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시 검증 및 보완체계 마련
 - 현장중심 직무능력 측정을 위한 자격의 틀과 내용을 기준으로 NCS 자격의 신규 개발 및 보완수요 분석
 - 대기업 및 핵심기업에서의 시범적인 활용과 전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NCS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상시 보완하여 현장성 강화
 - 기업의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작성 지원을 위한 기업맞춤형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실시

나. 일학습병행제 운영 참여

- 관광·레저산업 기업별 특성에 맞는 NCS 기반 일학습병행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 학력보다 능력 중심의 인재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현장의 직무에 적합한 기업 맞춤형 직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과 산업현장 요구직무능력의 mismatch해소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병행함으로써 대학과 기업 간 고용관련 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적 학사제도로 개편 유도
- NCS 기반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로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 또는 학위 수여 시스템의 마련
- 학생, 기업체, 대학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체계적인 NCS자격 기반 현장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훈련환경의 구축 및 확

산 도모

- 일학습병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및 NCS자격 적용 원칙을 준수하고, NCS자격 미개발분야의 경우 이와 연계된 NCS 개발 및 확산
- 관광·레저산업 및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제공
 - 개별기업 발굴과 함께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분야 또는 직종의 발굴
 - 전략분야와 연계된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반영된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일학습병행제 도입 초기에 교육·훈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 기반의 학습도구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NCS 기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NCS 기반 현장외훈련(Off-JT)과 현장훈련(OJT) 이수 및 인증·평가 결과를 국가역량평가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에 기반한 인증기준(SQF)의 개발
- 관광·레저산업분야 기업에 일학습병행제 및 참여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 실시
 -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발굴하고 선정
 -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모델의 개발 및 제안을 통하여 시범 운영 및 산업현장에 확산
 - 관광·레저산업분야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여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
 -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 모델을 전 산업계에 확산, 타 ISC의 모범사례 소개 및 산업계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한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활용·확산을 위해서 관광·레저ISC가 관광·레저산업의 주요 이슈와 인력수급조사 및 분석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다. NCS 기반 기업활용컨설팅 제공

- 기업을 대상으로 NCS에 기반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사내 교육·훈련프로그램, 신규직원 채용 프로세스 등을 개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NCS를 활용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여건 제공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확보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NCS 활용 지원을 위한 컨설팅 팀 구성
 - 컨설팅 대상기업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기업체별 수행 직무과목 및 NCS와의 맵핑
 - 근로자 경력개발경로 개발(직무기술서, 체크리스트, 자가진단도구 등) 및 수준별 교육·훈련이수체계도 및 훈련과정 개발
 - NCS 기반 채용프로세스(채용공고문, 입사지원서, 필기·면접문항 등) 개발
 - NCS 기반 배치·승진제도 매뉴얼 및 NCS 기반 임금체계 개편 프로세스 설계
- 컨설팅 이후 컨설팅 결과 반영여부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 실시 및 참여기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채용과 재직자 훈련기법에 대한 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 유도

3. 관광·레저ISC의 전략분야

- 관련 산업분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NCS 개발·보완, NCS 자격에 대한 설계 및 보완, 검정평가기준에 대한 개발·보완 등 핵심적 전략분야 도출
- 미래유망 신 성장산업 분야의 NCS의 선도적 발굴·개발 등 NCS기반의 인력양성 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정책 사업 제안
-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트렌드 및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유망 직종 및 신 직업분야를 대상으로 NCS 추가 개발 또는 보완필요성을 제시
 - 플랫폼 경제 기반의 관광·레저산업 영역의 초연결 및 자동화를 통한 관광상품 및 서비스 유통구조의 변화
 - 사물인터넷 기반의 관광정보 공유서비스
 -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패턴 분석
 - 인공지능과 로봇기반 자동화
 - 문화관광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한 관련 ICT분야 신규 직무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그린투어리즘과 6차산업화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분야
 - 여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여행문화 슬로우 트래블의 확산
 -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는 DIY 여행의 부상
-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상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와 현재 개발된 NCS 개발 현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관광·레저산업분야에서 도출된 미래유망 신 성장산업부문을 현재 개발된 NCS가 이를 포괄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적 수요추세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관광·레저 관련 산업분야 NCS 신규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선도적인 발굴과 개발 및 보완을 추진

<표 V-1> 관광진흥법 상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와 NCS 개발 현황 비교

관광진흥법 상 관광·레저 산업 분류		관광·레저분야 NCS 개발 현황	
산업 분류	세분야	소분류	세분류
여행업	일반여행업	여행서비스	1. 여행상품개발 2. 여행상품상담 3. 국내여행안내 4. 해외여행안내 5. 항공객실서비스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숙박서비스	1. 숙박기획·개발 2. 객실관리 3. 부대시설관리 4. 연회관리 5. 접객서비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컨벤션	1. 회의기획 2. 전시기획 3. 이벤트기획
카지노업		관광·레저서비스	1. 카지노기획개발 2. 카지노운영관리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	미개발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일반야영장업	관광·레저서비스	3. 크루즈운영관리
	자동차야영장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레저서비스	4. 유원시설운영관리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	미개발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게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31호, 2017.3.8., 일부개정]에 의해 시내순환관광업이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변경됨.

- 관광 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2017.3.30 개정)에 근거한 관광·레저산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된 NCS 현황(2016년 6월, 보완 조정 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의 4개 분야임
-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레저분야에서 개발된 이 산업부문의 NCS는 여행서비스(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로 개발되어 있음
-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관광·레저분야 NCS는 숙박서비스(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로 개발되어 있음
-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관광·레저분야 NCS는 컨벤션(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기획)으로 개발되어 있음
-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 카지노업 분야는 관광·레저분야에서 개발된 NCS의 관광·레저서비스(카지노기획개발, 카지노운영관리)로 개발되어 있음
-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야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관광유람선업 중 크루즈업만이 관광·레저분야에서 개발된 NCS의 관광·레저서비스(크루즈운영관리)로 개발되어 있음
-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관련된 관광·레저분야 NCS는 관광·레저서비스(유원시설운영관리)로 개발되어 있음

-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휴양펜션업), 관광케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의 1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야 NCS는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음
- 이상과 같이 관광 법령에 근거한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와 NCS 개발 현황과의 비교·분석 결과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 종류 중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중 크루즈업 제외)과 관광편의시설업 전체 분야의 NCS는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이들 NCS미개발 산업분야의 운영특성과 고용현황, 직무의 특성과 성장잠재력 등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연구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NCS신규 개발 및 보완수요를 발굴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개발 필요성 제시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관광전문인력포털, <https://academy.visitkorea.or.kr>
- 교육부 (2016).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 보도자료.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ttp://www.hifive.go.kr>
-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 기업일학습 포털, <http://www.bizhrd.net>
- 김현주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형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김희수·김현주 (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법제처 (2017). 관광진흥법.
- 법제처 (20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법제처 (2017). 관광진흥법 시행령.
- 이충기 (2011). 관광응용경제학. 대왕사.
- 이훈영 (2008). 연구조사방법론. 청람.
- 정의선·유정정·조승현 (2013). 중국 인바운드 관광수입의 수요예측: ARIMA 모형에 의한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2(1), 135-15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용자 가이드.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한국여행업협회, <https://www.kata.or.kr>
- Lewis, C. D. (1982). Industrial and business forecasting methods. London: Butterworth.
- Makridakis, S. (1986). The art and science: An assessment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2(1), 15-39.

Makridakis, S., Wheelwright, S. C., & McGee, V. E. (1983). *Forecasting: Methods and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Wiley.

2017년도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 보고서

발행처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 화 : 02-569-6880

주 소 : 06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20 역삼현대벤처텔 1203호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ourism & Leisure Industry Skills Council